

2024 한국 부자 보고서

Korea Wealth Report 2024

2024.12

황원경 | 김남경 | 김진성

KB 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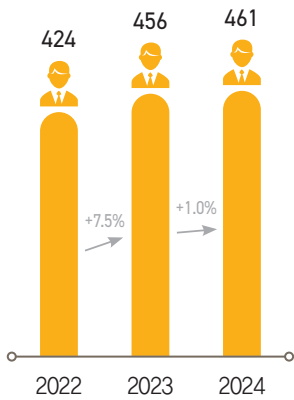
2024 한국 부자 보고서

Snapshot

한국 부자는 2024년 46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5천명 늘며 완만한 증가 추세

한국 부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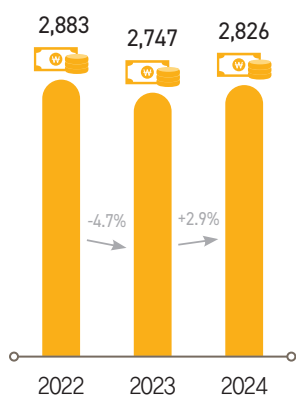
(단위: 천명)



※전년 말 기준 산정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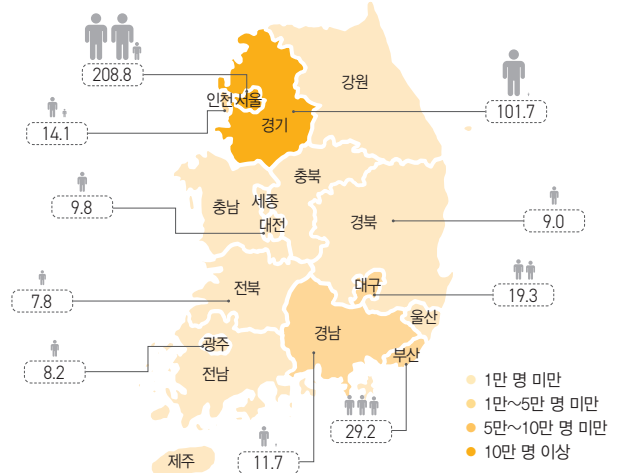
(단위: 조원)



한국 부자는 70.4%가 수도권에 거주,
전년 대비 이 지역에서 2천 4백 명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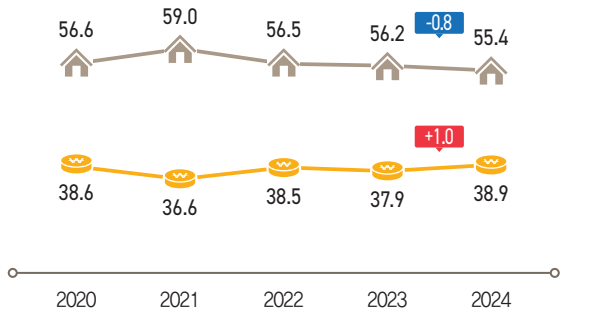
한국 부자 밀집 지역 TOP 10

(단위: 천명)



부자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5.4%,
금융자산 38.9% 차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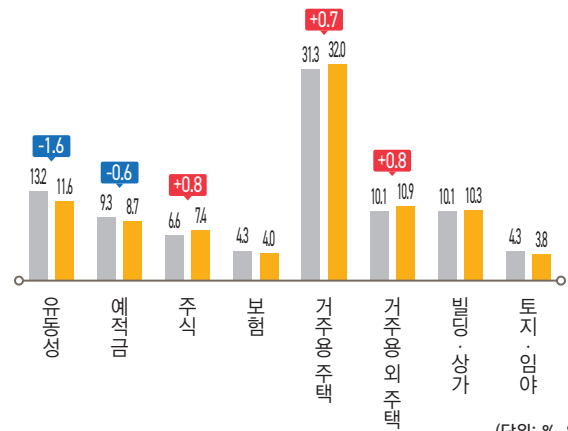


※중간값 기준

(단위: %)

전년 대비 총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및 거주용 외 주택의 비중 증가

2023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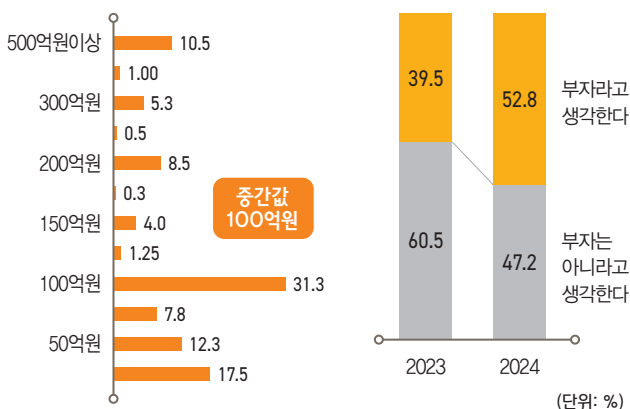


(단위: %, %p)

'부자'라면 '총자산 100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 전년 대비 증가

부자의 기준금액

부자 자각도



(단위: %)

한국 부자는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속 관심 속
전년 대비 '실물(금·보석) 투자'에 대한 관심도 상승

한국 부자의 최근 관심사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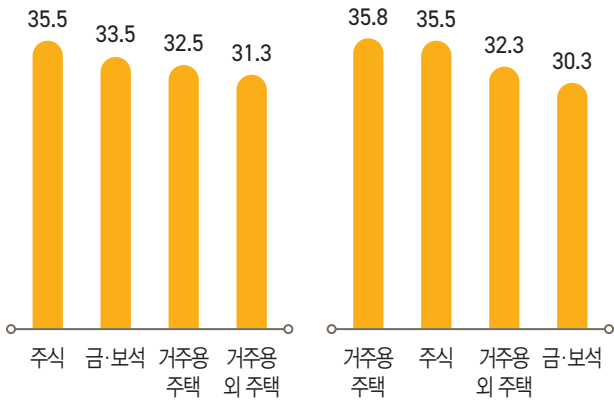
	2023	2024
국내 부동산 투자	1	1
실물(금·보석) 투자	4	2
국내 금융 투자	2	3
국내의 경제동향 정보 수집	3	4
세무 상담	5	5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조정	6	6

↑ 2단계

한국 부자는 단기 수익처로 '주식'과 '금·보석'을, 중장기 수익처로 '거주용 주택'과 '주식'에 주목

단기 고수익 투자처

중장기 고수익 투자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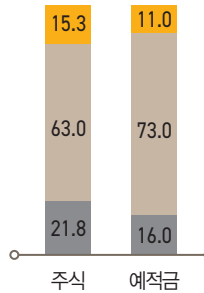


(단위: %)

2025년 금융투자 계획은 '관망' 기조 속 '주식'·'예적금' 대상 기대와 우려가 양분

2025 금융자산 운용계획

- 투자금액을 늘리겠다
- 유지하겠다
- 투자금액을 줄이겠다



(단위: %)

올해 안에 이익 실현을 다 해놓고 내년에는 안전자산 쪽으로 가려고 해요. 주식은 좀 줄이려고요

내년에는 불확실성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거고 이후 시장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가 오히려 약간의 추가 주식 매입의 기회가 아닐까 해요

혹시 모를 자산가치 폭락에 대비하려면 부동산 보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자의 거대 자금은 '세대간'·'지역간' 자산 이동을 통해 이동 중

상속·증여 경험 유무

- 받은 경험이 있다
- 받은 경험이 없다



해외투자 여부

- 투자한다
- 투자하지 않는다



해외 투자이민 고려 유무

- 생각해본적있다
- 생각해본적없다



(단위: %)

부자는 '생성형시 로보어드바이저'와 '인간의 개입'이 결합된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를 기대

AI 직접 이용 의향

- 있다
- 반반이다
- 없다



'AI+직원' 결합 상담 이용 의향

- 있다
- 반반이다
- 없다
- 내가 직접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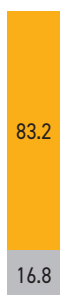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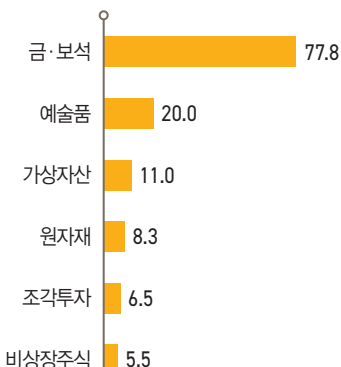
한국 부자 83.2%가 대체투자 경험이 있는 가운데, 투자 경험 1위 대체자산은 '금·보석'

대체투자 경험 유무

- 투자 경험이 있다
- 투자 경험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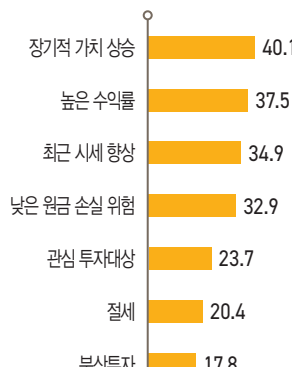
투자 경험이 있는 대체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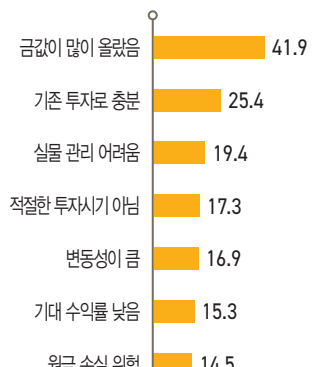
(단위: %)

'장기적 가치 상승' 기대 vs. '이미 오른 금값' 우려, 한국 부자의 금 투자 의향은 '온도 차'

금 투자 의향 이유 Top7



금 투자 비의향 이유 Top7



(단위: %)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는...

목적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는 KB금융그룹이 2011년 이후 매년 발간해온 ‘한국 부자’에 관한 보고서로 올해 14년차를 맞이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 기반도 없이 투자를 시작해 세계 2위의 갑부가 되었다. 워렌 버핏의 일거수 일투족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2022년 그와 함께하는 점심 경매가 1,900만 달러(한화 약 246억 원)에 낙찰된 일화 역시 유명하다. 이처럼 부자를 꿈꾸는 이들은 부자의 돈에 대한 철학과 성공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배움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잡고자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KB금융그룹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한국 부자의 ‘부 축적’ 방식에 주목하고 이들의 사고방식과 전략적 접근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돈의 흐름과 부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한국 부자의 돈에 대한 인식, 투자 행태, 자산관리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온 국민이 부자되는 길’에 대한 해법과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내용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는 한국 부자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 ‘전반부(1~4장)’와 올해의 이슈가 포함된 ‘후반부(5~7장)’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설문조사 시기(2024년 7월~9월) 상 최근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다양한 국내외 변수에 의한 금융시장 영향 등이 설문 응답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읽어주시길 당부드린다.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부자의 현황은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올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먼저 한국 부자 수와 금융·부동산자산 규모 추이를 분석한 ‘한국 부자 현황(1장)’을 시작으로, 부자의 과거 1년 간의 투자 성향·성과를 조사한 ‘한국 부자의 투자 행태(2장)’와 미래 투자 방향·계획을 다룬 ‘한국 부자의 미래 투자 전략(3장)’에 이어, ‘한국 부자의 부의 생애(4장)’를 통해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부의 원천·성장동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후반부는 세 가지 이슈로 구성됐으며 자산관리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한국 부자의 이용 현황과 인식에 주목했다. 첫번째는 상속·증여, 해외자산투자, 해외투자이민 현황을 통해 살펴본 ‘한국 부자의 부의 이전(5장)’, 두번째는 글로벌 부자가 자산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대체투자에 대해 한국 부자의 인식을 살펴본 ‘한국 부자의 대체투자자산 전망(6장)’, 마지막으로 최근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생성형AI 기반 비대면 자산관리 솔루션을 조명한 ‘한국 부자의 디지털 자산관리(7장)’로 구성했다.

기대효과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 큰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부자들에게 한국 부자가 부를 축적해 온 길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부를 이룬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니즈와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온 국민의 ‘부 축적’에 기여하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방법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는 한국 부자의 현황과 투자 행태, 자산관리에 대한 큰 흐름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정량조사)인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를 실시했고, 정량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국 부자가 가진 심층적인 자산관리 행태 및 계획, 니즈 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정성조사 방법인 ‘개인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IDI)’를 실시했다.

‘개별면접조사(정량조사)’는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금융자산 10억원이상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 10억원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통해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금융의사결정자로 지역과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추출했다.

‘개인심층인터뷰(정성조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0억원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30대 이상의 한국 부자 6명과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 6명 중 3명은 여성으로, 3명은 남성으로 구성했다.

● 정량조사 : 개별면접조사

👤 조사 대상	▶	• 금융자산 10억원이상 & 거주주택 포함 부동산자산 10억원이상 보유 • 만 20세이상 금융의사결정자
📄 조사 방법	▶	•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 조사 기간	▶	• 2024년 7월 31일 ~ 9월 6일(38일)
👥 표본 구성	▶	• 총 400명 -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400명
표본 추출방법	▶	•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자산규모별 Soft Quota)

● 정성조사 : 개인심층인터뷰(IDI)

👤 조사 대상	▶	• 금융자산 10억원이상 & 거주주택 포함 부동산자산 10억원이상 보유한 금융의사결정자 • 금융회사 자산관리/PB서비스 이용자
📄 조사 방법	▶	• 개인심층인터뷰 (In-Depth Interview, IDI)
📅 조사 기간	▶	• 2024년 5월 20일 ~ 5월 22일(3일)
👥 표본 구성	▶	• 총 6명 (여성 3명, 남성 3명)

Contents

I. 한국 부자 현황	1
01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	2
02 부자의 부동산자산 규모	6
요약 Key Findings	8
II. 한국 부자의 투자 행태	9
01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10
02 부자의 투자 성향	12
03 부자의 투자 성과	16
04 부자의 주식 투자 현황	20
요약 Key Findings	22
III. 한국 부자의 미래 투자 전략	23
01 부자의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	24
02 부자의 미래 투자 방향	26
03 부자의 미래 투자 계획	30
요약 Key Findings	32
IV. 한국 부자의 부의 생애	33
01 부자의 기준	34
02 부의 원천	36
03 부의 성장 동력	38
요약 Key Findings	42
이슈1 한국 부자의 부의 이전	43
01 세대간 부의 이전, 상속·증여	44
02 지역간 부의 이동, 해외자산 투자	48
03 지역간 부의 이전, 해외 투자이민	52
요약 Key Findings	54
이슈2 한국 부자의 대체투자자산 전망	55
01 부자의 대체투자 현황	56
02 금 투자 전망	58
03 예술품 투자 전망	60
04 가상자산 투자 전망	62
05 비상장주식 투자 전망	64
요약 Key Findings	66
이슈3 한국 부자의 디지털 자산관리	67
01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행태	68
02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행태	70
03 생성형AI 다이렉트인덱싱 이용 행태	72
요약 Key Findings	74
[참고]	75
01 용어 정의	76
02 참고 자료	78



본 보고서 세부 내용은 KB금융그룹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한국 부자 현황

01 |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

02 | 부자의 부동산자산 규모

요약 Key Findings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캡제미니의 《2024 글로벌 웰스 리포트(World Wealth Report 2024)》에 따르면 글로벌 주식시장 활황세에 힘입어 올해 글로벌 부자(거주 주택 등을 제외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가능 금융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 수는 지난해 대비 5.1% 증가했고 이들의 금융자산 규모는 4.7% 늘어났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전 세계 부자와 이들이 보유한 '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 부자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해 조사 결과 대비 한국 부자 수와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의 추이 변화, 연도별·지역별 부집중도, 부동산자산 규모와 추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통계, KB금융 고객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추정했다. 부동산자산은 부동산 등기 정보를 취합하여 파악한 실제 자산 분포와 금융자산 분포를 결합하여 추정했고,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등을 이용하여 법인을 통해 보유한 부동산자산도 고려했다.

01

부자 수와 금융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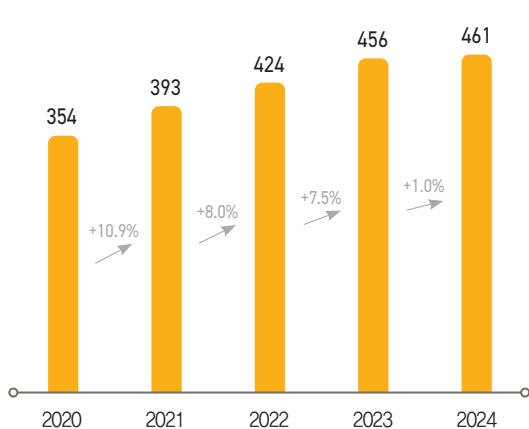
‘한국 부자’는 2024년 46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부자들의 금융자산은 2,8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부자(富者)’는 부유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백만장자’ 또는 ‘억만장자’, ‘고자산가’, ‘부유층’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라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부자’를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개인’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 본 보고서에서도 한국 부자를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으로 정의했다. 한국 부자는 2024년 46만 1천 명으로 2023년(45만 6천 명) 대비 1.0%(5천 명) 증가한데 그쳐, 부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한국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0.90%로 2023년(0.89%)에 비해 0.01%p 상승하는 수준에 그쳤다.

2024년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826조 원으로 2023년 2,747조 원 대비 2.9% 증가했다. 가파른 금리 상승 영향으로 2021년 말 2,977포인트에서 2022년 말 2,236포인트까지 하락하였던 코스피지수가 2023년 말 2,655포인트로 18.7% 반등하여 한국 부자의 전체적인 금융자산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한국 전체 가계의 총금융자산 규모인 4,822조 원의 58.6%에 해당한다.

그림 1 한국 부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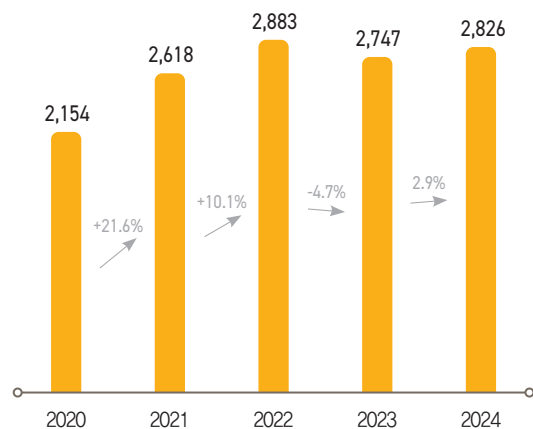
(단위: 천명)



주) 전년 말 기준으로 산정

그림 2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추이

(단위: 조원)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산정

주2) 총금융자산에는 현금 및 예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파생금융상품, 거주자·비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부자가 설립한 법인의 주식 가치)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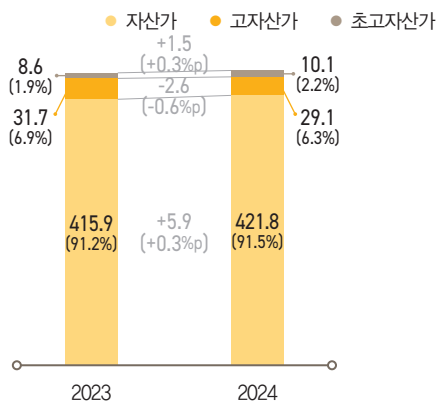
금융자산 300억원이상 ‘초고자산가 1만 명 시대’ 진입, 이들의 금융자산은 1,267조 원으로 한국 부자 금융자산 중 44.8%였다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국 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 부의 추이 변화를 더 깊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금융자산 10억원~100억원미만’인 부자를 ‘자산가’, ‘100억원~300억원미만’인 부자를 ‘고자산가’, ‘300억원 이상’인 부자를 ‘초고자산가’로 정의했다.

2024년 한국 부자 중 ‘자산가’는 42만 1천8백 명으로 2023년 대비 5천9백 명 증가한 반면, ‘고자산가’는 3만 1천7백 명에서 2만 9천1백 명으로 2천6백 명 감소했으며, ‘초고자산가’는 8천6백 명에서 1천5백 명 늘어 1만 1백 명을 기록했다. ‘고자산가’가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일부는 주식 가치 상승 등으로 ‘초고자산가’ 그룹으로, 일부는 부동산 저점 매수 등으로 유동성이 줄고 금융자산이 감소하여 ‘자산가’ 그룹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가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각각 1,068조 원, 491조 원, 1,267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각각 한국 전체 가계의 총금융자산인 4,822조원의 각각 22.2%, 10.2%, 2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1만 명을 돌파한 ‘초고자산가’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139조 원이 증가하여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중 44.8%를 차지했다. 한국 부자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2024년 61억 3천만 원으로 2023년 60억 2천만 원 대비 1억 1천만 원 증가했으며, ‘자산가’는 1인당 금융자산 평균 25억 3천만 원,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는 각각 168억 9천만 원, 1,252억 8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림 3 부자구분별 부자 수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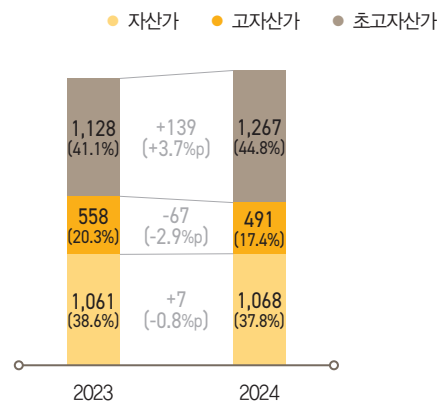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산정

주2) 자산가: 금융자산 10~100억원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300억원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이상 개인

그림 4 부자구분별 금융자산 규모

(단위: 조원)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산정

주2) 자산가: 금융자산 10~100억원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300억원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이상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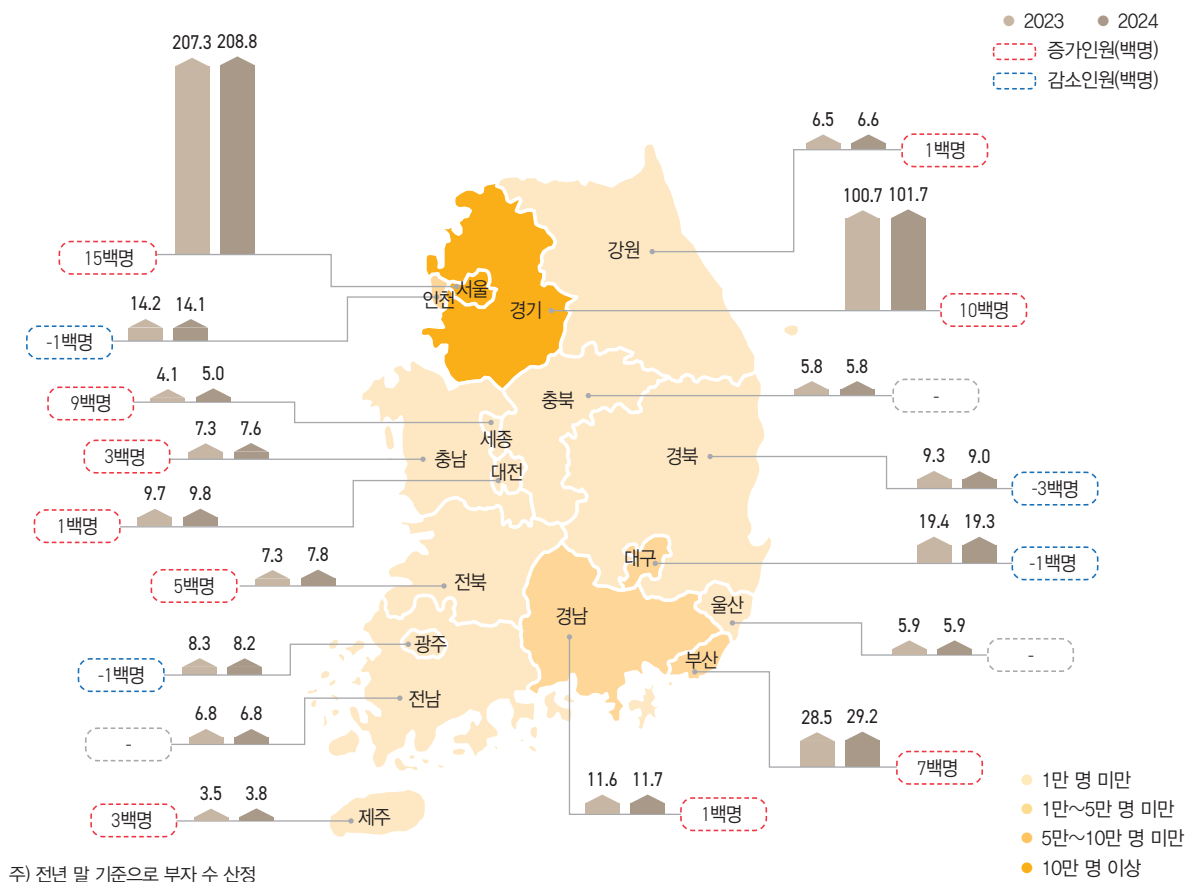
한국 부자는 서울 포함 수도권에 2천 4백명이 늘었으나, 부자 비중은 2023년 70.6%에서 70.4%로 소폭 줄었다

한국 부자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2024년 서울에는 한국 부자의 45.3%인 20만 9천 명이 거주했고, 다음으로 경기 10만 2천 명(22.1%), 부산 2만 9천 명(6.3%), 대구 1만 9천 명(4.2%), 인천 1만 4천 명(3.1%)의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한국 부자의 70.4%(전년 대비 0.2%p 감소)가 집중되어 있었고,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 15.7%(전년과 동일), 경기를 제외한 기타 지방에 13.9%(전년 대비 0.3%p 증가)의 부자가 거주했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늘어난 4천 8백 명의 부자 중 2천 4백 명이 서울(1천 5백 명)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다.

2024년 기준 서울내에서는 전통의 부촌인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 45.5%(전년 대비 0.5%p 증가)가 집중되어 있다. 그 외 ‘강북’ 지역에 34.5%(전년 대비 0.1%p 증가),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남지역’에 20.0%(전년 대비 0.6%p 감소)가 살고 있다. 지난 1년간 ‘강남 3구’에서 1천 8백 명의 부자가 늘었다.

그림 5 지역별 부자 수 현황과 증감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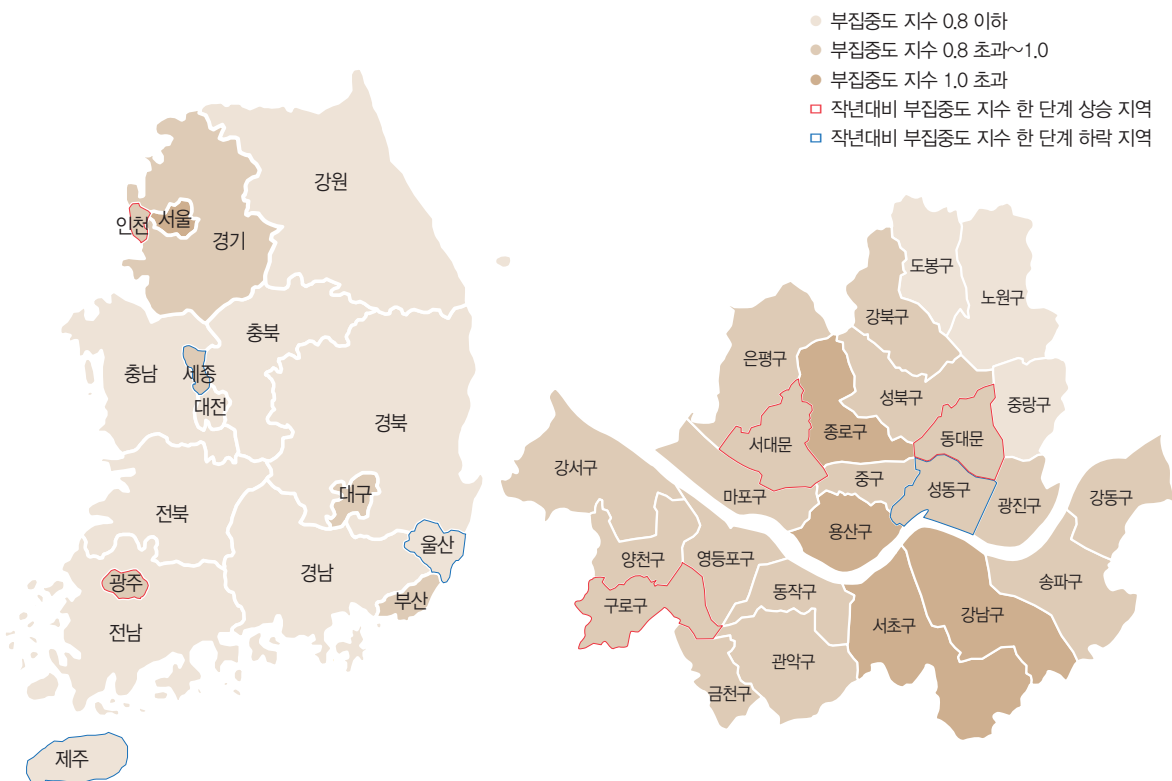


부집중도는 서울시만 높았으며, 서울내에서는 강남·서초·종로·용산의 부집중도가 두드러졌다

한국 부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자산가가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별 ‘부집중도 지수’를 산출했다. 부집중도 지수는 수치가 클수록 해당 지역의 부 집중도가 높고 자산가 대비 고자산가가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집중도 지수가 1.0을 초과한 지역은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시’(1.24)가 유일했다. 뒤를 이어 ‘세종시’(0.97), ‘부산시’(0.89), ‘광주시’(0.85), ‘대구시’(0.84), ‘인천시’(0.83), ‘경기도’(0.82)의 순이었다(0.8 초과 1.0 미만).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와 ‘용산구’의 부집중도가 2023년에 이어 높은 부집중도를 유지했다(1.0 초과). 반면 지난해 부집중도 지수가 1.0을 초과하며 새로운 부촌으로 등극한 ‘성동구’는 올해 0.97로 한 단계 하락했다.

그림 6 전국 광역시·도 및 서울 자치구별 부집중도 지수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산정

주2) 부집중도 지수: 지역구분별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비중을 부자 수 비중으로 나눈 값. 부집중도 지수가 1 이상이면 부자 수 대비 금융자산이 많아 부가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고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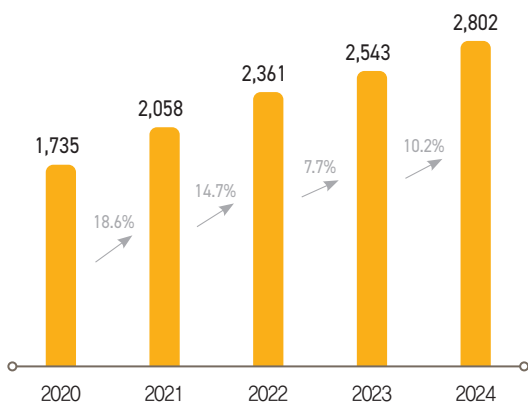
02 부자의 부동산자산 규모

2024년 한국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자산은 2,802조 원으로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에서 0.8%, 법인명의에서 26.4% 증가했다

올해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은 2,802조 원으로 2023년 2,543조 원에서 10.2% 증가해 2022년 대비 7.7% 상승한 2023년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규모가 확대된 배경에는 금리 상승으로 하락한 자산가치가 일부 반등했고, 부자 중 일부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인식하여 부동산 투자를 늘린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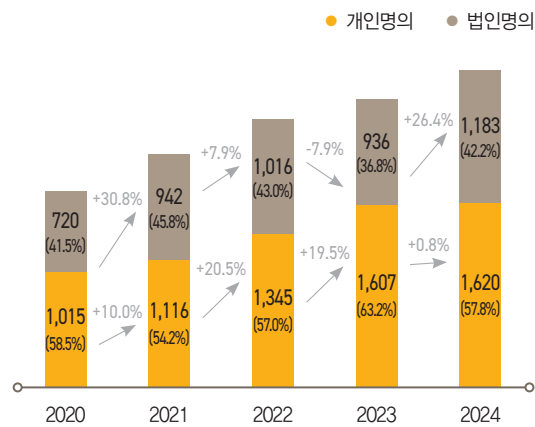
2024년 기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 2,802조 원 중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57.8%(1,620조 원), 개인이 소유한 법인이 보유한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은 42.2%(1,183조 원)였다.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은 26.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2024년 회복세를 나타낸 반면,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국면에서 자금 동원력이 큰 법인들이 공격적으로 저점 매수를 통해 부동산 자산을 늘린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림 7 부동산자산 추이 (단위: 조원)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산정
주2) 총부동산자산에는 개인명의의 부동산자산과 법인명의의 부동산자산 포함

그림 8 부동산자산 세부 구성 (단위: 조원)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산정
주2) 개인명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 부동산자산의 합
법인명의는 개인이 소유한 법인 부동산자산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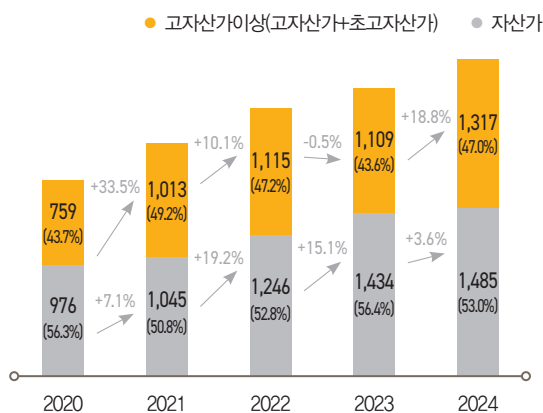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의 부동산자산이 전년 대비 18.8% 증가하며 2024년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확대를 견인했다

앞서 올해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증가는 법인명의 부동산자산 규모의 확대에 기인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자유형별 부동산자산 규모 및 비중 추이를 분석하여 어느 계층의 부자에게서 부동산자산이 확대됐는지 알아보았다.

2024년 한국 부자의 총부동산자산 확대의 중심에는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가 있었다. 올해 ‘자산가’의 부동산자산은 1,48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 상승하는 데 그치며 과거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를 합한 ‘고자산가이상’ 부자의 부동산자산은 1,3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하며 자산가보다 약 6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고자산가이상’ 부자가 자산가에 비해 고가주택, 토지, 임야, 상가, 빌딩 등 단일 자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자산가’는 거주용 주택, 거주용 외 주택, 상가 등 단일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이 많고, 지난해까지 주택 가격 등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자산 증가율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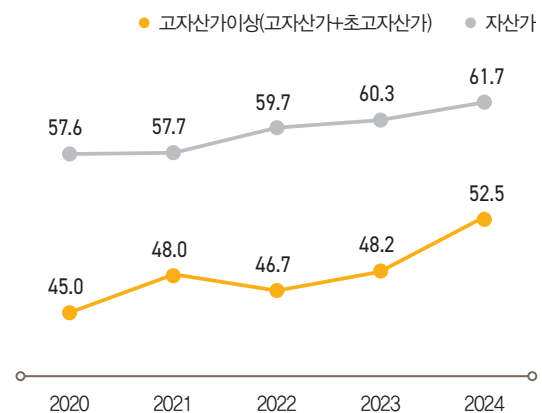
부동산자산의 비중 추이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됐다. 2024년 기준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가’가 61.7%로 전년(60.3%) 대비 1.4%p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고자산가이상’ 부자는 52.5%로 전년(48.2%) 대비 4.3%p 상승했다. ‘고자산가이상’ 부자는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이 더 빠르게 늘면서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부자유형별 부동산자산규모 추이 (단위: 조원)



주) 전년 말 기준으로 산정

그림 10 부자유형별 부동산자산 비중 추이 (단위: %)



주1) 전년 말 기준으로 산정

주2) 부동산자산 비중은 기타자산을 제외한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 금융자산 중 거주자·비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부자가 설립한 법인의 주식 가치)은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에 중복 산정되어 금융자산에서 제외

2024년 한국의 부자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자산의 확대'가 부의 증가를 견인했다

2024년 한국 부자 수는 46만 1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 조사 이래 최저 증가폭이었다

- ✓ 올해 한국 부자는 46만 1천 명으로 2023년 45만 6천 명 대비 5천 명(+1.0%)이 증가
- ✓ 부자유형별로는 '고자산가'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며 '자산가'와 '초고자산가'로 재분류됨
: 부자의 91.5%(42만 1천8백 명)인 '자산가'(금융자산 10억원~100억원미만)는 전년 대비 0.3%p 증가
6.3%(2만 9천1백 명)인 '고자산가'(금융자산 100억원~300억원미만)는 전년 대비 0.6%p 감소
2.2%(올해 처음 1만 명 초과)인 '초고자산가'(금융자산 300억원이상)는 전년 대비 0.3%p 증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826조 원으로 전체 가계 총금융자산의 58.6%였다

- ✓ 2024년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은 2,8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주가 상승에 따른 완만한 증가)
- ✓ 금융자산은 '자산가' 1,068조 원, '고자산가' 491조 원, '초고자산가' 1,267조원(부자 전체의 44.8%), 전년 대비 '초고자산가'의 금융자산이 139조 원 늘면서 한국 부자의 총금융자산 증가에 기여 ('고자산가'의 금융자산은 67조 원 감소하고 '자산가'는 8조 원 증가)
- ✓ 한국 부자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1억 3천만 원으로 전년(60억 2천만 원) 대비 1억 1천만 원 증가, '자산가'는 25억 3천만 원, '고자산가'는 168억 9천만 원, '초고자산가'는 1,252억 8천만 원을 보유

한국 부자의 70.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서울 강남·서초·종로·용산의 부집중도가 두드러졌다

-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한국 부자의 70.4%인 32만 5천 명이 거주, 전년(70.6%) 대비 0.2%p 감소
- ✓ 2024년 금융자산 부집중도 지수가 1.0을 초과한 지역은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1.24),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용산구의 부집중도가 높게 나타나 2023년에 이어 다른 자치구 대비 '고자산가이상' 부자가 많이 분포

2024년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은 2,802조 원, 전년 대비 10.2%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 ✓ 한국 부자의 총부동산자산 증가는 '개인명의 부동산자산'보다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의 증가에 기인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은 26.4% 증가)
- ✓ 한국 부자 중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의 부동산자산 증가가 총부동산자산 증가를 견인 ('자산가'의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은 61.7%로 전년 대비 1.4%p 증가한 반면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52.5%로 전년대비 4.3%p 증가)



2024년 한국 부자는 46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90%에 해당하며, 2023년(45만 6천 명) 대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증가율인 1.0% 증가하는 데 그쳐 총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영향 등 향후 한국 부자 수의 정체 혹은 감소와 같은 양적 변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임을 시사했다. 이들이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826조 원으로 전체 가계 총금융자산의 58.6%에 해당하며, 주가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회복 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한국 부자의 총부동산자산은 2,8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2%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이 많은 '고자산가'와 '초고자산가'가 부동산자산 비중을 확대 하며 한국 부자의 부의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 부자의 투자 행태

01 |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02 | 부자의 투자 성향

03 | 부자의 투자 성과

04 | 부자의 주식 투자 현황

요약 Key Findings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한국 부자는 46만 1천 명으로 2023년 대비 1.0% 증가에 그쳤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2024년 2,8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는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자산 가치가 하락한 지난해 대비 주식 시장의 긍정적 모멘텀에 따라 금융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년은 지정학적 갈등과 금리인하 시기·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기도 했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금융 시장이 완만한 회복탄력성을 보인 시기에 한국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운용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해 결과와 비교해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및 투자 성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과거 투자 성과와 비교해 투자 및 운용의 변화 정도를 파악해 보았다. 추가적으로, 지난 1년 한국 부자의 ‘부’ 성장을 견인한 ‘주식’ 투자에 대한 현황도 짚어보았다.

제2장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 10억원이상과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형 부자에 해당한다.

01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이 55.4%, 금융자산이 38.9%를 차지하고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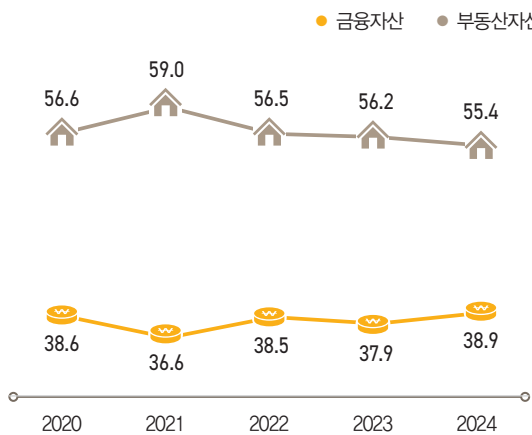
2024년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이 각각 55.4%와 38.9%로 구성되었고, 그 외 회원권과 예술품 등 ‘기타자산’이 일부를 차지했다.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부동산자산 78.6%, 금융자산 16.8%로 구성된 전체 가계 대비 2.3배 높았다.

부자의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8%p 감소했고(2023년 56.2%→2024년 55.4%),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보인다. 1장에서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부동산자산 증가는 개인명의 부동산자산의 증가(전년 대비 +0.8%)보다 법인명의 부동산자산의 증가(전년 대비 +26.4%)에 기인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었다.

총자산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높았고, 총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낮았다.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46.8%로 ‘금융자산 30억원 미만’의 부자(34.2%) 보다 12.6%p나 많았고,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41.4%로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36.1%)나 ‘100억원이상’의 부자(33.9%)보다 각각 5.3%p, 7.5%p 많았다.

그림 11 자산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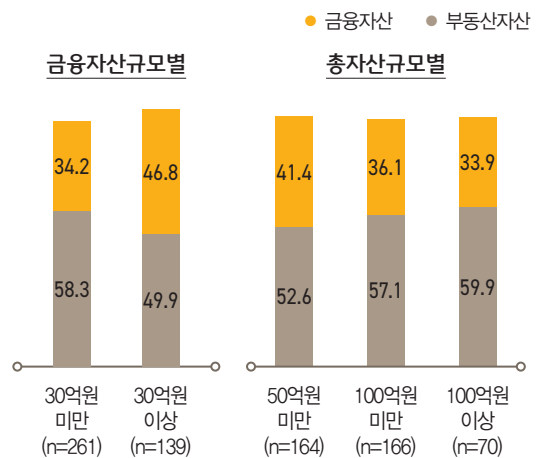
(단위: %)



주1) 중간값 기준. 기타는 그래프에서 제외
주2) 각년도 n=400

그림 12 자산규모별 자산구성비(2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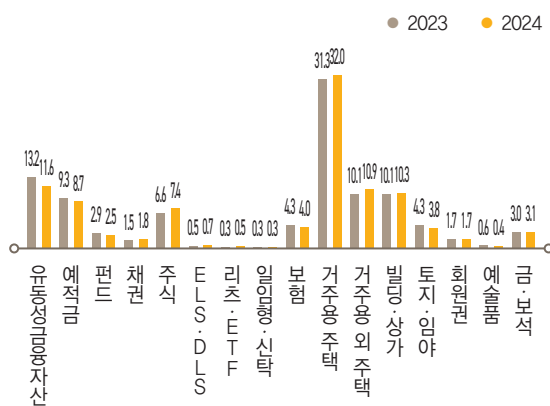
주) 중간값 기준. 기타는 그래프에서 제외

총자산 중 ‘거주용 주택’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지난해 보다 ‘주식’과 ‘거주용 외 주택’의 비중이 증가했다

한국 부자는 어떤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세부자산 유형별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았다. 2024년 부자의 총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거주용 주택’으로 32.0%였고, 2023년(31.3%) 보다 0.7%p 증가했다. 이외에 현금이나 수시입출식예금 등 ‘유동성금융자산’(11.6%), ‘거주용 외 주택’(10.9%), ‘빌딩·상가’(10.3%), ‘예적금’(8.7%), ‘주식’(7.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주식’과 ‘거주용 외 주택’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주식’(7.4%)의 비중이 전년(6.6%) 대비 0.8%p 상승했고, 부동산 저점 매수 등에 힘입어 ‘거주용 외 주택’의 비중 역시 전년(10.1%) 대비 0.8%p 상승했다. 반면 ‘유동성금융자산’과 ‘예적금’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6%p, 0.6%p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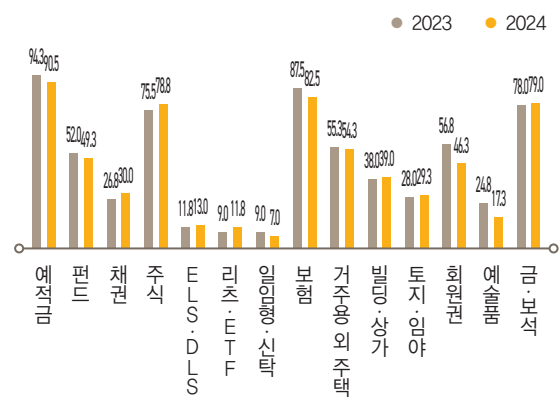
모든 한국 부자가 보유한 현금과 수시입출금의 ‘유동성금융자산’과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그 외 자산의 보유율을 살펴보았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예적금’(90.5%)과 ‘보험’(82.5%), ‘주식’(78.8%)을 많이 보유하고, 부동산 자산 중에서는 ‘거주용 외 주택’(54.3%)을 가장 많이 보유했다. 이 외에 총자산 포트폴리오에서는 비중이 작았으나 ‘금·보석’(79.0%)과 ‘회원권’(46.3%)도 보유율이 높았다. 가장 보유율이 높은 자산인 ‘예적금’(90.5%)은 전년 대비 3.8%p 하락했는데 금융사의 고금리 예금 판매가 주춤하고 부자의 부동산 저점 매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주식’ 보유율은 전년(75.5%) 대비 3.3%p 상승했고, ‘리츠·ETF’의 보유율도 전년(9.0%) 대비 2.8%p 상승한 것을 볼 때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 세부자산유형별 총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주1) 유동성금융자산 = 현금+수시입출식예금
주2) 기타자산은 0.3%미만으로 상기 제외
주3) 2023 n=400, 2024 n=400

그림 14 세부 자산유형별 보유율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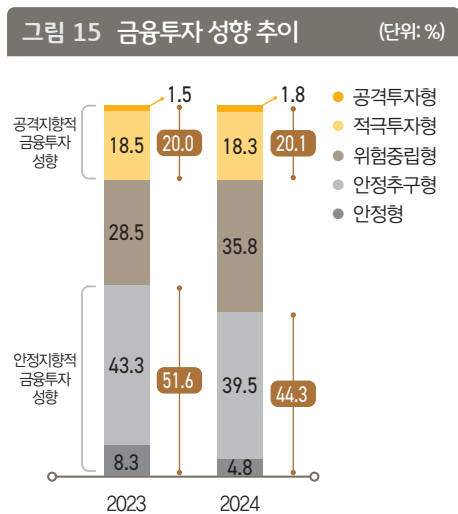
주1) 유동성금융자산, 거주용 주택은 보유율 100%로 상기 제외.
보유율5% 미만인 가상자산 등 제외
주2) 2023 n=400, 2024 n=400

02 부자의 투자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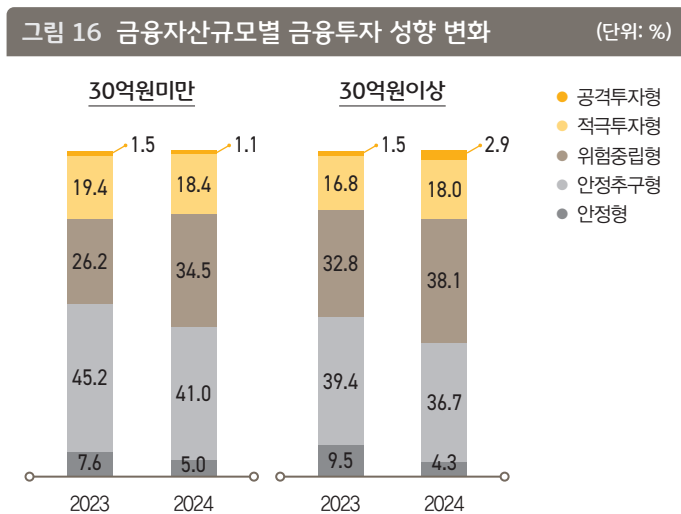
금융투자 시 전반적으로 안정지향적 성향이 약해진 가운데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공격지향적 성향이 소폭 강해졌다

2024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저점을 지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출발했으나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문제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부자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해 왔는지 금융투자 성향과 부동산투자 성향을 살펴보았다.

올해 한국 부자의 금융투자 성향은 지난해에 비해 ‘안정지향적 성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손실이 없거나 혹은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수익 보장을 기대하는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의 합인 ‘안정지향적 성향’이 44.3%로 2023년(51.6%)에 비해 7.3%p 감소했다. 손실 위험을 수용하며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의 합인 ‘공격지향적 성향’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하며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 그룹에서 20.9%로 전년(18.3%) 대비 2.6%p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편 위험중립형 투자 성향이 35.8%로 전년(28.5%)보다 7.3%p 상승했고, 특히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에서 강해진 성향을 확인했다(전년 대비 8.3%p 상승).



주) 2023 n=400, 2024 n=400



주) 금융자산 30억원미만 2023 n=263, 2024 n=261
금융자산 30억원이상 2023 n=137, 2024 n=139

부동산 투자 시 부자의 44%는 안정지향적 성향을 보였으며, 총자산이 적을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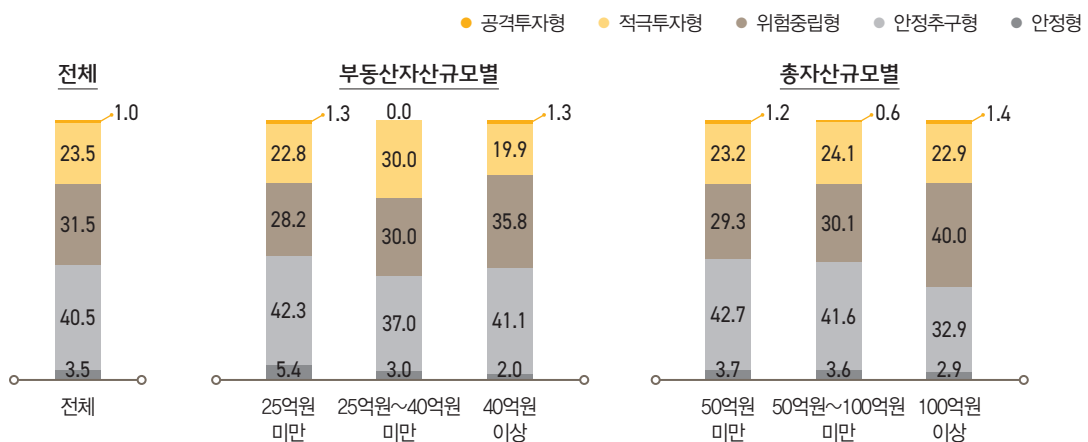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금융투자 성향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투자 성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대체로 한국 부자의 부동산투자 성향은 앞선 금융투자 성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정추구형’과 ‘안정형’의 합인 ‘안정지향적 성향’이 44.0%로 ‘안정지향적 금융투자 성향’(44.3%)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의 합인 ‘공격지향적 성향’이 24.5%를 차지해 20.1%를 기록한 ‘공격지향적 금융투자 성향’ 대비 소폭 높았다.

부동산투자 성향은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안정지향적 성향이 U자형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자산 25억원미만’의 부자는 ‘안정지향적 성향’ 비중이 47.7%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부동산자산 25억원~40억원미만’의 부자는 ‘안정지향적 성향’이 40.0%로 약해졌다가, ‘40억원이상’의 부자에서 ‘안정지향적 성향’이 43.1%로 다시 강해졌다. 부자는 총자산이 많을수록 안정지향적 부동산투자 성향이 약해졌다.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안정지향적 성향’은 35.8%로 집계돼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46.4%)와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45.2%) 보다 각각 10.6%p, 9.4%p 낮았다.

그림 17 부동산투자 성향(2024년)

(단위: %)



주) 전체 n=400, 부동산자산 25억원미만 n=149, 25억원~40억원미만 n=100, 40억원이상 n=151, 총자산 50억원미만 n=164, 50억원~100억원미만 n=166, 100억원이상 n=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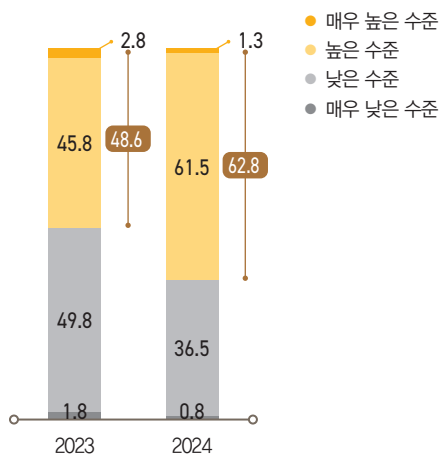
부자의 62.8%는 ‘스스로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고, 자산이 많을수록 그 비중은 높았다

앞서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 비중이 38.9%로 총자산의 5분의 2를 차지했다.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투자 지식 수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부자들은 자신의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 전문적으로 분석해 스스로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1.3%)과 투자와 관련된 경제 지표와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수준’(61.5%)이라고 응답하며 금융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합계 62.8%). 이는 2023년(48.6%)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로(+14.2%p),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전년 대비 완만한 경기 회복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지속되는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자들의 지식 습득 노력과 최근 금융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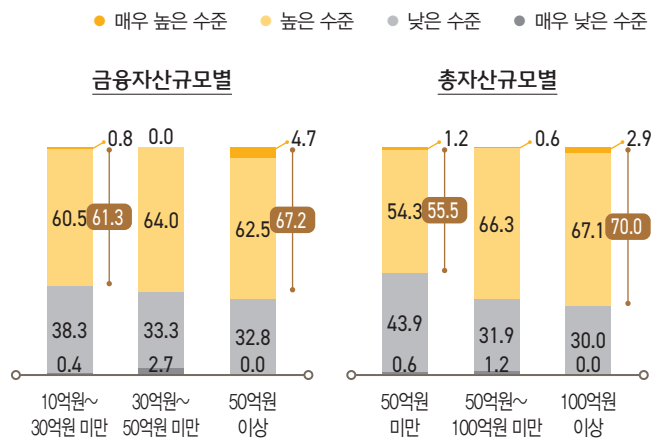
금융자산규모별로 보면 ‘금융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67.2%가 자신의 금융투자 지식 수준을 ‘높은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해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61.3%)와 ‘금융자산 30억원~50억원미만’의 부자(64.0%) 대비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총자산규모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나,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70.0%가 금융투자 지식 수준이 ‘높은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했고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는 이보다 14.5%p 적은 55.5%를 기록해, 자산규모별 금융투자에 대한 자신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8 금융투자 지식 수준 추이 (단위: %)



주) 2023 n=400, 2024 n=400

그림 19 자산규모별 금융투자 지식 수준 (단위: %)



주)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61, 30억원~50억원미만 n=75, 50억원이상 n=64
총자산 50억원미만 n=164, 50억원~100억원미만 n=166, 100억원이상 n=70

부자의 60.8%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 지식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고, 자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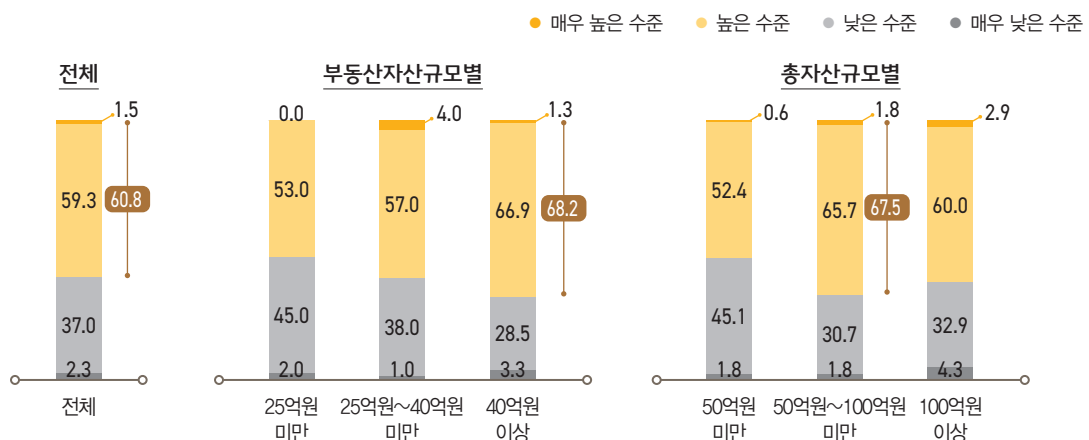
한국 부자는 부동산투자와 관련해 스스로의 투자 지식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까? 올해 조사에서 새롭게 들여다 본 한국 부자의 부동산투자 지식 수준은 대체로 금융투자 지식 수준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투자에 대해 ‘높은 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유했다고 응답한 부자는 60.8%로 나타났다(‘매우 높은 수준’ 1.5%, ‘높은 수준’ 59.3%). 이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총선, 금리 인하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부자의 의지가 담겼다고 해석된다.

부동산투자 지식 수준에 대한 자신감은 보유한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높았다. ‘부동산자산 40억원이상’ 부자의 68.2%가 ‘높은 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부동산자산 25억원미만’의 부자는 53.0%에 그쳐, 두 그룹 간 15.2%p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규모별로는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67.5%)와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62.9%)가 전체 평균(60.8%)을 웃도는 높은 자신감을 보인 반면,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53.0%)는 부동산투자 지식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20 부동산투자 지식수준

(단위: %)



주) 전체 n=400, 부동산자산 25억원미만 n=149, 25억원~40억원미만 n=100, 40억원이상 n=151, 총자산 50억원미만 n=164, 50억원~100억 미만 n=166, 100억원이상 n=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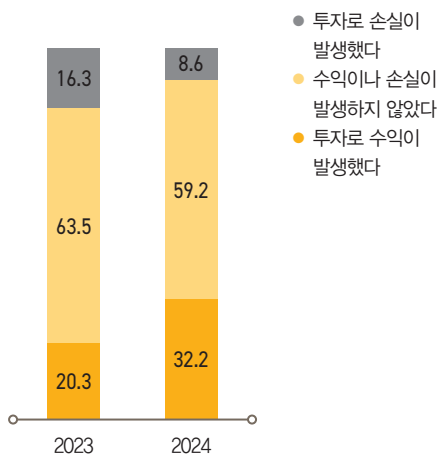
03 부자의 투자 성과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 경험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가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더 많았다

한국 부자는 지난 1년 간 금융투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질문해 보았다. 올해 금융투자에서 '수익'(32.2%)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손실'(8.6%)을 경험했다는 응답률보다 네 배 가량 높았으며, 수익경험률은 2023년(20.3%) 대비 11.9%p가 증가했다. 이는 2023년 말 가파른 코스피지수 상승세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활발했던 연초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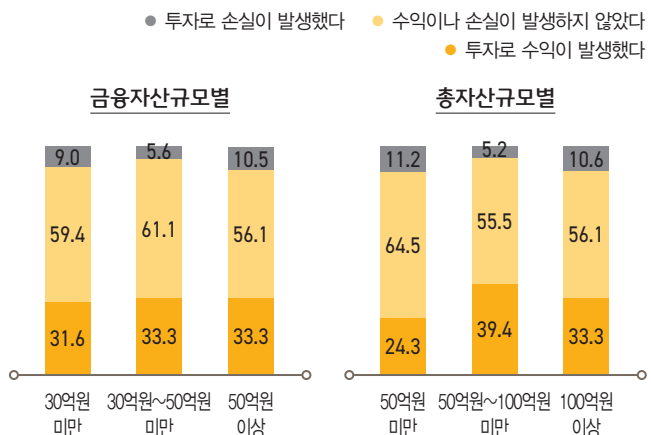
금융자산규모별 수익과 손실 경험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총자산규모별로는 50억원이상의 부자와 50억원미만의 부자 사이에 수익 경험 차이가 두드러졌다.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수익경험률(39.4%)이 가장 높았고, 손실경험률(5.2%)이 가장 낮은 '투자 고수' 부자가 많았다.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 역시 높은 수익경험률(33.3%)을 보인 반면,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수익경험률은 24.3%에 그쳤다.

그림 21 지난 1년간 금융상품 투자 성과 (단위: %)



주) 2023 n=400, 2024 n=400

그림 22 자산규모별 금융상품 투자 성과 (단위: %)



주)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61, 30억원~50억원미만 n=75, 50억원이상 n=64
총자산 50억원미만 n=164, 50억원~100억원미만 n=166, 100억원이상 n=70

지난 1년간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주식' 투자 실적 호조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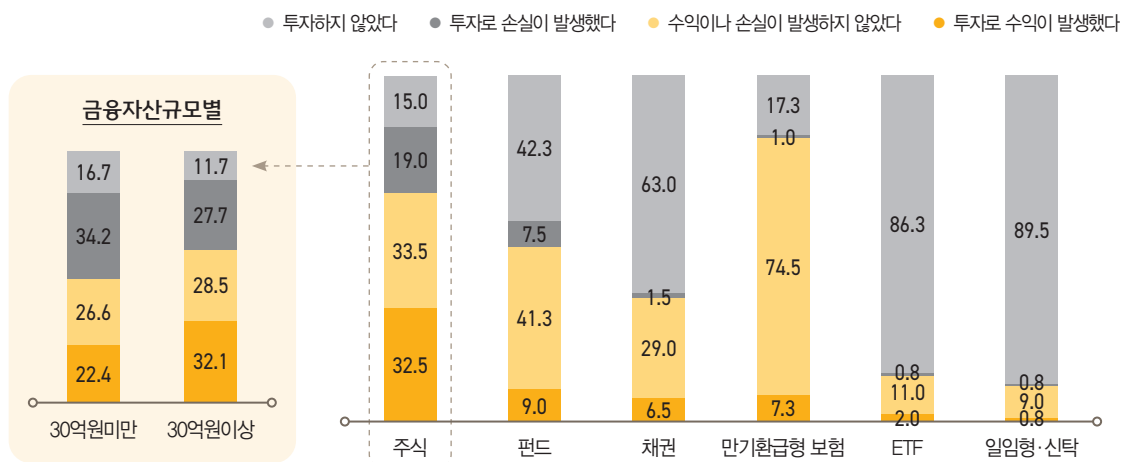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지난 1년간 투자한 금융상품유형별 투자 성과를 짚어보았다. 가장 많은 부자가 수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금융상품은 '주식'(32.5%)이었고, '펀드'(9.0%), '만기환급형 보험'(7.3%), '채권'(6.5%), 'ETF'(2.0%), '일임형·신탁상품'(0.8%)이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 1년간 금융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했다'는 응답률(32.2%)이 '손실을 경험했다'는 응답률(8.6%)의 네 배에 달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금융상품에서 손실보다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많았다. '주식' 투자에서는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손실을 경험한 사례보다 13.5%p 높아 두드러진 실적 개선을 보였고, '펀드', '채권', '만기환급형 보험' 투자에서는 수익경험률이 손실경험률 대비 각각 1.5%p, 5.0%p, 6.3%p 높아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주식' 투자의 경우 지난해 이어진 주가 상승 랠리로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주식 보유율을 78.8%까지 끌어올림(전년 대비 3.3%p 상승)과 동시에 금융투자 전반의 수익 실현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자산규모별 '주식' 투자 성과를 살펴보면, '금융자산 30억원이상'의 부자는 수익경험률(32.1%)이 손실경험률(27.7%) 대비 높은 반면,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는 수익(22.4%)에 비해 손실(34.2%)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23 지난 1년간 금융상품유형별 투자 성과(202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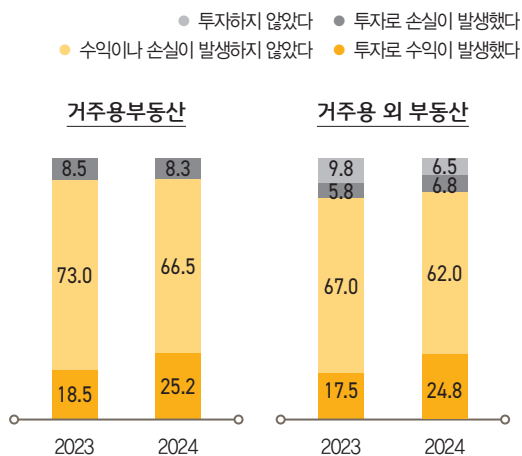
주) 각 금융상품유형별 n=400,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63, 30억원이상 n=137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부동산에서 모두 지난해 대비 투자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늘었다

한국 부자의 3분의 2는 지난 1년간 ‘거주용 부동산’(66.5%)과 ‘거주용 외 부동산’(62.0%) 모두 별다른 ‘수익이 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이는 2023년에 비해 각각 6.5%p, 5.0%p 하락한 수치이다. ‘거주용 부동산’에 투자한 부자의 25.2%가 ‘수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손실’을 경험한 부자(8.3%) 대비 세 배 가까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수익경험률은 전년 대비 6.7%p 상승했다. ‘거주용 외 부동산’에서는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24.8%로 2023년(17.5%)에 비해 7.3%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손실’을 경험한 부자(6.8%) 대비 네 배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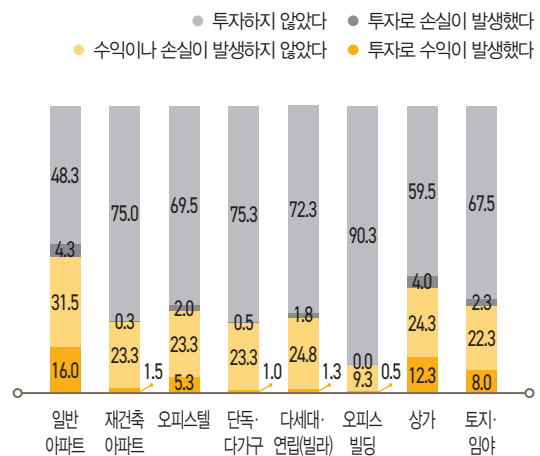
‘거주용 외 부동산’ 투자 성과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1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가’(12.3%), ‘토지·임야’(8.0%), ‘오피스텔’(5.3%)의 순이었다. 수익경험률이 5% 미만으로 낮은 ‘재건축아파트’, ‘단독·다가구’, ‘오피스 빌딩’ 투자에서도 역시 미미하나마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많았다. 한편 ‘거주용 외 부동산’은 세부 투자처마다 ‘투자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아파트’(48.5%)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 투자처에서 50% 이상의 응답률을 보여,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투자처로서의 매력력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4 부동산자산 투자 성과 추이 (단위: %)



주) 2023 n=400, 2024 n=400

그림 25 거주용 외 부동산 세부 투자성과 (단위: %)



주) 2024년 기준, 각 부동산자산유형별 n=400

기타자산에서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늘었고, 그 중 금·보석의 투자 수익이 월등히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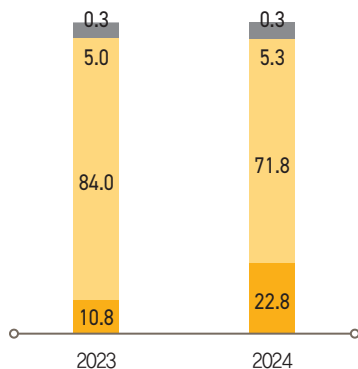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보유한 '기타자산'은 전체 자산의 약 5.4%에 불과하나, 보유율은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투자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부자 10명 중 7명(71.8%)은 지난 1년간 '기타자산' 투자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2023년(84.0%)에 비해 12.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자산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부자는 22.8%로 2023년(10.8%) 대비 12.0%p가 더 높게 나타나, 앞서 살펴본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응답률 하락분을 대부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자산 투자의 수익경험률은 손실경험률(5.3%) 대비 네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보유율은 낮지만 투자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부자의 79.0%가 보유하고 있는 '금·보석'(30.8%)은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손실경험률은 1.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금 시세와 유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회원권'(6.0%), '가상자산'(3.3%), '예술품'(2.0%)의 순으로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손실을 경험한 사례 대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손실경험률 '회원권' 3.0%, '가상자산' 0.8%, '예술품' 1.5%).

그림 26 기타자산 투자 성과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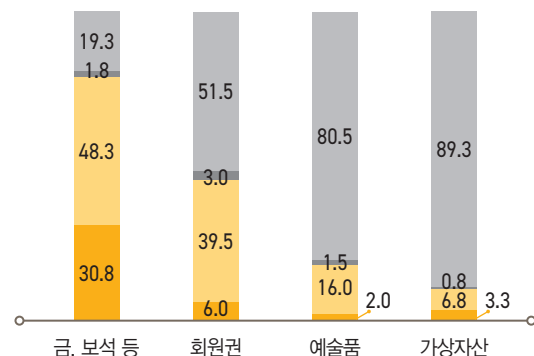
● 투자하지 않았다 ●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
●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 투자로 수익이 발생했다



주) 2023 n= 400, 2024 n=400

그림 27 기타자산 세부유형별 투자성과 (단위: %)

● 투자하지 않았다 ● 투자로 손실이 발생했다
●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 투자로 수익이 발생했다



주) 2024년 기준, 각 항목별 n=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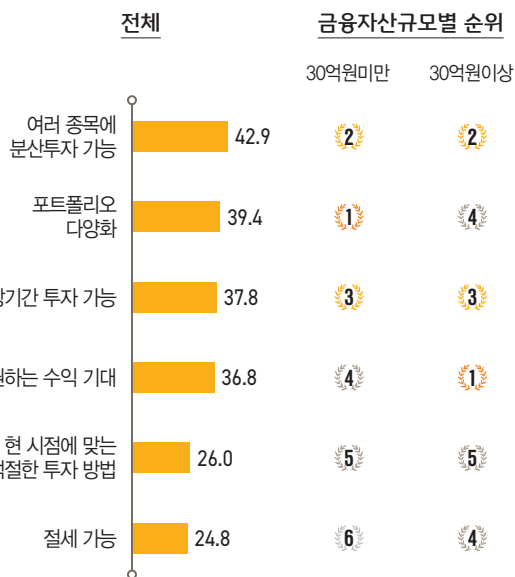
04 부자의 주식 투자 현황

부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종목·포트폴리오 분산투자’,
국내주식 평균 6.1개, 해외주식 평균 4.2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의 수익경험률 상승을 견인한 ‘주식’과 관련해 한국 부자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 실제 주식을 거래하는 부자를 대상으로 투자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어서’(42.9%)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고’(39.4%), ‘장기간 투자가 가능해서’(37.8%),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36.8%)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금융자산규모별로는 ‘30억원미만’ 부자가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1순위로 꼽은 반면, ‘30억원이상’ 부자는 ‘원하는 수익 기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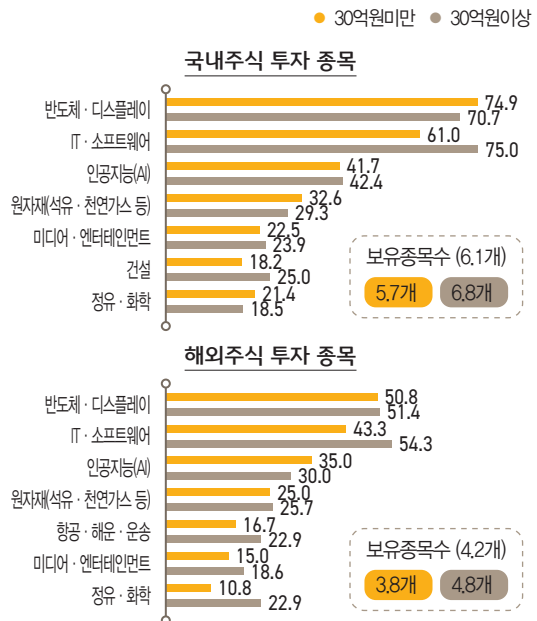
주식을 거래하는 부자가 보유한 종목 개수는 국내주식의 경우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는 평균 5.7개, ‘금융자산 30억원이상’의 부자는 평균 6.8개였다. 해외주식의 경우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는 평균 3.8개, ‘30억원이상’의 부자는 평균 4.8개를 보유해 ‘금융자산 30억원이상’의 부자(평균 11.6개)가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평균 9.5개)보다 조금 더 많은 종목에 분산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림 28 주식 투자 이유 Top6 (복수응답, 단위: %)



주) 주식 거래자 전체 n=315,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06, 30억원이상 n=109

그림 29 금융자산규모별 투자 종목 Top7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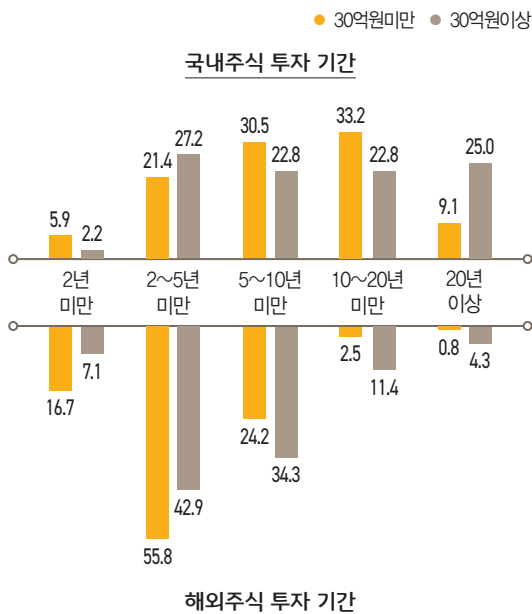


주) 국내주식 거래자 전체 n=279,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187, 30억원이상 n=92
해외주식 거래자 전체 n=190,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120, 30억원이상 n=70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 25%가 국내주식에 20년 이상 투자했고,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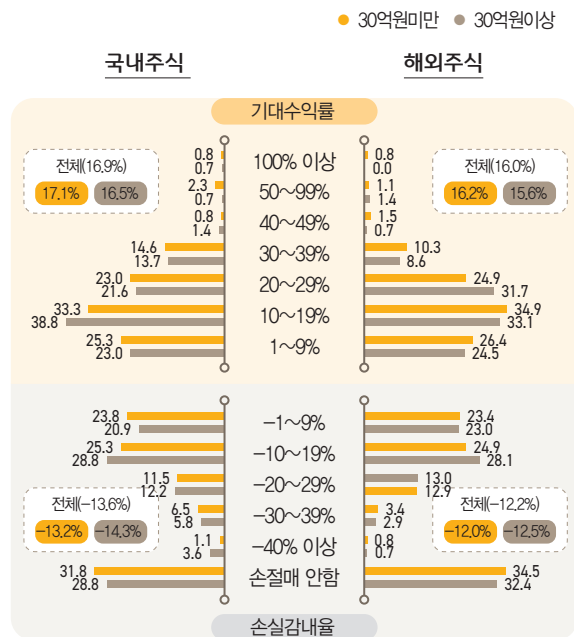
한국 부자는 국내외 주식에 얼마 동안 투자해 왔으며, 기대하는 수익률과 감내 가능한 손실률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한국 부자는 해외주식보다 국내주식 투자 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규모별로 보면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의 25.0%가 국내주식에 ‘20년 이상’ 투자해 왔다고 응답해, 주식이 자산 형성의 주요 수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해외주식의 경우 ‘2년~5년미만’ 동안 투자해 왔다고 응답한 부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 55.8%, ‘금융자산 30억원이상’의 부자 42.9%).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급증하면서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투자 시 각각 16.9%, 16.0%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각각 -13.6%, -12.2%의 손실률을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대체적으로 해외주식 대비 국내주식에 대해 기대하는 수익률과 감내 가능한 손실률이 소폭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금융자산 30억원이상’의 부자는 국내외 주식투자 시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 대비 소폭 낮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반면 손실 감내 수준은 미미하나마 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긴 호흡의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0 금융자산규모별 투자 기간 (복수응답, 단위: %)



주) 국내주식 거래자 n=279,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187, 30억원이상 n=92
해외주식 거래자 n=190,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120, 30억원이상 n=70

그림 31 금융자산규모별 기대수익률·손실감내율 (단위: %)



주) 전체 n=400

지난 1년 간 이어진 '주식' 시장의 견조한 상승세 시현으로 금융투자에서 '수익'을 경험한 부자가 대폭 증가했다

한국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자산 55.4%, 금융자산 38.9%로 구성됐다

- ✓ 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부동산자산 비중은 소폭 감소했고(-0.8%p), 주식 시장의 반등으로 지난해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소폭 증가(+1.0%p)
- ✓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총자산이 부동산자산 78.6%와 금융자산 16.8%로 구성된 전체 가계 대비 2.3배 높은 수준
- ✓ 2024년 한국 부자는 전년 대비 '주식'+(0.8%p)과 '거주용 외 주택'+(0.8%p)의 비중을 늘렸고, '유동성 금융자산'(-1.6%p)과 '예적금'(-0.6%p)의 비중을 줄임

금융시장 회복세로 안정지향적 금융투자 성향이 낮아지고, 투자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 ✓ 한국 부자의 '안정형'과 '안정추구형'을 합친 '안정지향적 금융 투자 성향'은 전년 대비 약화(-7.3%p),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공격지향적 금융투자 성향'이 소폭 강화(30억원이상에서 전년 대비 2.6%p 상승)
- ✓ 자신의 금융 및 부동산투자 지식 수준에 대해 각각 62.8%, 60.8%의 부자가 '높은 수준 이상'이라고 평가했고, 자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자신감을 보임

'주식' 시장에 형성된 긍정적 모멘텀으로 금융투자에서 수익 경험이 크게 증가했다

- ✓ 주가 상승 랠리로 인한 투자 실적 호조로 지난 1년 간 금융투자에서 수익을 경험(32.2%)한 부자가 손실을 경험(8.6%)한 부자의 네 배에 달했고, 2023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11.9%p)
- ✓ '거주용 부동산'+(+6.7%p)과 '거주용 외 부동산'+(+7.3%p)에서 모두 전년 대비 투자 수익 경험 사례가 늘었고, 기타자산의 경우 2024년까지 이어진 금값 고공행진으로 30.8%가 금·보석 투자 수익을 경험

한국 부자는 '분산투자'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며 '장기간' '원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다

- ✓ 한국 부자가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종목(42.9%)과 여러 금융자산(39.4%)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서'이며, 다음으로 '장기간 투자 가능'(37.8%), '원하는 수익 기대'(36.8%)의 순
- ✓ 한국 부자는 국내주식 6.1개, 해외주식 4.2개 종목에 투자 중으로, 해외주식 대비 국내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국내 16.9%, 해외 16.0%)과 손실감내(국내 -13.6%, 해외 -12.2%) 수준이 높음



2024년 한국 부자는 '유동성금융자산'(-1.6%p)과 '예적금'(-0.6%p)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0.8%p)과 '거주용 외 주택'+(0.8%p)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렸다. 상반기까지 이어진 주가 상승 랠리는 한국 부자의 금융 투자 수익 개선을 견인해(본 조사 시점 2024년 7월 기준), 지난 1년 간 수익을 경험한 부자는 32.2%에 달했고 손실을 경험한 부자는 8.6%에 그쳤다. 또한 '거주용 부동산'+(+6.7%p)과 '거주용 외 부동산'+(+7.3%p) 투자에서도 전년 대비 수익을 경험한 사례가 늘었고, 금값 상승세로 '금·보석' 역시 많은 수익을 안겨준 투자처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한국 부자의 '안정지향적 금융 투자 성향'이 전년 대비 소폭 약화됐고, 금융 및 부동산 전반에 걸쳐 투자 지식에 대해서도 더 높은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 부자의 미래 투자 전략

01 | 부자의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

02 | 부자의 미래 투자 방향

03 | 부자의 미래 투자 계획

요약 Key Findings

제2장에서 한국 부자의 ‘과거’ 1년간의 투자 행태와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데 이어 본 장에서는 이들의 ‘미래’ 투자 전략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자산을 관리하면서 갖게 된 관심사와 애로사항, 단기·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유망 투자처, 이를 기반으로 한 2025년 금융자산 운용 계획 등을 순차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또한 미래 투자 전략에 대한 한국 부자의 생각이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특징도 함께 주목해 보았다.

본 장 역시 제2장과 동일하게 금융자산 10억원이상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으로 10억원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이와 더불어 부자를 대상으로 개인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IDI)를 실시하여 개별 사안별로 더 깊이 있는 사항을 추가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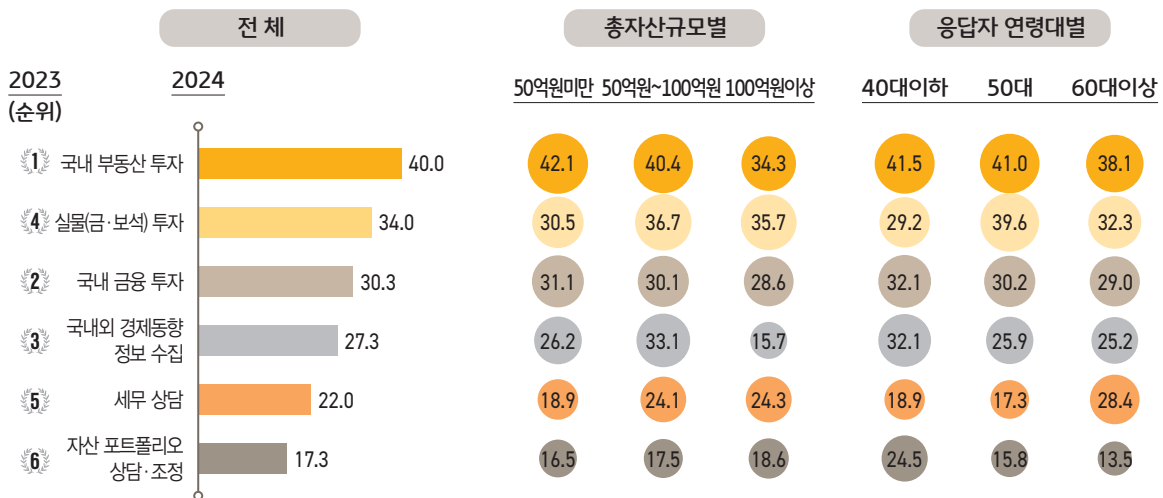
부자의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

한국 부자의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 1위는 ‘국내 부동산 투자’이며, 올해는 ‘실물(금·보석)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한국 부자가 자산관리를 위해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무엇일까? 부자의 자산관리 관심사로는 ‘국내 부동산 투자’(40.0%)가 2023년과 동일하게 1위로 꼽힌 가운데, ‘실물(금·보석) 투자’(34.0%), ‘국내 금융 투자’(30.3%), ‘국내외 경제동향 정보 수집’(27.3%), ‘세무 상담’(22.0%),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조정’(17.3%)이 뒤를 이었다. 자산관리 관심사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순위 변화는 없었으나, ‘실물(금·보석) 투자’의 경우 2022년 7위, 2023년 4위에서 2024년 2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금값 상승세에 따른 한국 부자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총자산규모와 응답자연령에 따른 분야별 관심도를 살펴보면, ‘국내 부동산 투자’와 ‘국내 금융 투자’는 총자산이 적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조정’은 총자산이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 최근 자산관리 관심사 Top6

(1+2+3순위, 단위: %)



주1) 전체 n=400,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63, 30억원이상 n=137, 총자산 50억원미만 n=165, 50억원~100억원미만 n=171, 100억원이상 n=64, 응답자연령 40대 이하 n=86, 50대 n=138, 60대이상 n=176

주2) Top6외 상속·증여 상담, 재테크 교육, 소비·지출 관리, 법률 상담, 은퇴·노후 상담, 기업승계 상담, 해외 금융 투자, 예술품 투자 등 소수의견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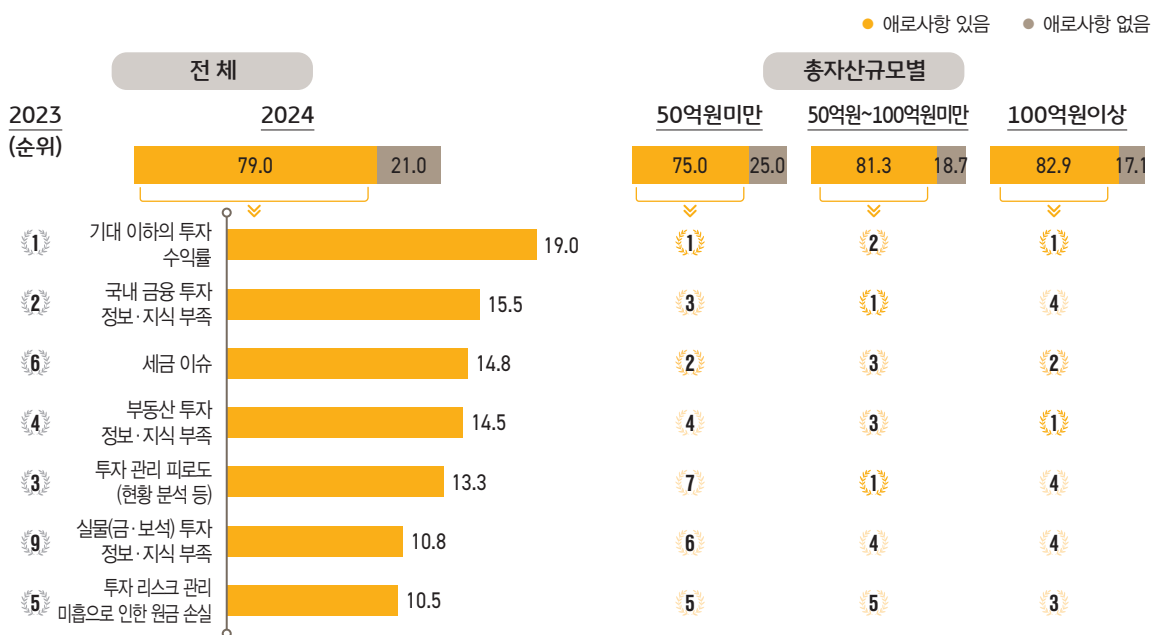
부자 10명 중 8명은 자산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대에 못 미치는 투자 수익률’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같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한국 부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조사대상자 중 21.0%만 자산관리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2년 전 조사(34.5%)대비 13.5%p 낮은 수치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79.0%에 달하는 부자가 꼽은 자산관리 애로사항 1순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 수익률’(19.0%)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었다. 뒤이어 ‘국내 금융 투자 정보·지식 부족’(15.5%), ‘세금 이슈’(14.8%), ‘부동산 투자 정보·지식 부족’(14.5%), ‘투자 현황 파악 및 관리 피로도’(13.3%) 순으로 나타났다. ‘실물(금·보석) 투자 정보·지식 부족’의 경우 지난해 9위에서 올해 6위로 순위가 상승해, 높은 관심(자산관리 관심사 2순위) 대비 정보의 제약으로 실물 투자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 수익률’ 외 ‘부동산 투자 정보·지식 부족’을 공동 1위로 꼽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는 ‘국내 금융관련 정보·지식 부족’과 ‘투자 현황 파악 및 관리 피로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해 자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림 33 최근 자산관리 애로사항 Top7

(1+2순위, 단위: %)



주1)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165, 50억원~100억원미만 n=171, 100억원이상 n=64
주2) 상기 외 불규칙적인 근로·사업소득, 법률·규제 이슈, 해외 금융투자 정보·지식 부족 등 소수 의견이 있음

02 부자의 미래 투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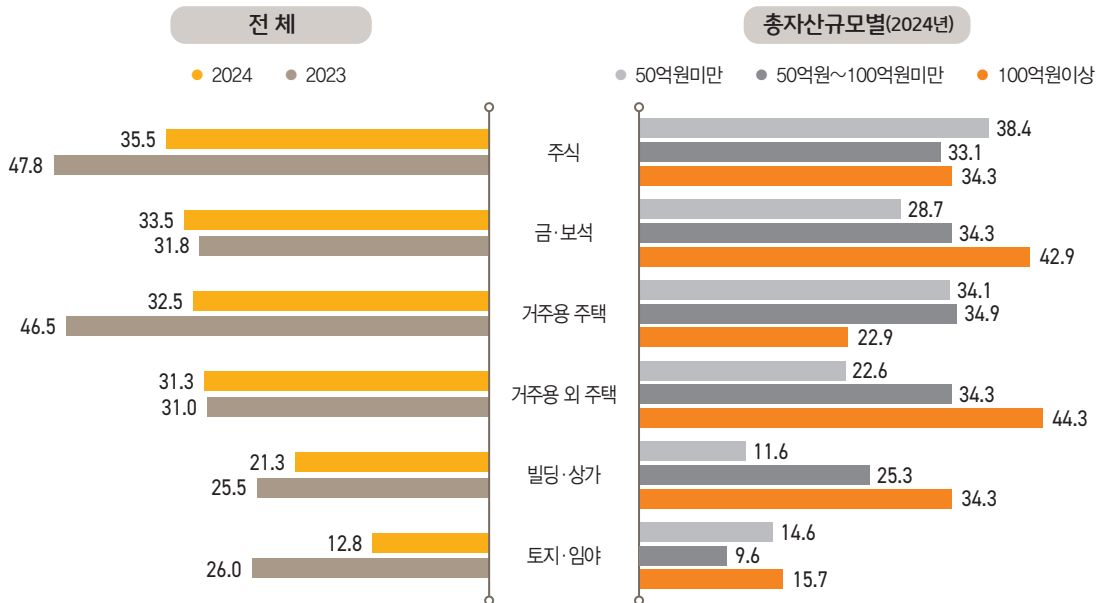
부자가 꼽은 단기 유망 투자처 1순위는 ‘주식’이며, ‘금·보석’에 대한 선호도가 2순위로 한단계 올랐다

한국 부자는 향후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주식’(35.5%)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금·보석’(33.5%), ‘거주용 주택’(32.5%), ‘거주용 외 주택’(31.3%), ‘빌딩·상가’(21.3%), ‘토지·임야’(12.8%) 순이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크고 자산 가치 하락의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인해 ‘주식’과 ‘거주용 주택’의 선호도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주식 -12.3%p, 거주용 주택 -14.0%p). ‘거주용 주택’을 포함하여 경기에 민감한 ‘빌딩·상가’(21.3%), ‘토지·임야’(12.8%)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 역시 전년 대비 낮아졌다(‘빌딩·상가’ -4.2%p, ‘토지·임야’ -13.2%p).

다만, 한국 부자 중 부동산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거주용 외 주택’(44.3%)을 단기 유명 투자처 1순위로 꼽았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거주용 외 주택’ 44.3%, ‘빌딩·상가’ 34.3%, ‘토지·임야’ 15.7%).

그림 34 단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

(1+2+3순위, 단위: %)



주) 전체 2023 n=400, 2024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165, 50억원~100억원미만 n=171, 100억원이상 n=64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이 기대되는 3대 유망 투자처로 ‘거주용 주택’, ‘주식’, ‘거주용 외 주택’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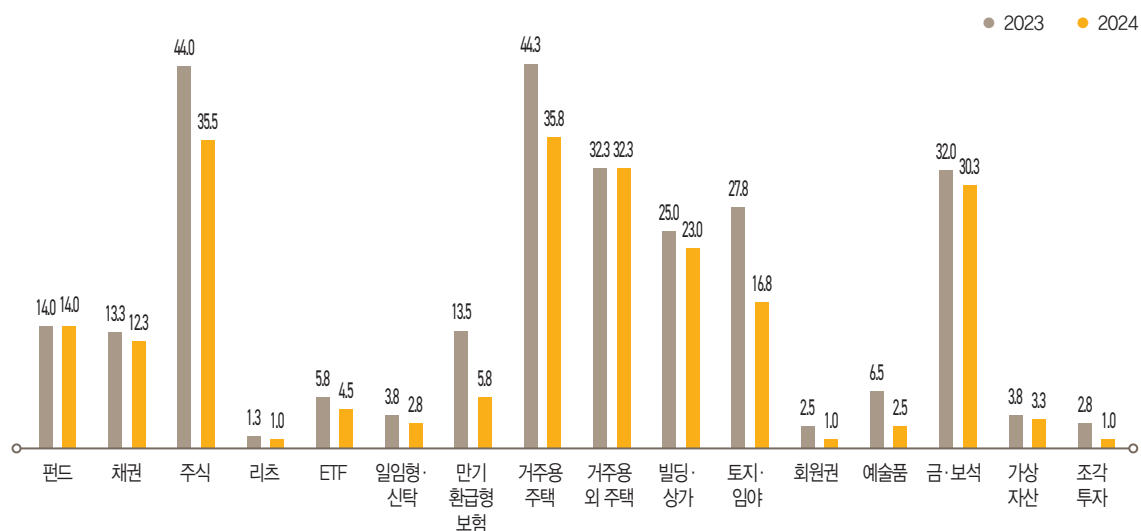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 이내 단기 유망 투자처에 이어 향후 3~5년 정도의 중장기 투자 시 가장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처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다.

한국 부자가 꼽은 중장기 유망 투자처 1순위는 ‘거주용 주택’(35.8%)이었으며, 단기 유망 투자처 1위였던 ‘주식’(35.5%)은 간발의 차로 2위로 밀려났다. 이는 단기적으로 예상한 국제 정세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중장기적으로 다소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거주용 외 주택’(32.3%), ‘금·보석’(30.3%), ‘빌딩·상가’(23.0%), ‘토지·임야’(16.8%) 순으로 유망하다고 답해, 단기와 중장기 투자 시 고수익을 기대하는 상위 6개 투자 분야를 동일하게 전망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전반적으로 중장기 투자 전망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단기 유망 투자처와 비슷했다. 자산유형별로 살펴보면 올해 중장기 유망 투자처 1순위, 2순위로 꼽은 ‘거주용 주택’(-8.5%p)과 ‘주식’(-8.5%p)도 전년 대비 하락폭이 컸다. 거주용 외 부동산의 경우 ‘토지·임야’(전년 대비 -11.0%p)의 낙폭이 가장 큰 가운데 ‘거주용 외 주택’(2023년과 2024년 각각 32.2%로 동일)만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기대감을 보이며 수익형 부동산 대비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한 ‘주택 자산’ 선호 현상을 나타냈다. 앞서 한국 부자가 높은 관심을 보인 ‘금·보석’은 중장기 유망 투자처 4위로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였으나 투자 기대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1.7%p).

그림 35 향후 3~5년 중장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

(1+2+3순위, 단위: %)



주1) 2023년 n=400, 2024년 n=400

주2) 현금이나 수시입출식예금, 예적금은 수익을 예상한 투자처로 보기 어려워 그래프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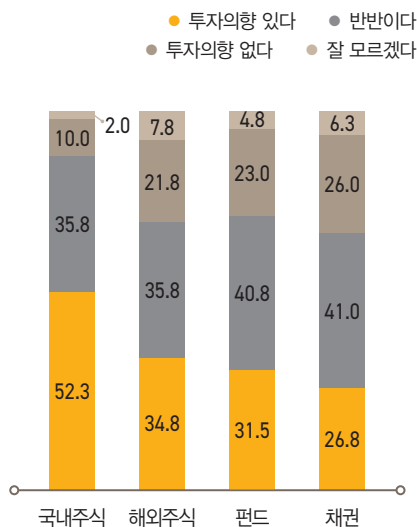
주3) 거주용 주택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등을, 거주용 외 주택은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등을 의미

금융자산 투자 의향 1순위는 ‘국내주식’이며, 연간 기대수익률 역시 16.9%로 가장 높았다

한국 부자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 상대적으로 국내외 주식에 대한 지속 투자 의향이 가장 높았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에는 2023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의향이 ‘해외주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국내주식’ 52.3%, ‘해외주식’ 34.8%). ‘해외주식’의 경우 ‘잘 모르겠다’와 ‘투자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부자가 각각 7.8%, 21.8%를 차지하며 각각 2.0%, 10.0%를 기록한 ‘국내주식’과 큰 격차를 보였다. 다만, 관련 증권사들의 잇따른 앱(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개선 조치, 지난 7월 시행된 정부의 외환시장 개방 확대 조치 등 ‘해외주식’ 거래를 위한 제반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투자 심리의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채권’의 경우 부자의 26.8%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투자 의향을 나타낸 반면, 그와 유사한 비중의 26.0%는 투자 의향이 없다고 응답해 투자 성향별 차이를 극명히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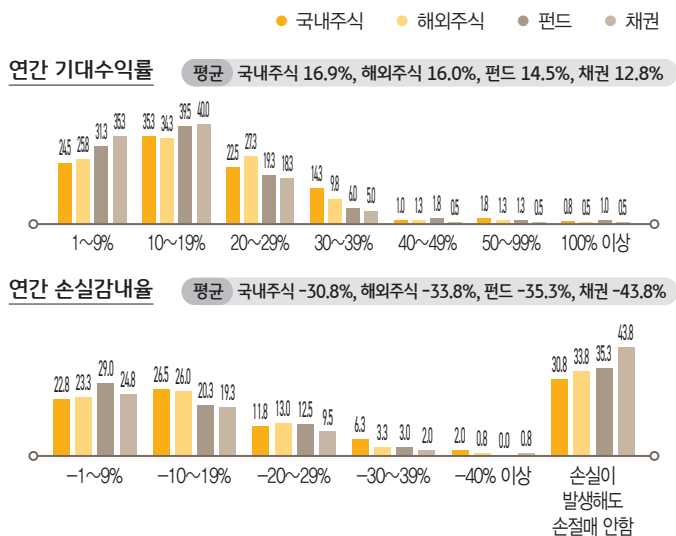
한편 한국 부자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기대하는 연간 수익률은 각각 평균 16.9%, 평균 16.0%로 ‘펀드’(평균 14.5%)나 ‘채권’(평균 12.8%) 대비 높아, ‘고수익 투자처’로서 주식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는 금융상품은 ‘채권’이 43.8%로 가장 높았다(‘펀드’ 35.3%, ‘해외주식’ 33.8%, ‘국내주식’ 30.8%).

그림 36 향후 금융자산 투자 의향 (단위: %)



주) 각 항목별 n=400

그림 37 금융자산 연간 기대수익률·손실감내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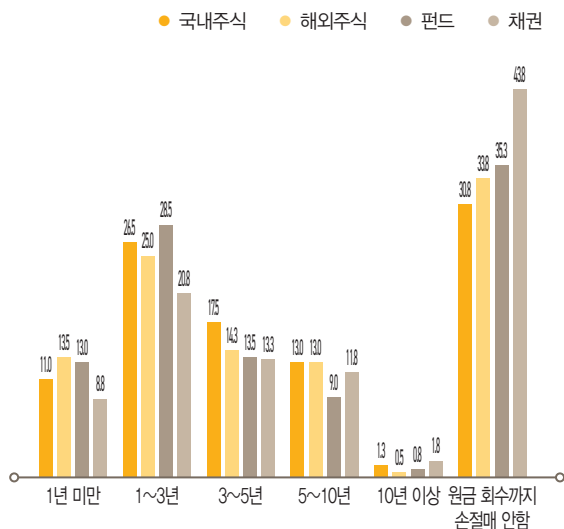
주) 각 항목별 n=400

손실 발생 시 ‘원금 회수까지 손절하지 않는’ 부자가 다수인 가운데 ‘1년~3년’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부자도 많았다

이어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얼마 동안 감내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았다. 전 금융상품에서 공통적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 회수 혹은 오를 때까지 손절매하지 않는다’고 답한 부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국내주식’ 30.8%, ‘해외주식’ 33.8%, ‘펀드’ 35.3%, ‘채권’ 43.8%). 손절매를 고려하는 부자가 기준으로 삼는 손실 감내 가능 기간을 살펴보면, 앞서 조사된 투자 의향 1순위 ‘국내주식’의 경우 ‘1~3년미만’이라고 응답한 부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6.5%), 다음으로 ‘3~5년미만’(17.5%), ‘5~10년미만’(13.0%) 등의 순이었다. ‘해외주식’(25.0%)과 ‘펀드’(28.5%), ‘채권’(20.8%) 역시 ‘1~3년미만’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부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3~5년미만’, ‘5~10년미만’, ‘1년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자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의사결정 시 어떤 요인들을 참고하고 있을까? 조사대상자의 93.3%는 투자금액·손익 등의 투자 관련 요인을 참고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총자산의 투자 손익’(46.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손실 금액·비율’(45.0%), ‘투자 금액’(29.3%), ‘환금성’(26.5%), ‘즉시 투자 가능한 다른 투자처’(25.5%)의 순이었다. 투자 요인 외 고려사항으로는 ‘투자 시장 상황 및 전망’(43.5%), ‘재정적 여유’(36.0%)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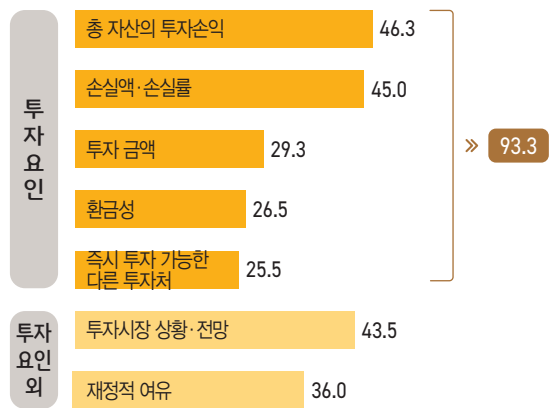
그림 38 손실 감내 가능 기간 (단위: %)



주) 각 항목별 n=400

그림 39 손실 확대 예방을 위한 고려사항 (1+2+3순위, 단위: %)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는 요인 Top7



주1) 전체 n=400

주2) ‘투자요인 외’의 기타 소수 의견으로 주변 가족·친지·지인의 조언, 담당 PB의 조언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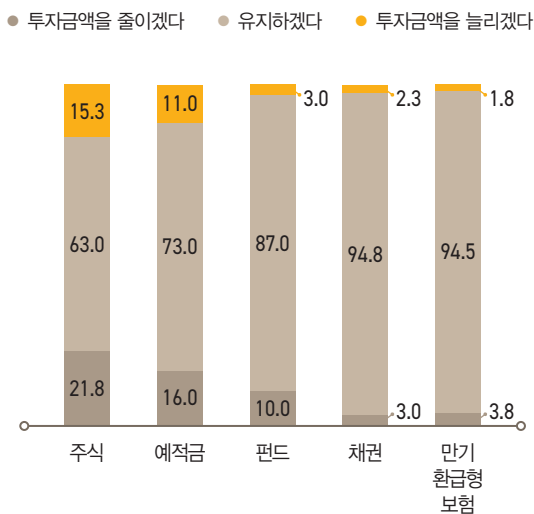
03 부자의 미래 투자 계획

불확실성 시대에 부자의 금융 투자 계획은 ‘현상 유지’인 가운데 ‘주식’과 ‘예적금’에 대해서는 자금 ‘추가’와 ‘회수’ 계획이 공존했다

지금까지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관심사와 애로사항, 단기·중장기 고수익을 기대하는 유망 투자처, 금융자산별 투자방향과 금융투자 시 자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투자 손익 기준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한국 부자의 시장 전망과 투자 인식을 바탕으로 2025년 실제로 금융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질문해 보았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 전반에 걸쳐 현재의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해(‘주식’ 63.0%, ‘예적금’ 73.0%, ‘펀드’ 87.0%, ‘채권’ 94.8%, ‘만기환급형 보험’ 94.5%) 전반적인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하면서 ‘주식’과 ‘예적금’에 대해 현재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의견과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림 40 2025년 금융자산 운용 계획 (단위: %)



주) 각 항목별 n=400

그림 41 한국부자에게 듣는 미래 자산운용 대응 계획

50대
중반 여성
금융자산 12억원

올해 안에 이익 실현을 다 해놓고 내년에는 채권혼합형 펀드나 저축성 비과세 확정금리 보험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가려고 해요. 주식 등은 좀 줄이려고요.

40대
후반 남성
금융자산 20억원

시장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전쟁 뉴스가 끊이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될 거고 이후 시장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가 오히려 추가 주식 매입의 기회가 아닐까 해요.

40대
후반 남성
금융자산 35억원

옛날처럼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결국은 손실을 안보는 게 이익이고... 혹시 모를 자산가치 폭락에 대비하려면 부동산 보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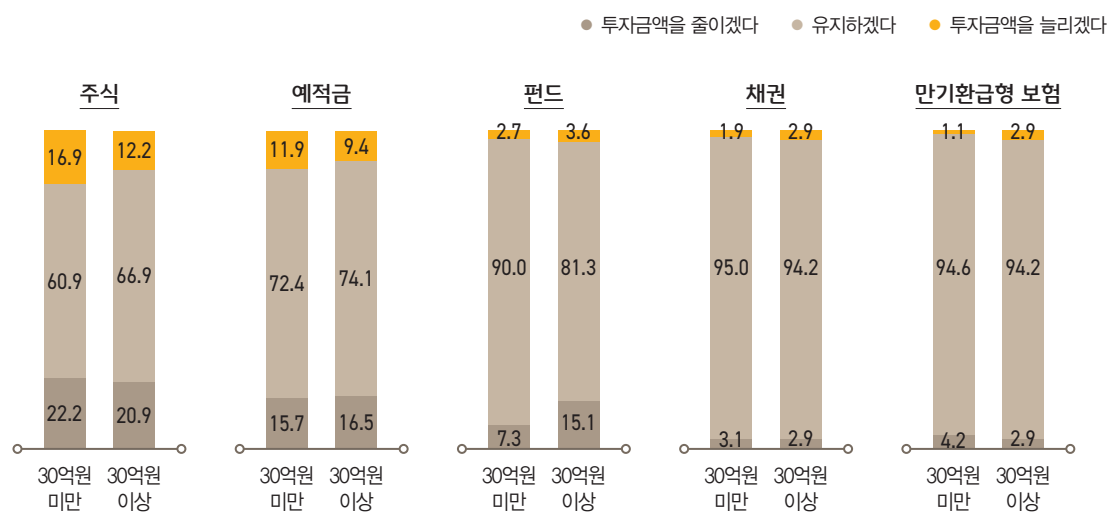
주) 한국 부자 대상 개인 심층인터뷰 결과

한국 부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단기 유망 투자처로 꼽고 있는 ‘주식’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15.3%는 현재 수준에서 추가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반면, 21.8%는 투자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부자 사이에서도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예적금’에 대해서도 부자의 11.0%는 자금 추가를, 16.0%는 자금 회수 계획을 내놓으며 엇갈리는 투자심리를 나타냈다. 이는 ‘예적금’(2023년 ‘자금 추가’ 24.0%, ‘자금 회수’ 2.5%)과 ‘주식’(2023년 ‘자금 추가’ 21.0%, ‘자금 회수’ 8.3%)에 대한 자금 추가 의지가 뚜렷했던 2023년과 대비되는 결과로, 조사 시점인 2024년 7월 기준 주식 시장이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 내년에도 우호적인 시장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등 불확실성 속 관망 심리가 공존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개인심층인터뷰(IDI)를 통해서도 2025년 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채권혼합형 펀드나 저축성 비과세 확정금리 보험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견과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내년이 오히려 주식 매입의 기회라는 의견, 안정적인 예적금을 선호한다는 의견 등 부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금융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30억원미만’의 부자는 ‘주식’과 ‘예적금’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6.9%, 11.9%로 나타나 각각 12.2%, 9.4%를 기록한 금융자산 ‘30억원이상’의 부자 그룹 대비 소폭 높았다. ‘펀드’의 경우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의 90.0%가 ‘현상 유지’ 의견을 보인 반면, ‘금융자산 30억원이상’의 부자는 이보다 8.7%p 적은 81.3%가 ‘현상 유지’를 선택했고 15.1%는 자금 회수 계획을 밝혔다(‘30억원미만’의 부자 7.3%). ‘채권’, ‘만기환급형 보험’의 경우 금융자산규모와 무관하게 94% 이상이 ‘투자 금액을 유지하겠다’고 답해 ‘현상 유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 42 금융자산규모별 2025년 금융자산 운용 계획 (단위: %)



주1) 각 항목별 금융자산 30억원미만 n=261, 30억원이상 n=139
 주2) 펀드의 경우 ELS, DLS 제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2025년 '현상 유지' 투자 기조 속 '주식'과 '예적금'에 대해서도 자금 '추가 vs. 회수'로 의견이 갈렸다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가운데, 올해는 '실물(금·보석) 투자' 관심도 두드러졌다

- ✓ 한국 부자가 자산관리를 위해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 '국내 부동산 투자'(40.0%)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실물(금·보석) 투자'(34.0%), '국내 금융 투자'(30.3%), '국내외 경제동향 정보 수집'(27.3%), '세무 상담'(22.0%),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조정'(17.3%)의 순
- ✓ 올해는 특히 '실물(금·보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대폭 상승했음(2022년 7위, 2023년 4위, 2024년 2위)
- ✓ 한국 부자 10명 중 8명(79.0%)은 자산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대에 못미치는 투자 수익률'(19.0%)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가운데 '국내 금융 투자 정보·지식 부족'(15.5%), '세금 이슈'(14.8%), '부동산 투자 정보·지식 부족'(14.5%) 등의 어려움을 토로

한국 부자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거주용 주택'에서 고수익을 기대했다

- ✓ 한국 부자가 꼽은 단기 유망 투자처 1순위는 '주식'(35.5%)이며, 2순위는 '금·보석'(33.5%)으로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한 반면 지난해 2위였던 '거주용 주택'(32.5%)은 3순위로 한 단계 하락
- ✓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이 기대되는 3대 유망 투자처로 '거주용 주택'(35.8%), '주식'(35.5%), '거주용 외 주택'(32.3%)에 주목
- ✓ 향후 금융자산 중 '국내주식'(52.3%)에 대한 투자 의향이 가장 높았고('해외주식' 34.8%, '펀드' 31.5%),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을 기대('국내주식' 16.9%, '해외주식' 16.0%, '펀드' 14.5%)
- ✓ 전 금융상품에 걸쳐 공통적으로 투자 손실 발생 시 '원금 회수까지 손절매를 하지 않겠다'는 부자가 다수인 가운데, '1~3년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부자 역시 많았음

변동성이 고조되는 2025년 투자 기조는 '현상 유지'로, '주식', '예적금' 투자도 의견이 갈렸다

- ✓ 2025년 금융자산 투자 시 '현재의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관망세를 취할 것을 예상('주식' 63.0%, '예적금' 73.0%, '펀드' 87.0%, '채권' 94.8%, '만기환급형 보험' 94.5%)
- ✓ '주식'과 '예적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주식' 15.3%, '예적금' 11.0%)는 의견과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주식' 21.8%, '예적금' 16.0%)는 의견이 모두 높게 나타남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관심사 1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내 부동산 투자'(40.0%)였으며, 금값 고공행진 속 '실물(금·보석) 투자'(34.0%)가 2위로 올랐다. 주가와 금값 상승 랠리가 이어지며 부자들은 단기적으로 '주식'(35.5%)과 '금·보석'(33.5%)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용 주택'(35.8%)과 '주식'(35.5%)에서 고수익을 기대했으며, 특히 '국내주식'(52.3%)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투자 의향을 보였다('해외주식' 34.8%, '펀드' 31.5%). 다만,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미 대선 이후 정국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025년 투자 기조는 현재의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현상 유지'가 대세였고, 상대적으로 투자 의향이 높은 '주식'과 '예적금'에서도 자금 '추가'와 '회수'로 의견이 갈렸다.

한국 부자의 부의 생애

01 | 부자의 기준

02 | 부의 원천

03 | 부의 성장동력

요약 Key Findings

우리는 누구나 ‘부자’를 꿈꾼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자산이 많은 ‘자산부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명예부자’, 인적 네트워크나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부자’,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한 ‘마음부자’ 등 다양한 의미를 포괄한다.

《한국 부자 보고서》가 지향하는 바는 부자의 돈에 대한 인식, 투자 행동, 자산관리 행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시하여 ‘온 국민이 부자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더 큰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부자들에게 한국 부자가 부를 축적해 온 길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부를 이룬 노하우를 널리 전파하고자 한다.

본 4장에서는 한국 부자의 돈에 대한 인식, 현재의 부를 이룬 원천과 자산 증식의 토대인 종잣돈, 그리고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 동력인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올해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았다.

01 부자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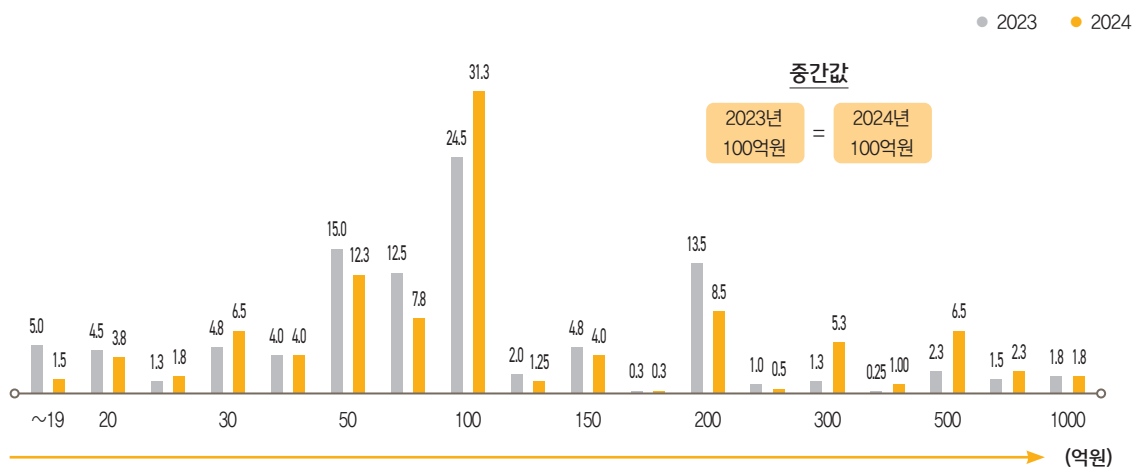
한국 부자는 ‘총자산이 100억 원’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했고, 총자산 100억 원을 꼽은 부자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부자’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다.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총자산으로 2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는 얼마가 있어야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기준을 질문해 보았다.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00억 원’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했고,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와 같았다. 이때 기준 금액은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으로 응답자 답변 중 하나의 값을 대표했다.

올해 단일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한국 부자가 꼽은 부자의 총자산은 ‘100억 원’으로 31.3%를 기록했고, ‘50억 원’(12.3%), ‘200억 원’(8.5%)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3년 조사결과에서도 ‘총자산 100억 원’(24.5%), ‘50억 원’(15.0%), ‘200억 원’(13.5%)의 순으로 부자의 총자산 기준 금액을 꼽아 순위상 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조사에 비해 올해 ‘100억 원’이라는 응답률이 6.8%p 증가하고, ‘50억 원’과 ‘200억 원’이 각각 2.7%p, 5.0%p 감소하며 부자의 기준 금액으로 ‘총자산 100억 원’이 부자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3 부자의 기준 금액

(단위: %)



주) 2023 n=400, 2024 n=400

부자 10명 중 5명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고, 10명 중 4명이 응답한 지난해에 비해 그 비율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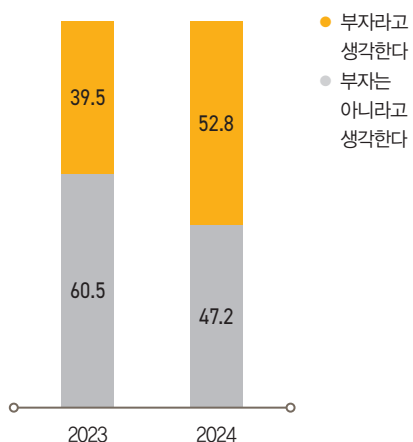
자산부자, 명예부자, 사람부자, 마음부자 등 다양한 의미가 포함된 복합적 의미의 ‘부자’와 연관 지어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보았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국 부자 중 52.8%가 ‘지금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총 자산이 많을수록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부자 비율이 높았다.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 중 45.1%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데 비해,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51.8%,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72.9%였다.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 중 27.1%가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앞서 부자의 자산기준으로 100억 원 초과를 꼽은 부자가 31.5%인 결과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

올해 한국 부자의 부자 자각도에 대한 동의율(52.8%)은 지난해(39.5%)보다 13.3%p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부자 중에서도 어느 그룹에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늘었는지 살펴보았다. 총자산규모별로 부자 자각도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총자산 100억원미만’의 부자가 ‘100억원이상’의 부자보다 동의율 증가폭이 컸다. 특히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가 2023년 24.8%에서 2024년 45.1%로 20.3%p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다음으로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가 지난해 41.5%에서 올해 51.8%로 10.3%p 늘었고, 반면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지난해 71.9%에서 올해 72.9%로 1.0%p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림 44 부자 자각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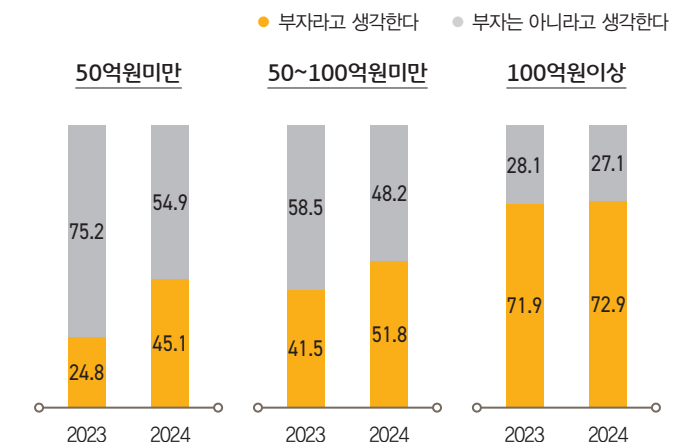
(단위: %)



주) 2023 전체 n=400, 2024 전체 n=400 금융자산

그림 45 총자산규모별 부자 자각도

(단위: %)



주) 총자산 50억원미만 2023 n=165 2024 n=164,
총자산 50~100억원미만 2023 n=171, 2024 n=166,
총자산 100억원이상 2023 n=64, 2024 n=70

02 부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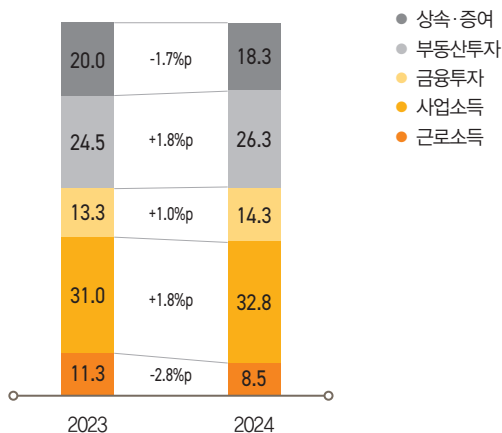
현재 자산을 축적한 주된 원천은 '사업소득'과 '부동산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 부자가 현재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주된 원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사업소득'(32.8%)과 '부동산투자'(26.3%)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에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원천은 '사업소득'(31.0%)과 '부동산투자'(24.5%)로 순위는 같았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소득'과 '부동산투자'의 비중이 각각 1.8%p씩 늘었다. 반면 '근로소득'(8.5%)은 지난해 보다 2.8%p 감소했고, '상속·증여'(18.3%)도 1.7%p 감소했다.

노동의 산물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는 '사업소득'(32.8%)이 '근로소득'(8.5%)보다 4배 정도 비중이 컸고, 투자를 통한 결과물인 부동산투자자와 금융투자 중에서는 '부동산투자'(26.3%)가 '금융투자'(14.3%)보다 2배 정도 비중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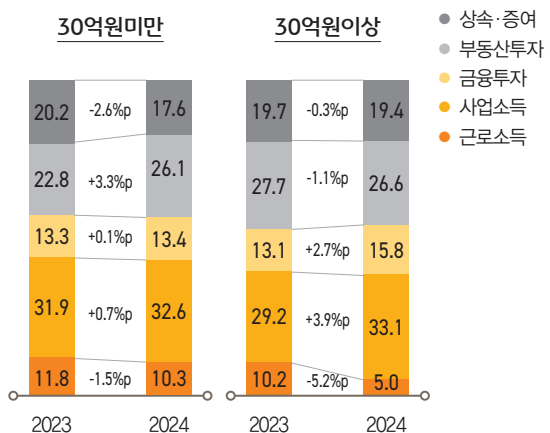
금융자산규모별로 보면, '30억원이상'의 부자는 자산 축적의 원천으로 '사업소득'을 꼽은 비중이 3.9%p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근로소득'을 꼽은 비중이 5.2%p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는 '부동산투자'를 꼽은 비중이 3.3%p로 증가했고, '상속·증여'를 꼽은 비중이 2.6%p 감소했다.

그림 46 한국 부자가 꼽은 부의 원천 (단위: %)



주) 2023 n=400, 2024 n=400

그림 47 금융자산규모별로 꼽은 부의 원천 (단위: %)



주) 금융자산 30억원미만 2023 n=263, 2024 n=261
금융자산 30억원이상 2023 n=137, 2024 n=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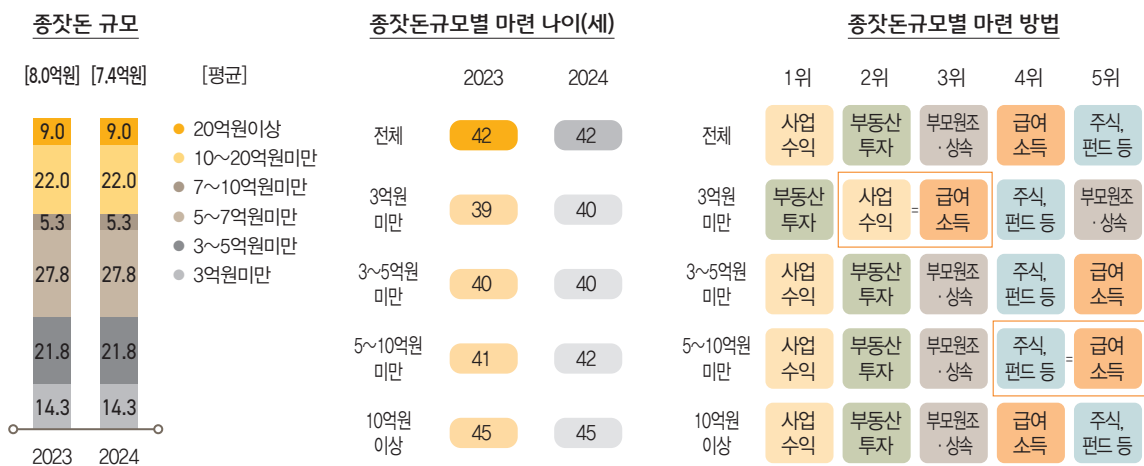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종잣돈'은 평균 7억 4천만 원이었고, 42세에 '사업 수익'과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만들었다

자산의 증식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부자들에게 첫번째 계단이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밑천이 되는 '종잣돈'의 규모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개인이나 가구의 자산이나 소득 수준, 투자 행동, 지출 행동 등 여건에 따라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부자는 지금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첫 계단인 '종잣돈' 규모를 얼마나 보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한국 부자는 평균 '7억 4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생각했고 2023년 8억 원에서 6천만 원이 줄었다. 부자가 7억 4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을 만든 시기는 평균 42세였고, 종잣돈 규모가 클수록 종잣돈을 만든 시기는 늦춰져 10억 원 이상을 마련한 부자는 45세에 만들었다고 응답했다.

한국 부자가 종잣돈을 마련한 방법은 '사업 수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동산투자 수익', '부모 원조·상속 자산', '급여소득',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수익'의 순이었다. 종잣돈 규모에 따라 자금 마련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종잣돈으로 '3억원미만'을 만든 부자는 종잣돈으로 '3억원이상'을 만든 부자가 2순위로 꼽았던 '부동산투자'가 1순위로, '3억원이상'을 만든 부자가 1순위로 꼽았던 '사업 수익'은 '급여 소득'과 함께 2순위로 나타났다. 종잣돈으로 '3억원이상'을 만든 부자가 3순위로 꼽은 '부모 원조·상속'은 5순위로 밀려 종잣돈 규모에 따라 자금 마련 방법에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48 부자의 종잣돈 규모 추이, 마련 나이 및 방법 (단위: %)



주) 전체 2023 n=400, 2024 n=400, 종잣돈 3억원미만 n=56, 3~5억원미만 n=73, 5억원~10억원미만 n=140, 10억원이상 n=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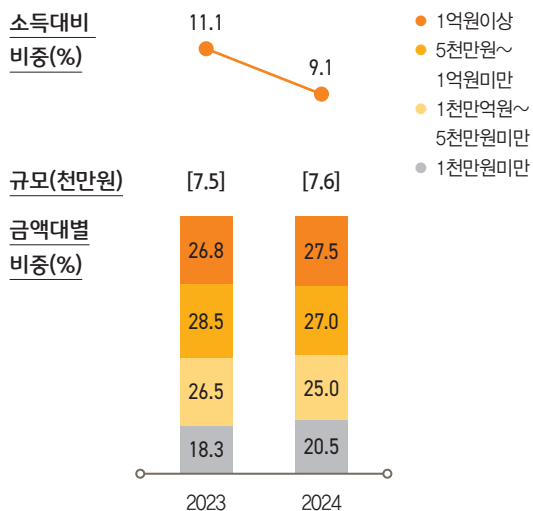
03 부의 성장 동력

부자가 활용하는 첫번째 부의 성장 동력은 ‘소득잉여자금’으로, 규모는 연평균 7천 6백만 원이었다

한국 부자는 종잣돈을 토대로 자산 증식을 위해 노력했고 지금도 투자 중이다. 현재 자산을 불리는 데 활용하는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현재 부자가 자산을 불리는 데 활용하는 첫 번째 동력은 ‘소득잉여자금’이다. 소득 잉여자금은 근로·사업·이자·임대소득 등 가구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생활비 등 소비·지출을 제한 금액으로, 부자의 투자 여력을 알아보기 위해 산출했다. 부자의 ‘소득잉여자금’은 연평균 7천 6백만 원(월평균 633만 원)으로 지난해(7천 5백만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금액구간별 비중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소득에서 소득 잉여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1%에서 올해 9.1%로 감소하여 대부분의 부자가 생활비 등 소비·지출이 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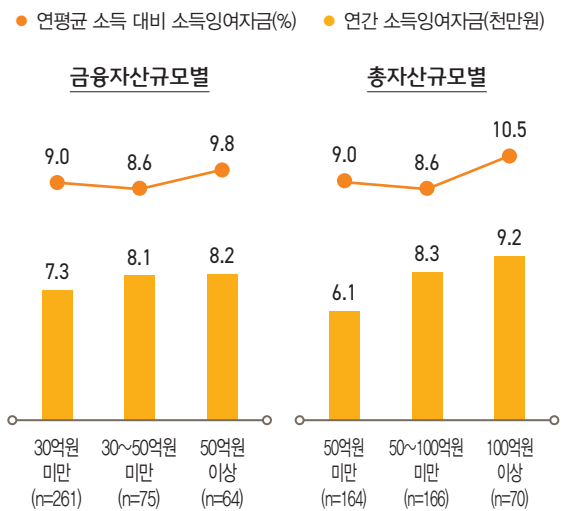
연평균 소득잉여자금은 금융자산보다 총자산규모별로 차이가 뚜렷해 총자산이 많을수록 소득잉여자금 규모가 증가했다. 연평균 소득잉여자금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가 가장 적었는데, 이는 소득에 비해 교육비, 생활비 등 소비·지출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9 부자의 소득잉여자금 추이 (단위: 천만원, %)



주1) 2023 n=400, 2024 n=400
주2) 연평균 소득 대비 소득잉여자금 비중은 각 항목의 평균값으로 산출

그림 50 자산규모별 소득잉여자금 현황(2024년)



주) 연평균 소득 대비 소득잉여자금 비중은 각 항목의 평균값으로 산출

부자가 활용하는 두 번째 성장 동력은 ‘자산배분 전략’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은 부동산자산으로 옮겼다

한국 부자가 현재 자산을 불리는 데 활용하는 두 번째 동력은 ‘자산배분 전략’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자산 증식을 위해 보유한 자산을 나누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을 세부유형별로 나누는 전략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대부분의 부자가 보유한 부동산자산까지 포괄하여 알아보았다.

한국 부자의 자산배분을 알아보기 위해 소득잉여자금으로 각 자산의 규모를 나눠 배율을 산정했다. 전체적으로 부자는 ‘금융자산’이 28배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주용 부동산’(19배), ‘거주용 외 부동산’(16배)의 순이었다. 금융자산과 거주용 부동산의 배분율은 지난해와 동일했고 거주용 외 부동산 배율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자산배분 전략은 보유자산의 유형과 규모별로 세분화할 때 다양한 특징 파악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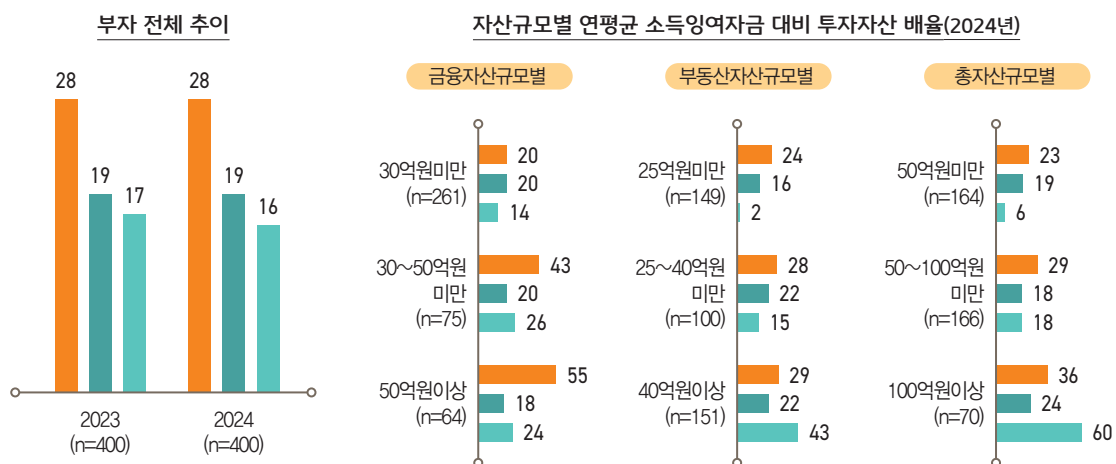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소득잉여자금을 ‘금융자산’에 배분한 배율이 컸고, 특히 금융자산 30억원을 기점으로 그 이상을 보유한 부자에서 금융자산 배율이 크게 높았다(금융자산 30억원미만 20배, 30억원~50억원미만 43배, 50억원이상 55배). 한편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거주용 외 부동산자산’에 대한 배분율이 높았고 특히 부동산자산 25억원을 기점으로 급증했다(부동산자산 25억원미만 2배, 25억원~40억원미만 15배, 40억원이상 43배).

총자산규모별 자산배분 전략을 보면 일정 부분의 금융자산이 쌓이면 부동산자산으로 옮겨 투자하는 부자의 ‘자산배분 이동 전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투자자산 여력이 커지나 금융자산 배율은 일정 규모를 유지하는 데 비해 ‘거주용 외 부동산자산’ 배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림 51 부자의 연평균 소득잉여자금 대비 자산유형별 배율

(단위: 배)

- 소득잉여자금 대비 금융자산 배율
- 소득잉여자금 대비 거주용 부동산자산 배율
- 소득잉여자금 대비 거주용 외 부동산자산 배율



주) 자산유형별 배율은 가구별 배율의 중간값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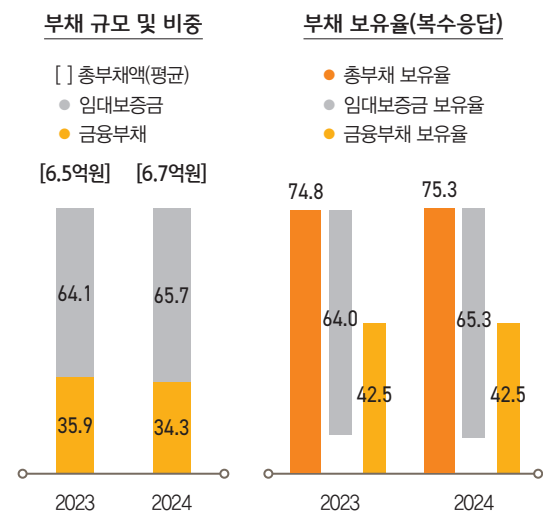
부자가 활용하는 세 번째 부의 성장 동력은 ‘부채 활용’으로, 4분의 3 정도가 부채를 활용하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더 적극적이었다

내가 가진 자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 이익을 확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레버리지 투자다. 한국 부자는 자산을 불리는 데 부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부자 중 75.3%가 부채를 사용하고 있고 지난해(74.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유한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차후 임대인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부채로 간주하는데, 부자 중 65.3%가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었고 42.5%는 금융부채를 보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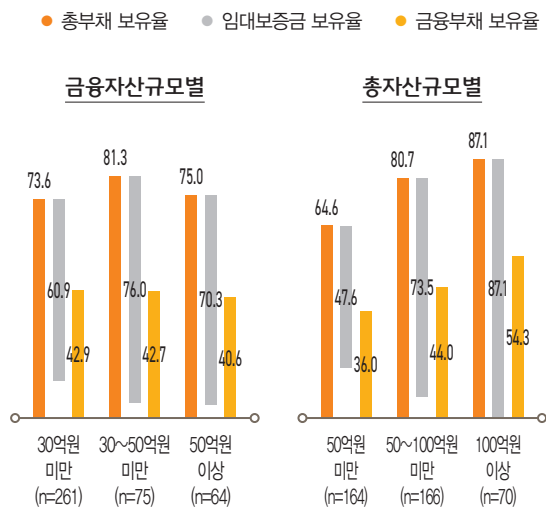
부자가 활용하는 부채규모는 평균 6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6억 5천만 원) 보다 2천만 원 늘었다. 부자의 부채 활용 행태는 금융자산보다 총자산에 따른 차이를 보여,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채 활용에 더 적극적이었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총부채 보유율은 64.6%인 데 비해,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80.7%,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87.1%로 크게 늘었다. 또한 총자산이 많을수록 임대보증금과 금융부채 보유율도 높았다.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임대보증금 보유율이 73.5%로 ‘50억원미만’ 부자의 보유율(47.6%)보다 1.5배 정도 많았다. 특히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임대보증금 보유율이 87.1%로 총부채 보유율(87.1%)과 같았고, 금융부채 보유율은 54.3%로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36.0%)와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44.0%)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총자산이 50억원이상은 되어야 ‘거주용 외 부동산’에 투자할 여력이 있으며, 부자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2 부자의 부채 현황 (단위: %)



주1) 2023 n=400, 2024 n=400
주2) 총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그림 53 자산규모별 부채 보유율(2024년) (단위: %)



주) 자산 및 부채 보유율과 보유 비중은 각 항목의 평균값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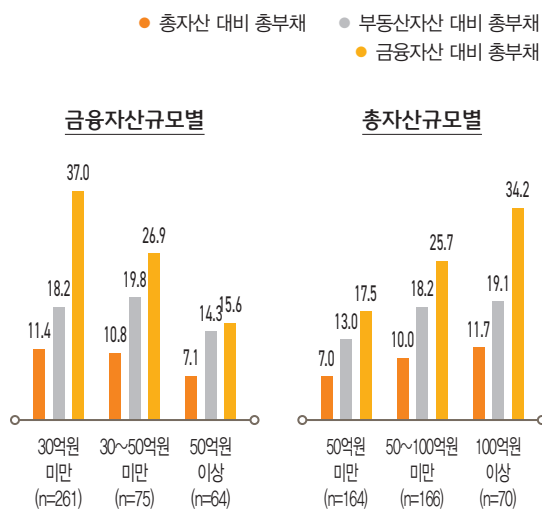
부자가 보유한 부채는 평균 6억 7천만 원으로, 자산범위 내에서 상환 가능한 안정적 수준이었다

앞서 한국 부자가 보유한 부채는 평균 6억 7천만 원이었는데, 보유한 총자산과 부동산자산, 금융자산대비 부채 비중을 산출하여 부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보았다.

먼저 총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보면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와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금융자산대비 총부채 비중이 각각 37.0%, 34.2%로 30%를 초과했으나, 유사시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부동산자산의 처분 없이 금융자산만으로 상환이 가능하여 부채 상환 능력 상실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중’을 보면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는 그 비중이 11.4%였고,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11.7%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2023년 조사결과에서 부자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로 평균 14.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더 안정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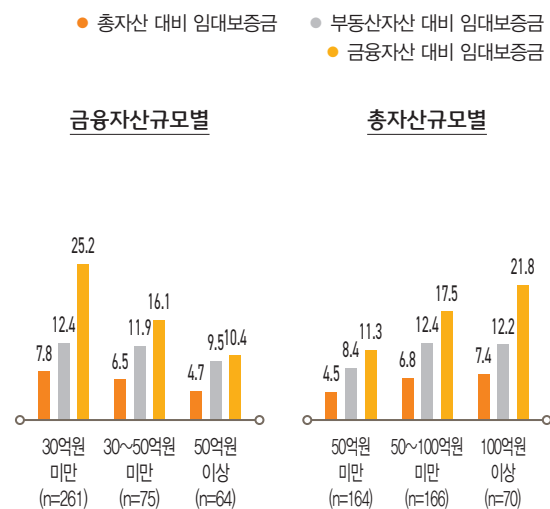
임대보증금 부채는 금융부채를 합한 총부채보다 작기 때문에, 금융자산대비 총부채 비중이 30% 이상이었던 ‘금융자산 30억원미만’의 부자와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의 금융자산대비 임대보증금 비중은 각각 25.2%, 21.8%로 낮게 나타났다. 자산규모가 작는데 금융자산대비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으면 부동산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상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은 낮았다.

그림 54 자산유형별 총부채 비중 (단위: %)



주) 자산 및 부채 보유액은 전체 평균값으로 산출

그림 55 자산유형별 임대보증금 비중 (단위: %)



주) 자산 및 부채 보유액은 전체 평균값으로 산출

한국 부자의 부자에 대한 기준은 '총자산 100억 원' 이상, 42세에 종잣돈 7억 4천만 원으로 시작해 부를 쌓고 있었다



한국 부자는 '총자산 100억 원'은 있어야 '부자'로 인식, 47.2%는 아직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 ✓ 단일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한국 부자가 꼽은 부자의 총자산은 '100억 원'(31.3%)
- ✓ 부자의 기준으로 '총자산 100억 원'을 꼽은 부자는 지난해(24.5%)보다 6.8%p 증가한 반면 '50억 원'과 '200억 원'은 지난해보다 2.7%p, 5.0%p 감소, '총자산 100억 원'으로 부자들의 컨센서스가 형성
- ✓ 한국 부자 중 52.8%가 '지금 나는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총자산이 많을수록 동의율이 높음(총자산 50억원미만 45.1%, 50억원~100억원미만 51.8%, 100억원이상 72.9%)

한국 부자는 42세에 '사업 수익'과 '부동산투자 수익'을 통해 7억 4천만 원의 종잣돈을 마련했다

- ✓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현재 자산을 축적한 원천은 '사업소득'(32.8%)과 '부동산투자'(26.3%)가 대세
- ✓ 한국 부자는 자산 증식의 밑천인 '종잣돈'으로 평균 7억 4천만 원을 답했고, 평균 42세에 이 돈을 모음
- ✓ 부자가 '종잣돈'을 마련한 방법은 '사업 수익', '부동산투자 수익', '부모 원조·상속'의 순으로 높음

한국 부자의 자산 증식에는 '소득잉여자금', '자산배분 전략', '부채 활용'의 세 가지 동력이 있다

- ✓ 첫 번째 부의 성장 동력은 총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생활비 등을 제외한 투자자산인 '소득잉여자금'으로, 부자는 연평균 7천 6백만 원을 생성했고 이는 지난해(연평균 7천 5백만 원)와 비슷한 수준
- ✓ 두 번째 동력은 '자산배분 전략'으로 부자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나 (소득잉여자금대비 금융자산 28배, 거주용 부동산 19배, 거주용 외 부동산 16배),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이 모아지면 부동산자산으로 투자자산을 옮겨 투자
 - 총자산이 많을수록 투자자산 여력은 증가하나 '금융자산'과 '거주용 부동산자산'은 총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 & '거주용 외 부동산자산' 비중이 증가하며 자산 이동을 짐작 가능
- ✓ 세 번째 동력은 '부채 활용'으로 75.3%의 부자가 부채를 사용하고 총자산이 많을수록 비중이 높으며, 이들이 보유한 부채 규모는 평균 6억 7천만 원으로 보유한 자산 내에서 상환 가능한 안정적 수준
 -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11.4%)와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11.7%)가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이 높으나 상환능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님(부자가 생각하는 적정 부채 비율(14.6%) 보다 낮음)



한국 부자는 '총자산으로 100억 원'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며, 부자 사이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에 더 강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었다. 총자산 100억 원에 이르지 못한 부자가 많아 '아직 부자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동의한 부자가 절반 정도인 47.2%에 달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현재 자산을 축적한 원천은 '사업소득'과 '부동산투자 수익'이 대세였고, 자산 증식의 밑천인 '종잣돈'을 만든 원천이기도 했다. 자산은 계단식으로 늘어 나는데 첫 도약의 발판인 종잣돈은 42세에 7억 4천만 원으로 시작했다. 종잣돈으로 본격적인 자산 증식의 시기에 진입하여 ▲부자가 투자에 투입할 수 있는 소득잉여자금과 이를 바탕으로 ▲금융자산을 모은 뒤 일정 규모에 이르면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산배분 전략으로 더 큰 부자가 되고, 이때 ▲부동산 매입에 힘을 보태는 부채 활용 전략으로 부를 축적했다.

한국 부자의 부의 이전

01 | 세대간 부의 이전, 상속·증여

02 | 지역간 부의 이동, 해외자산 투자

03 | 지역간 부의 이전, 해외 투자이민

요약 Key Findings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심화, 코로나19 이후 안전에 대한 니즈 증가,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의 이동 본격화, 국가마다의 상이한 경제 환경 등으로 거대 자금의 세대간, 지역간 이전이 활발하다. UBS는 《2024 글로벌 웰스 리포트(Global wealth Report 2024)》를 통해 향후 20~25년간 전세계 부자에서 약 83조 5천억 달러(약 11경 원)의 부가 세대 간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예외 없어 인구 고령화, 코로나19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감 등을 경험하고, 세대간·지역간 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세대간, 지역간 자산 이전의 현황과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번째는 ‘상속·증여’를 통한 ‘세대간 자산 이전’, 두 번째는 ‘해외자산 투자’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해외로 나가지만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소극적인 지역간 자산 이동’, 마지막으로 국내 자산이 완전히 해외로 유출되는 ‘해외 투자이민’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간 자산 이전’을 한국 부자의 현황과 인식, 향후 확대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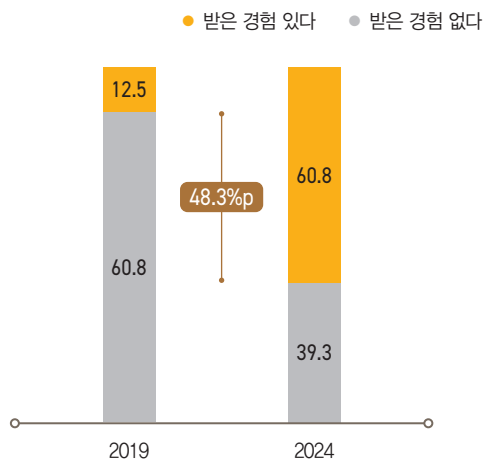
세대간 부의 이전, 상속·증여

한국 부자 중 60% 정도가 상속이나 증여를 경험했고, 주로 ‘현금·예적금’, ‘부동산’을 받았다

수명 연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심화와 고령자 사망이 증가, 코로나19를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상속과 증여가 늘고 있다. 한국 부자 역시 60.8%가 상속과 증여를 경험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5%)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했다. 다만, 2019년에는 3년 이내 상속이나 증여의 경험을 질문한 데 비해, 올해 조사에서는 그동안의 누적 경험을 물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로 국세청 상속세 신고건수 현황을 보면 2019년 9,555건에서 2023년 1만 8,282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증여세 신고건수 현황도 2019년 15만 1,399건에서 2021년 26만 4,274건, 2022년 21만 5,640건, 2023년 16만 4,230건으로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상속·증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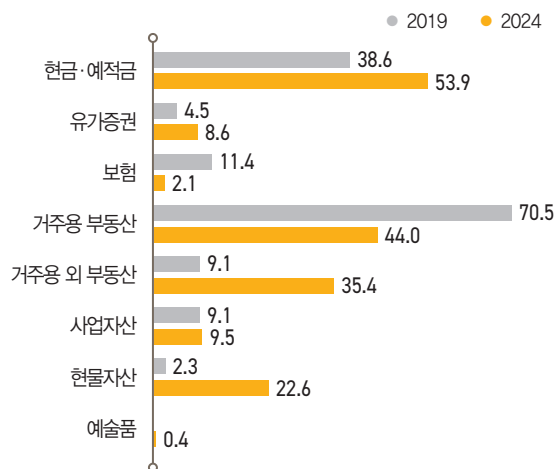
상속이나 증여로 물려받는 자산은 ‘현금·예적금’(53.9%), ‘거주용 부동산’(44.0%), ‘거주용 외 부동산’(35.4%), ‘금이나 보석 등 현물자산’(22.6%)의 순으로 다양했다. 이는 2019년 ‘거주용 부동산’(70.5%)과 ‘현금·예적금’(38.6%)에 집중된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림 56 상속·증여추이(2019년 vs. 2024년) (단위: %)



주) 2019 n=400, 2024 n=400

그림 57 상속·증여 자산(2024년) (단위: %)



주)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만 2019 n=44, 2024 n=243

부자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자금 마련’을 가장 어려워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60.8%의 부자를 대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다. 부자가 상속을 받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상속세 마련’(37.6%)이었고,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 간 갈등’(33.2%), 공동 명의나 공정 분할 등에 따른 ‘재산분할’(26.7%)의 순이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자산 총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이 높고, 부동산자산을 상속자산으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총자산규모별로 보면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는 ‘재산 분할’(35.2%)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상속세 마련’(47.4%)을,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가족 구성원 간 갈등’(41.7%)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꼽았다.

증여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마련’(37.5%)을 가장 크게 고심했고, 다음으로 ‘증여관련 법률’(32.2%), 공동 명의나 공정 분할 등에 따른 ‘재산 분할’(30.3%)의 순이었다. 증여세 역시 총자산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와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증여세 마련’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나,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공동 명의 증서나 공정 분할 등의 ‘재산 분할’을 가장 어려워했다.

그림 58 상속을 받을 때 어려움 (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총자산규모별		
		50억원 미만	50억원~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상속세 마련	37.6	29.6	47.4	27.8
가족 구성원 간 갈등	33.2	26.8	34.7	41.7
재산 분할	26.7	35.2	23.2	19.4
상속 관련 법률	22.8	21.1	20.0	33.3
상속 후 자산 변화 관리	22.3	19.7	20.0	33.3
전문 상담기관 부재	18.8	18.3	18.9	19.4
국세청 신고 시점·방법	18.3	12.7	18.9	27.8
자산별 상속 과정	13.9	7.0	12.6	30.6

주) 상속을 받은 경우만 전체 n=202, 총자산 50억원미만 n=71, 50억원~100억원미만 n=95, 100억원이상 n=36

그림 59 증여를 받을 때 어려움 (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총자산규모별		
		50억원 미만	50억원~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증여세 마련	37.5	42.9	36.2	32.4
증여 관련 법률	32.2	28.6	31.9	38.2
재산 분할	30.3	20.4	31.9	41.2
국세청 신고 시점·방법	27.6	28.6	21.7	38.2
자산별 증여 과정	24.3	14.3	27.5	32.4
증여 후 자산 변화 관리	23.7	14.3	23.2	38.2
가족 구성원 간 갈등	21.7	18.4	26.1	17.6
전문 상담 기관 부재	2.6	4.1	1.4	2.9

주) 증여를 받은 경우만 전체 n=152, 총자산 50억원미만 n=49, 50억원~100억원미만 n=69, 100억원이상 n=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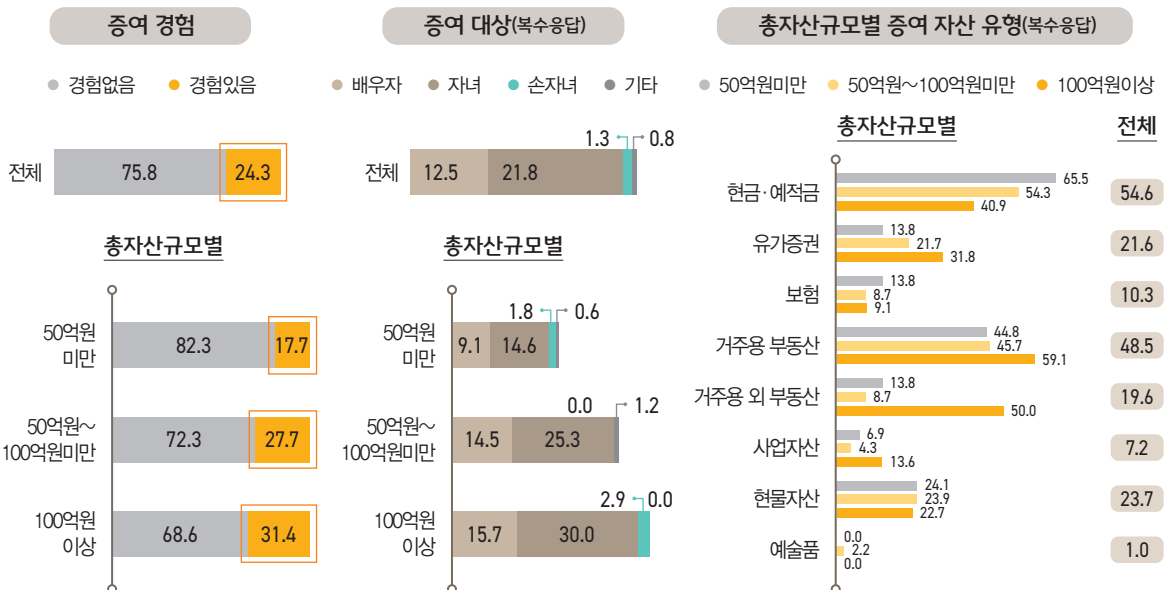
부자 4명 중 1명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했고, 증여 자산은 ‘현금·예적금’, ‘거주용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

고령화 심화로 한국 부자 중 고연령자가 증가하면서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 세율이 낮아 증여가 늘고 있다. 이는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 2019년 조사에서 증여를 한 적이 있는 부자가 1.5%에 불과했던 데 비해 올해 조사에서는 24.3%로 4명 중 1명은 증여를 해 준 경험이 있었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증여 경험자 비중이 높았는데,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가 3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가 27.7%, ‘50억원미만’의 부자가 17.7%를 차지했다. 증여 대상은 ‘배우자’(12.5%)와 ‘자녀’(21.8%)가 대부분이었고, 총자산이 많을수록 이들에 대한 증여율이 증가했다.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손자녀’(2.9%)에게 증여한 경우도 많았다.

증여 자산은 ‘현금·예적금’(54.6%)과 ‘거주용 부동산’(48.5%)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그 외 ‘금·보석 등 현물자산’(23.7%), ‘주식 등 유가증권’(21.6%), ‘거주용 외 부동산’(19.6%) 등의 순이었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현금·예적금’을 증여한 경우는 감소하고 ‘주식 등 유가증권’, ‘거주용 부동산’이나 ‘거주용 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가 증가했다.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거주용 부동산’(59.1%)이나 ‘거주용 외 부동산’(50.0%)을 증여한 경우가 각각 절반을 넘었다. 반면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는 ‘현금·예적금’(65.5%)과 ‘거주용 부동산’(44.8%)을 주로 증여했다. ‘금·보석 등 현물자산’은 총자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22~24%의 비율을 유지하며 공통 증여자산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림 60 부자의 증여 경험 여부, 증여 대상과 자산유형(2024년)

(단위: %)



주)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164, 50억원~100억원미만 n=166, 100억원이상 n=70
증여를 한 경우만 전체 n=97, 총자산 50억원미만 n=29, 50억원~100억원미만 n=46, 100억원이상 n=22(n=30 미만인 경우는 해석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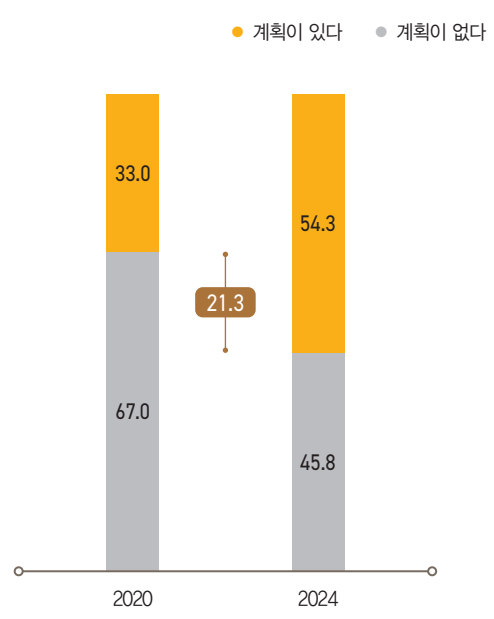
부자의 54.3%가 향후 상속·증여 계획이 있었고, 상속·증여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한국 부자의 60.8%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24.3%는 증여를 한 경험도 있으며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세법 개정 관련 논의 등의 영향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향후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부자의 54.3%가 ‘향후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19년 33.0%에 비해 21.3%p나 증가한 결과로 앞으로도 부자의 상속과 증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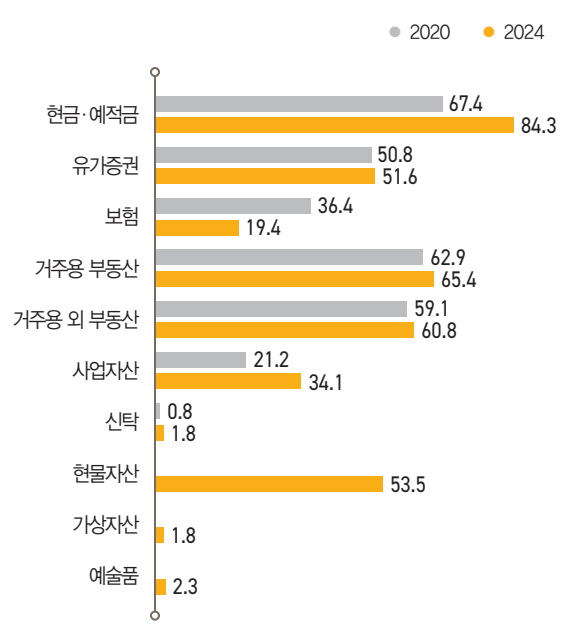
향후 상속이나 증여 자산으로는 ‘현금·예적금’이 84.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거주용 부동산’(65.4%), ‘거주용 외 부동산’(60.8%), 현물자산(53.5%)의 순이었다. 2020년에도 상속이나 증여 자산 상위 세 가지는 ‘현금·예적금’(67.4%), ‘거주용 부동산’(62.9%), ‘거주용 외 부동산’(59.1%)으로 올해에 비해 응답률은 낮았으나 우선 순위는 같았다. 그러나 4순위에는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절반 이상인 53.5%가 ‘금·보석 등 현물자산’(53.5%)을 꼽는데 비해 2020년에는 ‘보험’(36.4%)이 차지했다. 특히 올해 조사결과에서는 상속이나 증여 자산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자산’(34.1%)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예술품’(2.3%), ‘가상자산’(1.8%), ‘신탁’(1.8%) 등은 응답률은 높지 않지만 향후 상속·증여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림 61 향후 상속·증여 계획 여부 (단위: %, %p)



주) 2020 n=400, 2024 n=400

그림 62 향후 상속·증여 자산 유형 (복수응답, 단위: %)



주) 향후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만 2020 n=132, 2024 n=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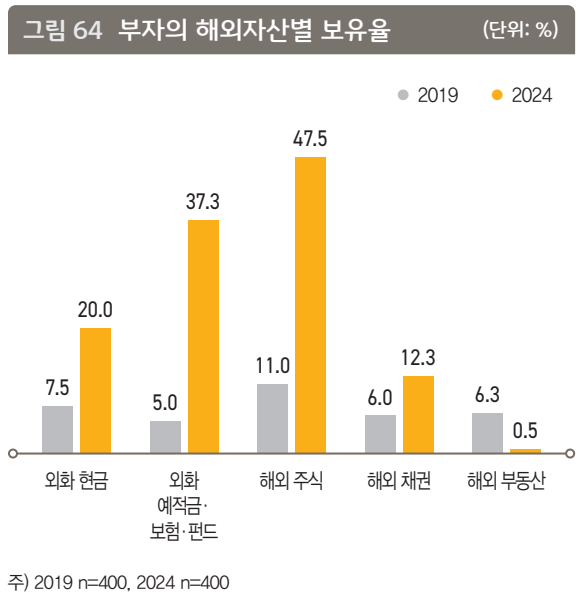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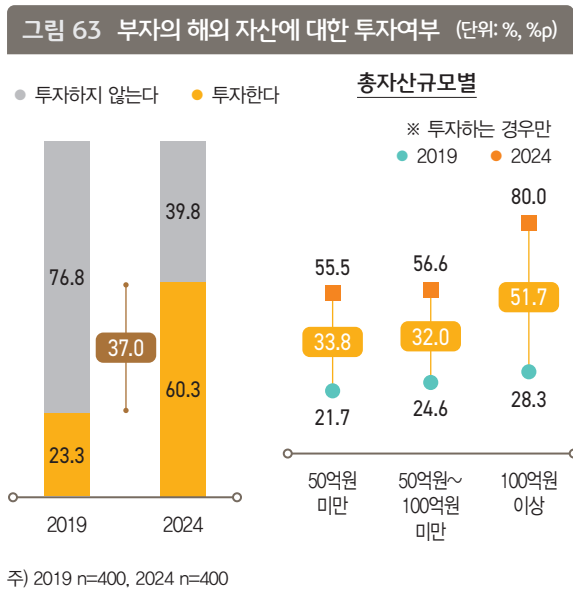
02 지역간 부의 이동, 해외자산 투자

부자 중 60.3%는 금융상품을 이용해 해외 자산에 투자 중이고, 해외 주식과 외화 예적금·보험·펀드가 많았다

‘상속·증여’를 통한 ‘세대간 자산 이전’에 이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해외로 나가지만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자산 투자’를 통한 소극적 ‘지역간 자산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 부자 중 60.3%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23.3%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미국 증시 수익률이 국내보다 높고, 해외 투자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총자산 100억 원이상’ 부자의 해외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51.7%p),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와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각각 33.8%p와 32.0%p로 비슷한 정도의 증가였다.

부자가 투자 중인 해외자산으로는 ‘해외 주식’(47.5%)이 가장 많았고, ‘외화 예적금·보험·펀드’(37.3%), ‘외화 현금’(20.0%)이 뒤를 이었다. 부자의 해외자산 보유율은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해외 주식의 투자가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이후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주식이 포함된 ETF 거래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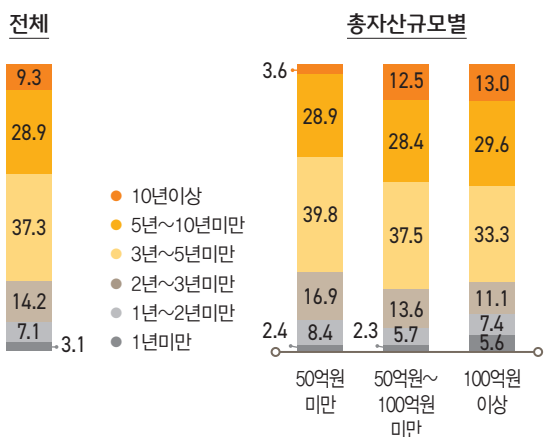
부자 중 70% 이상이 3년 이상 해외 자산에 투자 중이고, 총자산이 많을수록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부자가 해외자산에 투자한 기간은 ‘3년~5년미만’이 37.3%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미만’이 28.9%로 뒤를 이어 ‘10년이상’인 경우도 9.3%를 차지했다. 투자기간이 ‘5년미만’이 61.8%로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해외 투자를 새로 시작한 부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에 비해 올해 해외자산에 투자한 부자가 3배 정도 늘어난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해외자산에 투자한 기간은 늘었는데, 투자 기간이 ‘3년~5년미만’의 응답률은 낮아지고 ‘10년 이상’의 응답률은 높아져 장기투자의 성향이 강해짐을 설명했다.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12.5%였고, ‘3년 이상’의 중장기로 투자한 경우도 78.4%에 달했다. ‘총자산 100억 원이상’의 부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10년 이상’ 해외자산에 투자한 경우가 13.0%였고 ‘3년 이상’ 중장기로 투자한 경우도 75.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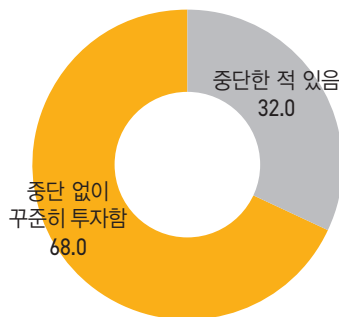
해외자산에 투자하면서 도중에 중간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8.0%의 부자는 ‘중단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해외 투자를 중도에 ‘중단한 경험이 있는’ 부자는 32.0%에 그쳤다. 해외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성향이 강한 한국 부자는 도중에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해외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림 65 해외 투자 기간 (단위: %)



주1)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만
 주2) 전체 n=225, 총자산 50억원미만 n=83, 50억원~100억원미만 n=88, 100억원이상 n=54

그림 66 해외 투자 중단 경험 유무 (단위: %)



주)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만 n=225

부자가 가장 많이 투자한 금융상품은 해외 주식이었고, 반도체·디스플레이, IT·소프트웨어 업종을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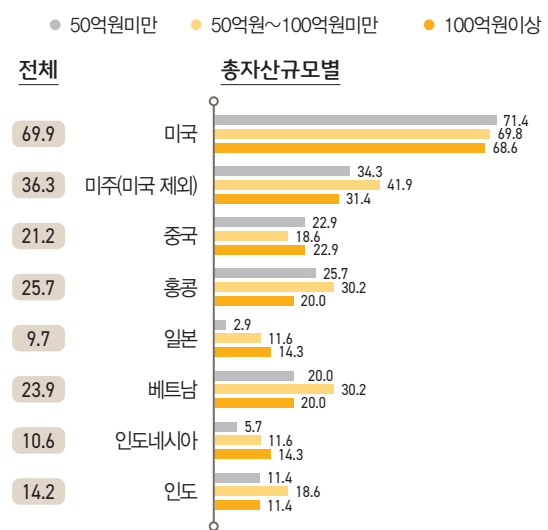
부자 중 60.3%는 주식, 보험,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부자가 해외자산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주식이었다. 개별주는 세분화 되어있어 경향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투자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자가 많이 투자한 상위 7개 해외주식 업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IT·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원자재', '항공·해운·운송',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정유화학'의 순이었다. 총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반도체·디스플레이', 'IT·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이 부동의 1순위, 2순위, 3순위의 자리를 지켰다. 4순위부터는 총자산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업종에는 '인프라·유틸리티'(7순위)가 상위 7개 업종에 포함됐고,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의류·화장품'(5순위), '방산업체'(7순위)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정유화학'(4순위)과 '원자재'(6순위)에서 순위 변동이 있었다. 이를 통해 '총자산 50억원이상'의 부자는 해외 투자 업종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 펀드나 채권으로 투자한 국가는 '미국'(69.9%)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을 제외한 미주지역'(36.3%), '홍콩'(25.7%), '베트남'(23.9%), '중국'(21.2%) 등의 순이었다. 해외주식 투자는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가 미주지역, 홍콩, 베트남, 인도 등 국가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었다.

그림 67 해외주식 투자 종목 Top7 (복수응답)

전체	순위	총자산규모별		
		50억원 미만	50억원~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반도체·디스플레이	1위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디스플레이
IT·소프트웨어	2위	IT·소프트웨어	IT·소프트웨어	IT·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3위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원자재	4위	원자재	원자재	정유·화학
항공·해운·운송	5위	항공·해운·운송	의류·화장품	항공·해운·운송
미디어·엔터테인먼트	6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항공·해운·운송	원자재
정유·화학	7위	인프라·유틸리티	방산업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주)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전체 n=190, 총자산 50억원미만 n=70, 50억원~100억원미만 n=72, 100억원이상 n=48

그림 68 해외 펀드·채권 투자국 Top8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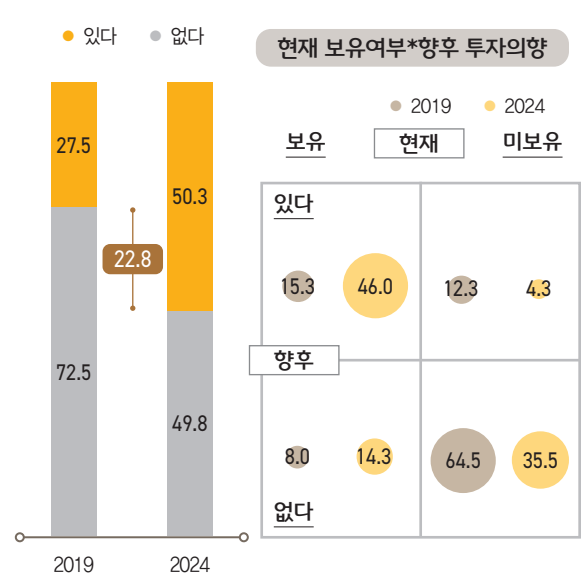
주) 펀드나 채권의 투자처가 해외인 경우만 전체 n=113, 총자산 50억원미만 n=35, 50억원~100억원미만 n=43, 100억원이상 n=35

부자 중 50.3%가 향후에도 해외자산 투자 의향을 보였으나, 현재 투자 중인 60.3%의 부자보다 줄었다

한국 부자는 향후 해외자산 투자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향후 해외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현재 투자 중이라면 지속할 생각인지’를 질문해 보았다. 부자 중 50.3%가 향후 해외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현재 투자 중인 부자(60.3%)보다 10.0%p 감소한 결과였다. 향후 해외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부자(50.3%)는 현재 해외자산에 투자 중이고 향후에도 투자 의향이 있는 경우가 46.0%, 현재 해외자산에 투자하지는 않지만 향후 투자 의향이 있는 4.3%를 차지했다. 올해 새롭게 해외자산 투자를 시도하는 부자는 2019년(12.3%)의 3분의 1에 불과해 부자의 해외자산 투자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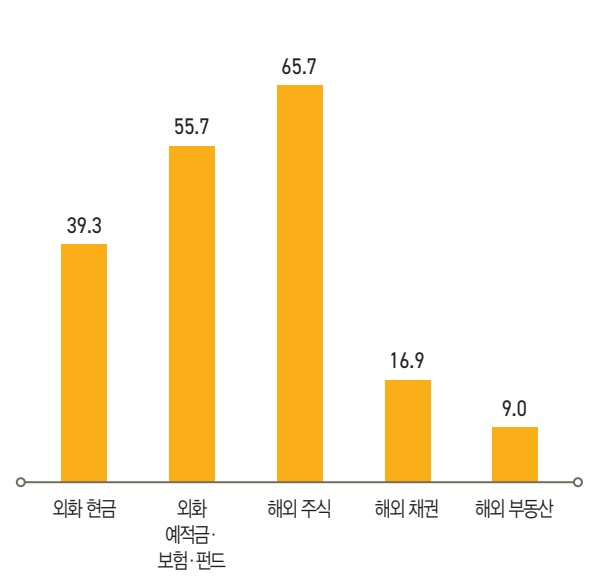
향후 해외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부자가 고려 중인 해외 투자처는 ‘해외 주식’(65.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화 예적금·보험·펀드’(55.7%), ‘외화 현금’(39.3%), ‘해외 채권’(16.9%), ‘해외 부동산’(9.0%)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 부자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해외자산과 우선 순위가 같았다(현재 해외에 투자 중인 금융상품은 ‘해외 주식’, ‘외화 예적금·보험·펀드’, ‘외화 현금’, ‘해외 채권’, ‘해외 부동산’의 순). 부자는 해외자산 투자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림 69 향후 해외자산 투자 의향 (단위: %, %p)



주) 2019 n=400, 2024 n=400

그림 70 향후 고려 중인 해외 투자처 (복수응답, 단위: %)



주) 향후 해외자산 투자 의향이 있는 응답자만 n=201

03 지역간 부의 이전, 해외 투자이민

부자 중 26.8%가 ‘해외 투자이민’을 생각했고, 투자이민국으로는 ‘미국’, ‘호주’, ‘캐나다’를 꼽았다

해외 투자이민은 일정 금액을 특정 국가에 투자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제도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지속, 디지털화된 이민 절차의 도입, 원격 근무 확산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자산정보사 뉴월드웰스(New World Wealth)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1천 2백 명의 고자산가가 해외 투자이민으로 유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해외 투자이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부자는 해외 투자이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4명 중 1명 정도인 26.8%의 한국 부자가 ‘해외 투자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0대’(29.7%)와 ‘총자산 100억원이상’(32.9%)의 부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한국 부자가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한 상위 5개 국가는 ‘미국’(50.5%), ‘호주’(41.1%), ‘캐나다’(39.3%), ‘뉴질랜드’(28.0%), ‘싱가포르’(16.8%)의 순이었다. 이는 글로벌 부자가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한 상위 5개 국가가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인 것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뉴월드웰스, 2024). 총자산 규모나 연령과 무관하게 한국 부자는 해외 투자이민 1순위로 ‘미국’을 꼽았다.

그림 71 해외 투자이민 고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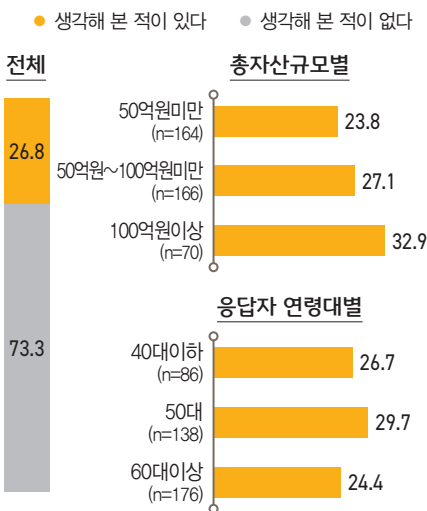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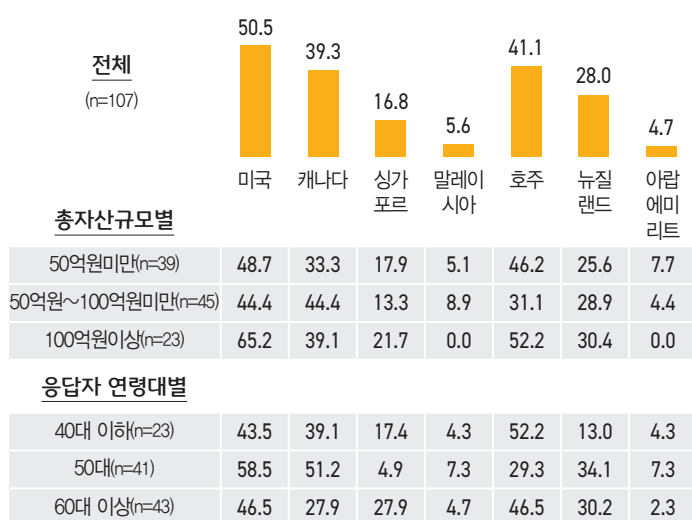


그림 72 해외 투자이민 고려국 (1+2+3순위, 단위: %)



주) 전체 n=400

주1)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한 경우만

주2) n=30미만의 경우 해석시 고려

부자가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한 이유는 ‘호의적인 사업 환경’과 ‘거주 환경 요인’, ‘낮은 세금 부담’이었다

한국 부자가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한 주된 이유는 노동정책이나 법인세 등이 기업가에게 유리한 ‘호의적인 사업 환경’(35.5%)과 미세먼지나 주거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없는 ‘거주 환경 요인’(33.6%)이 가장 많았다. 그 외 ‘국내의 연금제도 불신 등 노후 불안’(29.9%)이나 상속세·증여세·배당소득세 등의 ‘낮은 세금 부담’(29.0%)도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한 이유였다.

‘호의적인 사업 환경’과 ‘거주 환경 요인’, ‘해외의 낮은 세금 부담’은 총자산 규모나 연령에 무관하게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한 이유 상위 5개에 포함됐다. 그 외에 일부 투자이민을 고려한 이유에서 총자산 규모나 가구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국내 연금제도 불신 등 노후 불안’은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와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 가구주가 ‘60대이상’인 부자에게서 각각 2순위, 2순위, 1순위의 주된 투자이민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이 많은 부자는 ‘연금제도의 불안 등 노후 불안’ 요인이 투자이민의 주된 이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이를 뒤집는 결과였다. 다른 하나는 ‘해외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로 전체 6위를 차지했으나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2순위)와 가구주가 ‘40대이하’의 부자(1순위)에서 각각 1순위, 2순위를 차지하며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 교육’(20.6%)은 전체 7위였으나 40대와 50대 가구주에게 각각 4순위, 5순위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대 등의 학령기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림 73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한 이유

(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총자산규모별, 응답자 연령대별 해외 투자이민 이유 Top5						
	총자산규모별			응답자 연령대별			
	50억원 미만	50억원~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호의적인 사업 환경	35.5	1	4	1	1	3	2
거주 환경 요인	33.6	1	1	3	3	1	3
국내의 노후 불안	29.9		2	2			1
낮은 세금 부담	29.0	1	5	3	5	4	3
지정학적 불안	24.3	4	5			1	5
해외에 가족 거주	21.5		2		1		
자녀 교육	20.6	5		5	4	5	
자녀 취업 기회	13.1						

주1)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한 경우만 전체 n=107, 총자산 50억원미만 n=39, 50억원~100억원미만 n=45, 100억원이상 n=23(30미만으로 해석 시 주의), 40대이하 n=23(30미만으로 해석 시 주의), 50대 n=41, 60대이상 n=43

주2) 응답률 5% 미만의 소수 의견 제외

한국 부자의 거대 자금은 ‘세대간 자산 이전’인 ‘상속·증여’로, ‘지역간 자산 이동’인 ‘해외 투자’로, ‘지역간 자산 이전’인 ‘해외 투자이민’으로 옮겨졌다



[세대간 자산 이전] 부자는 상속·증여 시 주로 ‘현금·예적금’, ‘거주용 부동산’을 선호했다

- ✓ 부자의 60.8%가 상속·증여를 받은 적이 있고, 이때 ‘현금·예적금’(53.9%), ‘거주용 부동산’(44.0%), ‘거주용 외 부동산’(35.4%)이 주를 이룸(2019년에는 ‘거주용 부동산’(70.5%), ‘현금·예적금’(38.6%)에 쏠림)
- ✓ 부자가 상속·증여를 받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상속세나 증여세 마련’으로 나타남(상속세 마련 37.6%, 증여세 마련 37.5%)
- ✓ 부자 4명 중 1명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했고, 증여 자산은 주로 ‘현금·예적금’(54.6%), ‘거주용 부동산’(48.5%)이 주를 이룸. 총자산이 많을수록 현금·예적금보다 주식, 채권, 부동산을 증여했고, 특히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절반 이상이 ‘거주용 부동산’(59.1%)과 ‘거주용 외 부동산’(50.0%) 증여
- ✓ 부자의 54.3%가 향후 상속·증여 계획이 있었고, 상속·증여 자산으로는 ‘현금·예적금’(84.3%), ‘거주용 부동산’(65.4%), ‘거주용 외 부동산’(60.8%)을 고려

[지역간 자산 이동] 부자 4명 중 3명은 ‘해외자산’에 장기 투자 중이고 대부분 중단한 적이 없었다

- ✓ 75.5%의 부자가 ‘3년 이상’ 해외자산에 투자 중이었고 총자산이 많을수록 10년 이상 장기투자의 비중이 높음. 이 중 도중에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해외투자를 해 온 부자가 68.0%를 차지
- ✓ 부자가 선호하는 해외 투자상품은 ‘해외 주식’(47.5%)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IT·소프트웨어’, ‘AI’, 차순위인 ‘외화 예적금·보험·펀드’(37.3%)나 ‘해외채권’(12.3%) 투자국은 ‘미국’(69.9%)이 압도적
- ✓ ‘향후 해외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부자는 50.3%로 현재 해외 투자 중인 부자(60.3%)보다 적었고, 향후 해외 투자상품으로 ‘해외 주식’(65.7%), ‘외화 예적금·보험·펀드’(55.7%), ‘외화 현금’(39.3%) 등

[지역간 자산 이전] 부자의 26.8%는 ‘해외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이민을 선호했다

- ✓ 부자 중 26.8%가 ‘해외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투자이민국으로는 ‘미국’, ‘호주’, ‘캐나다’를 꼽음(이와 대조적으로 글로벌 부자는 아랍에미레이트(UAE), 미국, 싱가포르 등의 순으로 꼽음)
- ✓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한 주된 이유는 ‘호의적인 사업 환경’(35.5%)과 ‘거주 환경 요인’(33.6%)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심화, 코로나19 이후 안전에 대한 니즈 증가, 글로벌 자금의 이동 본격화 등 거대 자금의 세대간, 지역간 이동이 활발하다. 한국 부자는 상속·증여를 통한 ‘세대간 자산 이전’, 해외 투자를 통한 ‘지역간 자산 이동’, 해외 투자이민을 통한 ‘지역간 자산 이전’으로 자금을 옮겼다.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증여를 한 경험도 있으며, 향후 계획이 있는 부자는 절반 정도인 54.3%로 상속·증여를 통한 세대간 이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5.5%의 부자는 3년 이상 장기로 해외 자산에 투자했고, 이 중 68%는 도중에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해외 투자를 해왔으며 향후 투자 의향이 있는 부자는 50.3%를 차지했다. 자산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해외 투자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는 부자는 26.8%였고 이민국은 미국, 호주, 캐나다의 순이었다. 해외 투자이민을 고려한 이유는 낮은 법인세 등 ‘호의적인 사업 환경’과 미세먼지가 없는 ‘거주 환경 요인’이었다.

한국 부자의 대체투자자산 전망

이슈
2

01 | 부자의 대체투자 현황

02 | 금 투자 전망

03 | 예술품 투자 전망

04 | 가상자산 투자 전망

05 | 비상장주식 투자 전망

요약 Key Findings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는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나 주식, 채권, 현금자산, 파생상품 등의 전통적인 투자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대체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인 '대체자산'은 금·보석, 부동산, 헤지펀드, 원자재, 선박, 예술품, 가상자산 등 다양하다. 대체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여,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성행하다가 2010년 이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됐다.

캡제미니의 《2024 글로벌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대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였으며, 북미 부자가 16%, 유럽 부자가 12%, 일본 부자는 절반 수준인 6%에 불과하다. 한국은 지금까지 대체투자의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대체투자가 진행되어 부자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저성장·저금리 상황에서도 투자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자산의 여유가 있는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고, 주식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 부자의 대체투자에 대한 인식과 현황, 향후 확대 가능성 등을 점검해 보았다. 대체투자 대상으로 선호하는 금과 예술품에 대한 투자 현황과 전망,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의 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01

부자의 대체투자 현황

총자산이 많을수록 대체투자 경험이 풍부했으며,
‘금·보석’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체투자는 상대적으로 자산의 여유가 있는 개인투자자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부자에게 투자 경험이 있는 대체자산과 향후 투자 의향이 있는 대체자산을 알아보았다.

먼저 83.2%의 부자가 대체자산에 ‘투자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금·보석’이 77.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그림, 도자기 등의 ‘예술품’(20.0%),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11.0%), 원유, 구리 등의 ‘원자재’(8.3%), 저작권, 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투자’(6.5%), ‘비상장주식’(5.5%) 등의 순이었다.

총자산규모와 무관하게 한국 부자는 대체자산 중 ‘금·보석’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대체투자 경험은 증가했다.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94.3%가 ‘금·보석 투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며 66.5%가 투자 경험이 있는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27.8%p). 대체투자처 2위를 기록한 ‘예술품’ 역시 총자산이 많을수록 투자 경험이 풍부했다(‘100억원이상’ 부자 37.1%, ‘50억원미만’ 부자 9.8%). 이는 투자 경험이 있는 대체자산 상위 7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어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수익률 확보를 위한 투자처 발굴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4 투자 경험이 있는 대체자산 유형

(복수응답, 단위: %)

전체	총자산규모별		
	50억원미만	50억원~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금·보석 77.8	66.5	81.9	94.3
예술품 20.0	9.8	22.9	37.1
가상자산 11.0	10.4	10.8	12.9
원자재 8.3	6.7	7.8	12.9
조각투자 6.5	4.9	7.2	8.6
비상장주식 5.5	3.0	6.0	10.0
선박·항공기 5.3	3.7	4.8	10.0
사모펀드 2.0	1.8	3.0	0.0
없음 16.8	25.6	13.9	2.9

주)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164, 50억원~100억원미만 n=166, 100억원이상 n=70

미래 대체투자 의향 1순위는 ‘금·보석’이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대체자산 다각화에 관심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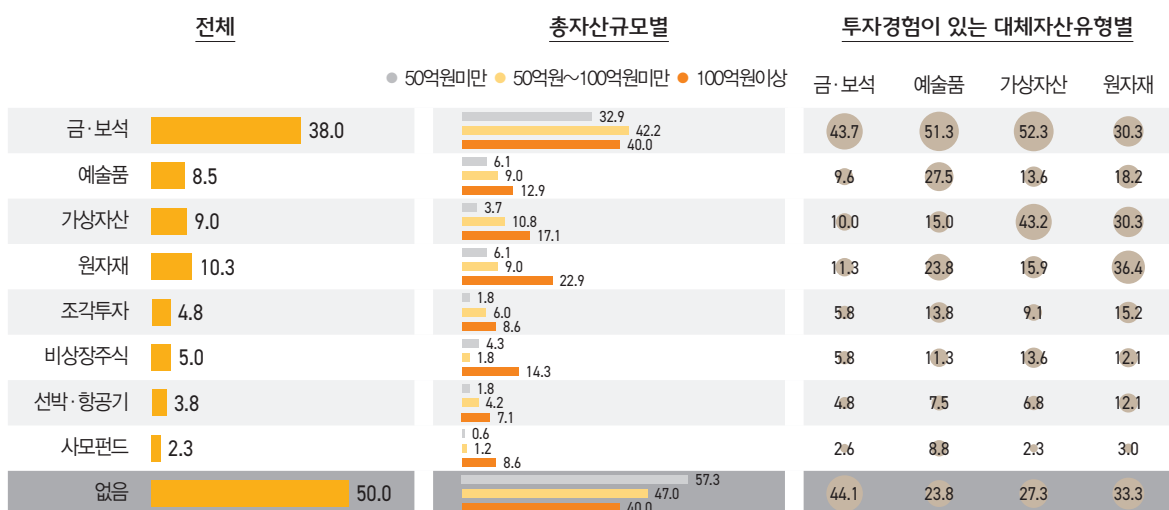
이어서 향후 투자 의향이 있는 대체투자처가 어디인지 질문에 보았다. 부자 10명 중 5명은 ‘대체투자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투자 의향이 있는 부자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자산인 ‘금·보석’(38.0%)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가장 높았다. ‘금·보석’은 총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부자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대체자산이었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투자 지식이 필요한 다른 대체자산의 경우에는 총자산이 많을수록 투자할 의향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의향이 높은 대체자산 2위는 ‘원자재’(10.3%)가 차지했다. 원유, 천연가스, 구리, 리튬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동조화 정도가 낮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분산 투자와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총자산이 많을수록 더 큰 관심을 받았다(투자의향은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 22.9%,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 9.0%, ‘50억원미만’의 부자 (6.1%). 그 외 ‘가상자산’(9.0%)과 ‘예술품’(8.5%), ‘비상장주식’(5.0%)도 대체투자처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투자 경험이 있는 대체자산에 재투자하는 경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투자경험이 있는 대체자산별로 미래 투자 의향을 살펴보았다. 투자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 부자는 ‘금·보석’에 대한 미래 투자 의향이 가장 높았다. 특히 ‘금·보석’에 투자 경험이 있는 부자의 44.1%가 다른 대체자산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투자 경험이 있는 대체자산에 재투자할 의향이 있는 자산도 ‘금·보석’(43.7%)이 가장 많았고, ‘가상자산’(43.2%), ‘원자재’(36.4%), ‘예술품’(27.5%)이 뒤를 이었다.

그림 75 향후 투자 의향이 있는 대체자산 유형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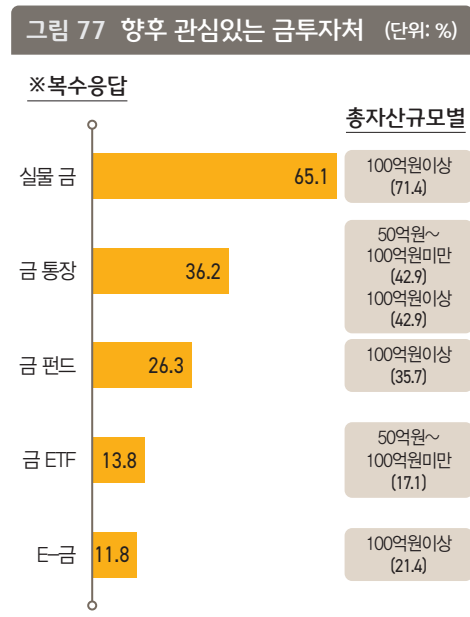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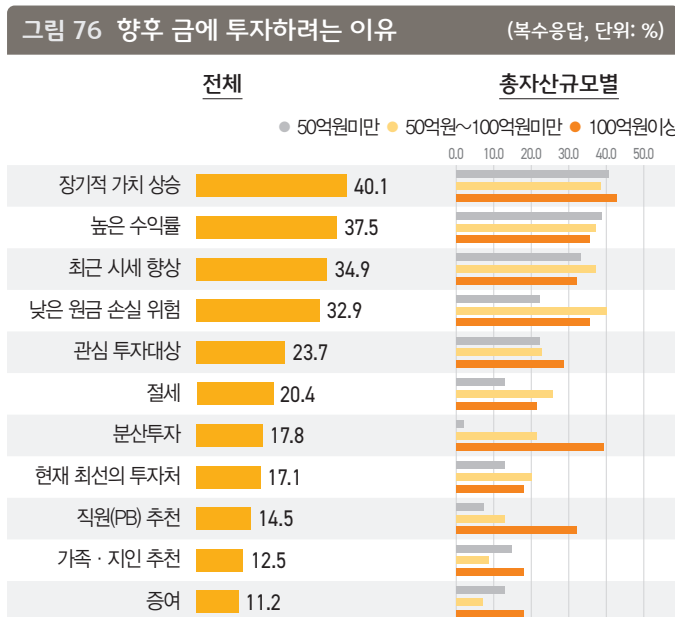
주)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164, 50억원~100억원미만 n=166, 100억원이상 n=70, 투자경험이 있는 대체자산 금·보석 n=311, 예술품 n=80, 가상자산 n=44, 원자재 n=33 (조각투자 등 n=30미만은 상기 제외)

02 금 투자 전망

부자의 '금테크' 쏠림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장기 시세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대체자산 투자 경험과 향후 의향 조사에서 한국 부자가 선호하는 대체자산 1순위로 나타난 '금·보석'은 이들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유망 투자처 2순위로 꼽은 것이기도 했다. 고조되는 지정학적 불안이 국제 금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부자 역시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컸다. 부자에게 향후 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다. '금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서'(40.1%)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높은 수익률이 기대돼서'(37.5%), '최근 금 시세가 올라서'(34.9%), '원금 손실 위험이 적어서'(32.9%)가 뒤를 이으며,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현재 가치'와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금 선호 현상이 뚜렷했으며 '장기적 가치 상승'(42.9%) 외 '분산투자'(39.3%), '직원(PB) 추천'(32.1%) 등의 이유에서 타 부자 그룹 대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 부자가 관심을 보이는 금 투자처는 골드바와 같은 '실물 금'(65.1%)이 가장 많았고, 실물 거래 없이 자유롭게 투자 가능한 '금 통장'(36.2%)과 '금 펀드'(26.3%)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주) 향후 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만 n=152, 총자산 50억원미만 n=54, 50억원~100억원미만 n=70, 100억원이상 n=28

‘금’ 투자를 비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너무 오른 금값’으로, ‘적정 투자 시기에 대한 관망’과 ‘기대수익에 대한 불확실’이 공존했다

향후 금에 투자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62.0%의 부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금 가치가 너무 올라서’라는 의견이 전체의 41.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기존 투자로 충분해서’(25.4%), ‘실물 관리가 힘들어서’(19.4%), ‘금에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17.3%), ‘변동성이 커서’(16.9%),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15.3%), ‘원금 손실 위험을 피하고 싶어서’(14.5%)의 의견이 상위 7위에 들었다.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장기적 가치와 투자 매력도는 인정’하지만 ‘금값 상승 부담으로 조정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관망’하려는 부자가 많은 가운데, 직접투자에 따른 ‘실물 보관의 번거로움’과 투자 손실에 대한 원금 손실 우려 역시 ‘금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조사됐다.

총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50억원미만’의 부자는 금에 투자하는데 타 그룹 대비 ‘낮은 기대수익률’(18.2%)에 대한 걱정이 컸고(‘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7.1%),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19.8%)과 ‘높은 수수료’(13.5%)를 우려했다. 상위 네 가지 이유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는 금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로 ‘원금 손실 위험’(16.7%)과 ‘상담 전문기관 부재’(16.7%)를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은 앞서 자산관리 애로사항 4순위로 ‘실물(금·보석)투자 지식·정보 부족’을 꼽은 바 있다.

그림 78 향후 금 투자 의향이 없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 순위

	총응답률	총자산규모별		
		50억원미만	50억원~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금값이 많이 올랐음	41.9	① 40.0	① 40.6	① 50.0
기존 투자로 충분	25.4	② 27.3	② 21.9	② 28.6
실물 관리 어려움	19.4	③ 19.1	④ 17.7	④ 23.8
투자 시기 부적절	17.3	⑥ 16.4	13.5	② 28.6
변동성이 큼	16.9	⑤ 17.3	③ 19.8	9.5
기대수익률 낮음	15.3	④ 18.2	⑤ 15.6	7.1
원금 손실 위험	14.5	⑦ 12.7	⑤ 15.6	⑤ 16.7
금 투자상품을 모름	10.9	10.0	12.5	9.5
수수료가 높음	10.5	7.3	⑦ 13.5	11.9
상담 전문기관 부재	10.5	11.8	6.3	⑤ 16.7
과거 손실 경험	8.5	10.0	8.3	4.8
가족·지인 추천 없음	8.5	6.4	8.3	⑦ 14.3
직원(PB) 추천 없음	7.3	5.5	10.4	4.8

주) 향후 금에 투자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만 n=248, 총자산 50억원미만 n=110, 50억원~100억원미만 n=96, 100억원이상 n=42

03 예술품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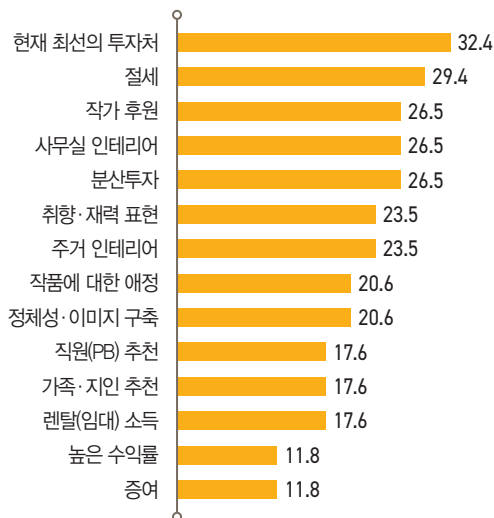
부자가 ‘예술품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최선의 투자처’이고 ‘절세가 가능해서’였다

앞서 ‘예술품’은 한국 부자가 투자한 경험이 있는 대체자산 2순위(20.0%)로 조사됐다. 한국 부자가 ‘아트테크(예술품을 의미하는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 투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의견은 ‘현재 최선의 투자처라서’(32.4%)와 ‘절세가 가능해서’(29.4%)로 나타나, 변동성 장세 속 장기 투자를 계획 중인 부자가 부동산과 달리 보유세·취득세가 없는 예술품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예술품을 보유하는 이유는 총자산규모별로 의견이 갈렸다.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는 ‘예술품을 통한 자신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구축’과 ‘절세가 가능해서’를, ‘총자산 50억원이상’의 부자는 ‘현 시점에서 최선의 투자처’와 ‘분산투자’를 투자 이유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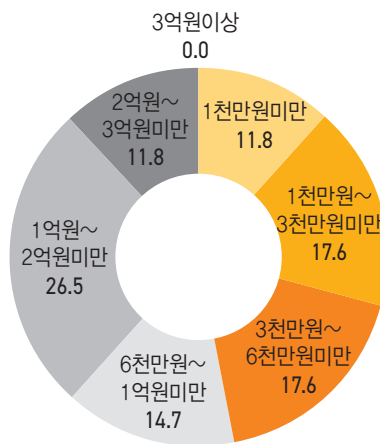
이어서 ‘좋아하는 작가의 예술작품을 소장하기 위해 작품 1점당 얼마까지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1~2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부자가 가장 많았으며(26.5%), ‘1~3천만원미만’과 ‘3~6천만원미만’이 뒤를 이었다(각각 17.6%).

그림 79 향후 예술품에 투자하려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주) 향후 예술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만 전체 n=34

그림 80 예술품 1점당 최대 투자금액 (단위: %)



주) 향후 예술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만 n=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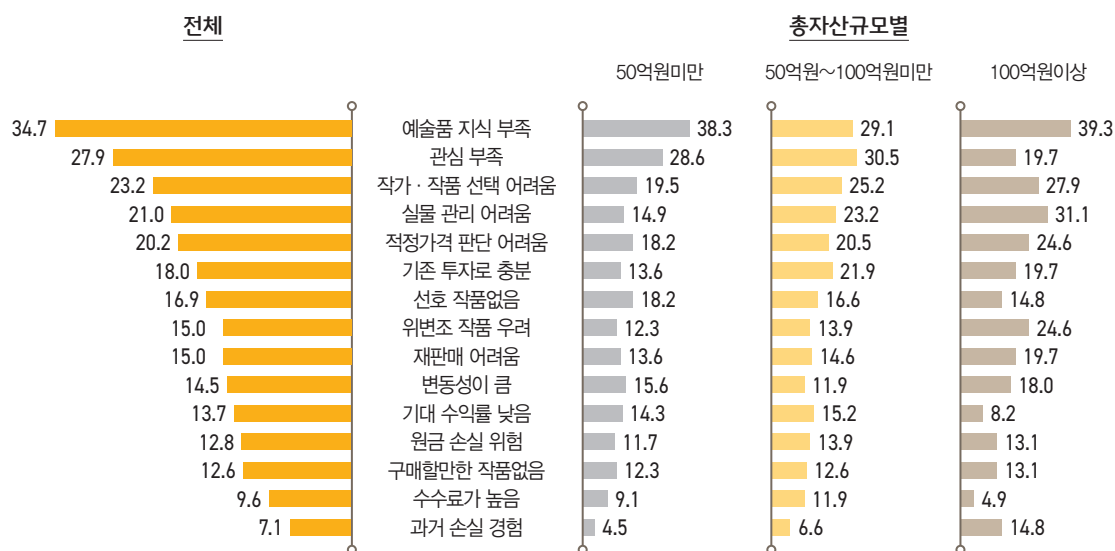
‘예술품’ 투자를 비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술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었다

향후 예술품 투자 혹은 구매 의향이 없다고 답한 91.5%의 부자는 그 이유로 ‘예술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34.7%)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예술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27.9%), ‘소장 가치가 있는 작가 또는 작품에 대해 잘 몰라서’(23.2%), ‘실물 관리·보관이 어려워’(21.0%), 인지도, 제작시기, 희소성 등 ‘예술품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서’(20.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자가 예술품 투자를 비선호하는 이유는 ‘예술품 및 예술품 투자에 대해 지식과 안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외 ‘기존 투자로 충분해서’(18.0%), ‘내 취향에 맞는 작품이 없어서’(16.9%), ‘작품 위·변조 등 사고 발생이 염려되어서’(15.0%), ‘예술품 구매 후 재판매가 어려워’(15.0%), ‘변동성이 커서’(14.5%) 등의 의견도 있었다.

총자산규모별로 보면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38.3%)와 ‘100억원이상’의 부자(39.3%)는 예술품 투자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예술품 지식 부족’을 꼽은 반면,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는 ‘관심 부족’(30.5%)이 가장 많았고, ‘예술품 지식 부족’(29.1%)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앞서 한국 부자가 4위로 꼽은 ‘실물 관리의 어려움’은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가 예술품 투자를 비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였다(31.1%).

그림 81 향후 예술품 투자 의향이 없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주) 향후 예술품에 투자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만 n=366. 총자산 50억원미만 n=154, 50억원~100억원미만 n=151, 100억원이상 n=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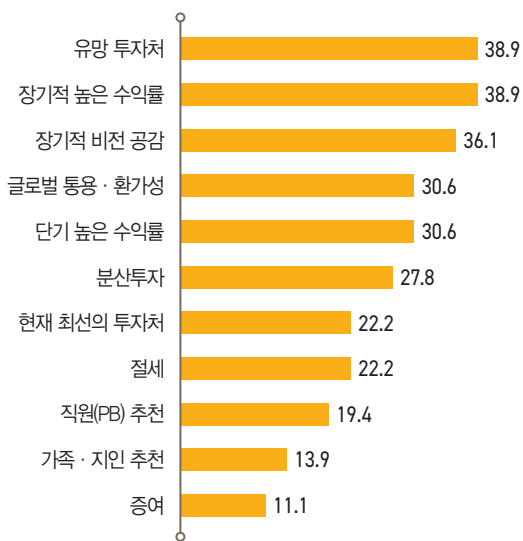
04 가상자산 투자 전망

가상자산이 국내외에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재조명되는 가운데, 부자 3명 중 1명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가상자산 기술 플랫폼 애스펜디지털(Aspen Digital)과 홍콩패밀리오피스협회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아시아 패밀리오피스는 2022년 58%에서 2024년 10월 76%로 18%p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코인 투자자 역시 2023년 하반기 645만 명에서 2024년 상반기 778만 명으로 21% 증가하며, 국내외에서 가상자산이 대체투자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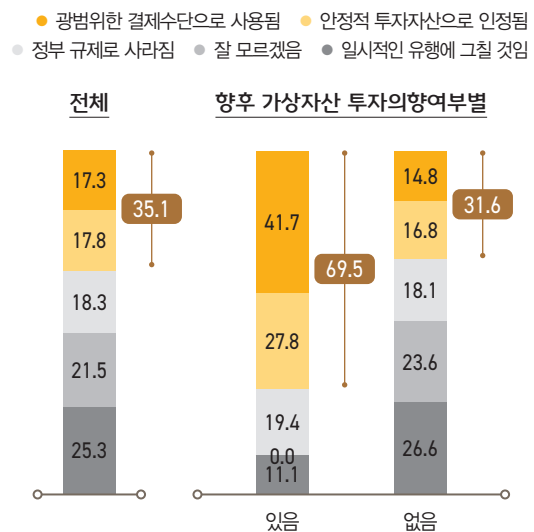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가상자산 보유율 역시 2023년 4.3%에서 2024년 7.3%로 증가해 소폭이나마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가상자산 투자 의향이 있는 부자가 꼽은 세 가지 이유는 '유망한 투자처라 생각되어서'(38.9%), '장기적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어서'(38.9%), '가상자산의 장기적 비전에 공감해서'(36.1%)로, '디지털 금'으로서 가상자산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자의 35.1%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향후 가상자산 투자 의향이 있는 부자의 69.5%가 가상자산이 '광범위한 결제수단'(41.7%)이나 '안정적 투자자산'(27.8%)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데 비해 향후 투자 의향이 없는 부자는 이보다 낮은 31.6%에 그쳤다.

그림 82 향후 가상자산 투자 이유 (복수응답, 단위: %)



주) 향후 가상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만 n=36

그림 83 가상자산의 미래 전망 (단위: %)



주) 전체 n=400, 향후 가상자산에 투자할 의향 여부별 있음 n=36, 없음 n=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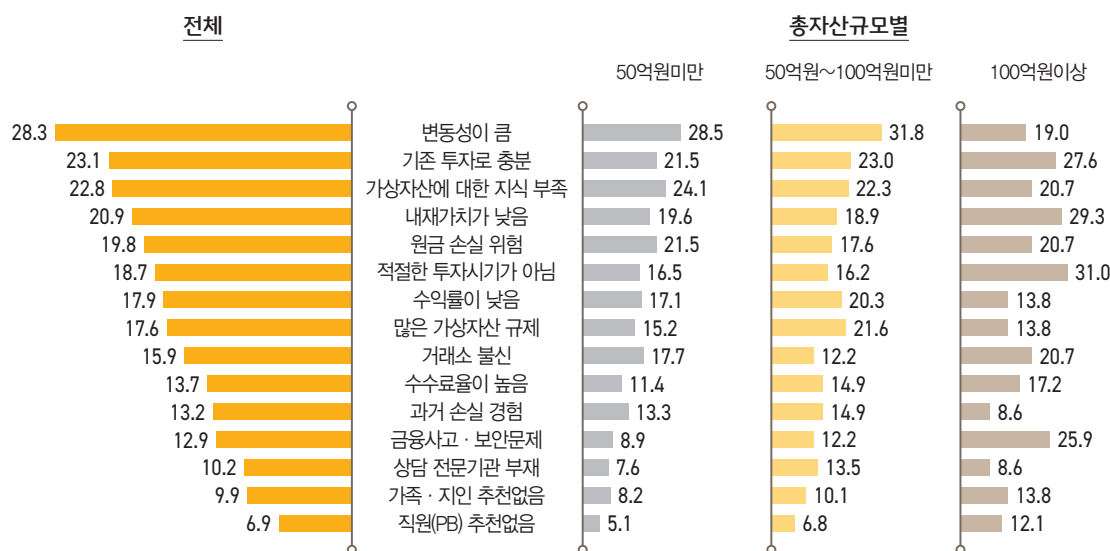
가상자산의 ‘큰 변동성’에 대한 우려 속 추이를 관망 중인 가운데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는 ‘보안문제’, ‘거래소 불신’을 지적했다

앞서 향후 가상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한국 부자는 9%에 그쳤고, 나머지 91%의 부자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없었다. 가상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없는 부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의견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28.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존 투자로 충분해서’(23.1%), ‘가상자산에 대해 잘 몰라서’(22.8%) 등의 순이었다.

총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가상자산에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31.0%)가 가장 많아 ‘금’과 마찬가지로 올해 지속된 가파른 상승장에서 추이를 관망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가상자산 투자 의향이 없는 이유로 거래소 해킹 등 ‘금융사고·보안문제가 걱정되어서’(25.9%)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어서’(20.7%)가 타 부자 그룹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조치들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 심리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84 향후 가상자산 투자 의향이 없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주) 향후 가상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만 n=364, 총자산 500만원미만 n=158, 500만원~1000만원미만 n=148, 1000만원이상 n=58

05 비상장주식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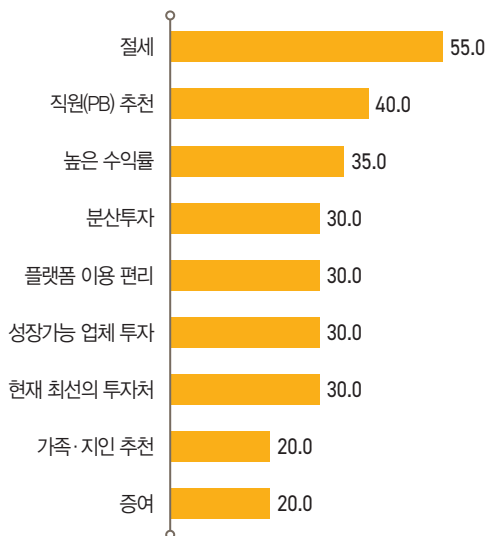
부자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한 ‘절세’ 혜택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높은 변동성’과 ‘원금 손실 위험’을 여전히 투자 비선호 이유로 들었다

장외주식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공모주 열풍이 분 지난 1분기 장외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전년 대비 각각 113.6%, 152.8% 증가했고, 올해 하반기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흥행 소식 등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본 조사가 실시된 지난 7월 기준 한국 부자의 비상장주식 투자 의향과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투자 의향이 있는 부자 중 과반이 넘는 55.0%는 ‘절세’를 비상장주식 투자 이유 1순위로 꼽았고, 다음으로 ‘직원(PB) 추천’(40.0%), ‘높은 수익률’(35.0%)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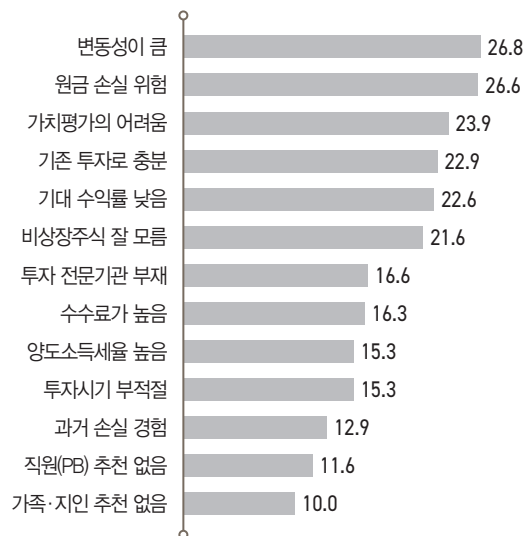
향후 비상장주식 투자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부자는 그 이유로 ‘큰 변동성’(26.8%)과 ‘원금 손실 위험’(2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가치평가의 어려움’(23.9%), ‘기존 투자로 충분함’(22.9%), ‘기대수익률이 낮음’(22.6%), ‘비상장주식을 잘 모름’(21.6%)의 의견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림 85 향후 비상장주식 투자 이유 (복수응답, 단위: %)



주) 향후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만 n=20

그림 86 향후 비상장주식 비투자 이유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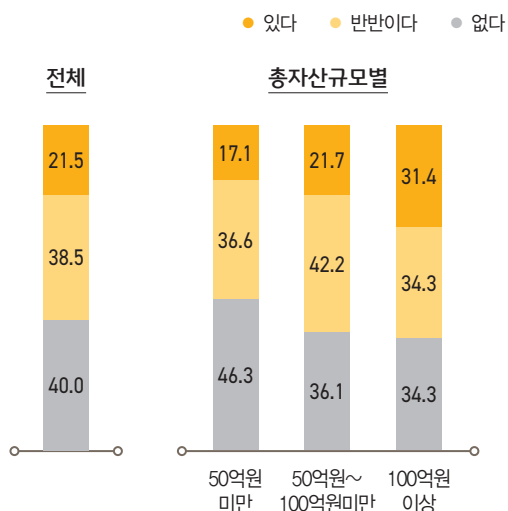
주) 향후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만 n=380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기대감이 가장 컸다

2024년 3월 말 정부는 일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제도권 편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에 나섰다. 구체적인 규제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비상장주식을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이 제도권에 편입된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한국 부자의 21.5%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이용 의향과 기대감을 나타냈다('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 17.1%, '50억원~100억원미만'의 부자 21.7%, '100억원이상'의 부자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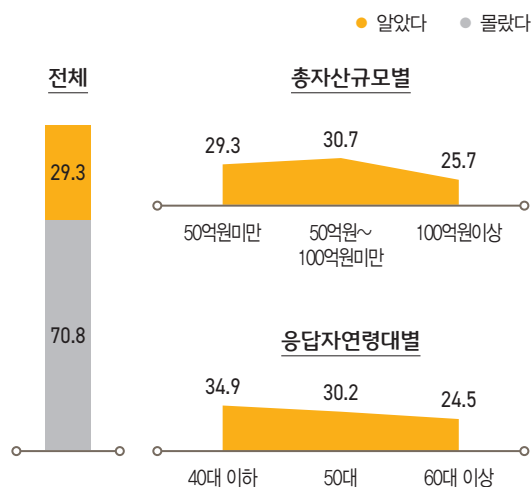
비상장주식 투자 방법으로 벤처기업에 투자 시 투자 시점의 소득공제, 양도 시점의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한국 부자 10명 중 3명(29.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총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총자산 50억원~100억원미만' 부자의 30.7%가 세제 혜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29.3%),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25.7%)의 순이었다. 비상장주식 투자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40대이하' 부자의 인지도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50대'(30.2%) 및 '60대이상'(24.5%) 대비 각각 4.7%p, 10.4%p 더 높은 수치였다.

그림 87 거래 플랫폼 제도권 편입 시 이용 의향 (단위: %)



주)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164, 50억원~100억원미만 n=166, 100억원이상 n=70

그림 88 비상장주식 투자 시 세제혜택 인지도 (단위: %)



주) 전체 n=400, 총자산 50억원미만 n=164, 50억원~100억원미만 n=166, 100억원이상 n=70, 응답자 연령대별 40대이하 n=106, 50대 n=139, 60대이상 n=155

한국 부자 10명 중 8명이 대체자산 투자 경험이 있으며, 투자 경험 및 의향 측면에서 ‘금·보석’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국 부자의 현재와 미래 대체투자처 1위는 ‘금·보석’이었다

- ✓ 83.2%의 부자는 대체자산에 ‘투자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 ‘금·보석’이 77.8%로 압도적인 대체자산 1위였고 미래 투자 의향 1순위 역시 ‘금·보석’(38.0%)
- ✓ 총자산이 많을수록 대체투자 경험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대체자산에 관심이 높음

‘금테크’ 배경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현재 가치, 장기 우상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 ✓ 부자가 꼽은 ‘금’ 투자 의향이 있는 이유로 ‘금 가치 장기적 상승 기대’ 의견이 1위(40.1%), ‘높은 수익률 기대’(37.5%), ‘최근 금 시세 상승 추이’(34.9%), ‘적은 원금손실 위험’(32.9%)의 순
- ✓ 반면, ‘금’ 투자 비선호 이유 1위는 ‘이미 너무 오른 금값’(41.9%)으로, ‘적정 투자 시기에 대한 관망’ 속 ‘기대수익에 대한 불확실’이 공존

‘예술품’은 한국 부자의 투자 경험이 많은 대체자산 2위로, ‘현재 최선의 투자처’로 관심을 받았다

- ✓ ‘예술품’은 한국 부자가 투자한 경험이 있는 대체자산 2위이고, 부자가 ‘예술품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최선의 투자처’(32.4%)이자 ‘절세가 가능해서’(29.4%)
- ✓ 부자가 꼽은 ‘예술품’ 투자 비선호 이유 1위는 ‘예술품에 대한 지식 부족’(34.7%)

한국 부자 3명 중 1명은 ‘디지털 금’으로서 ‘가상자산’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 ✓ ‘가상자산’이 국내외에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부자의 ‘가상자산’ 보유율 역시 2023년 4.3%에서 2024년 7.3%로 소폭이나마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한국 부자는 35.1%
- ✓ 다만,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는 가상자산의 ‘큰 변동성’ 우려 속 추이를 관망 중인 가운데(‘투자시기 부적절’ 31.0%), ‘보안문제’(25.9%)와 ‘거래소 불신’(20.7%) 역시 지적

‘비상장주식’에 대해 투자 의향을 보인 한국 부자는 ‘절세 혜택’에 관심이 많았다

- ✓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부자는 ‘비상장주식’ 투자를 통한 ‘절세 혜택’(55.0%)에 관심이 많은 반면 ‘큰 변동성’(26.8%), ‘원금 손실 위험’(26.6%)을 이유로 비선호
- ✓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가 가장 큰 기대감을 보임



한국 부자의 83.2%는 대체자산 투자 경험이 있으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대체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대체자산에 관심을 보였다. 이중 ‘금·보석’이 투자 경험(77.8%) 및 미래 투자 의향(38.0%)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체자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금값 고공행진 속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현재 가치와 금 시세 장기 우상향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예술품’ 역시 ‘현재 최선의 투자처’로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국내외 대체투자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상자산’ 역시 매년 한국 부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투자처였다. ‘비상장주식’ 투자심리 회복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투자 의향이 있는 부자가 꼽은 투자 이유 1위는 ‘절세 혜택’(55.0%)이었다.

한국 부자의 디지털 자산관리

01 |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행태

02 |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행태

03 | 생성형AI 다이렉트인덱싱 이용 행태

요약 Key Findings

전통적인 자산관리서비스는 고객 자산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자산가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의 확산, 금융부문의 디지털 플랫폼 등장,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의 용의해져 개선으로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보스턴컨설팅그룹(2024)에 따르면 최근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등 70% 이상의 글로벌 금융사가 생성형AI를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생성형AI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한 개인화·맞춤화 서비스에서 효과를 거두면서 전 세계 자산가들의 디지털 자산관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관리란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솔루션을 활용한 자산관리로 '웰스테크[웰스(Wealth)+테크놀로지(Technology)]'라고도 하며, 로보어드바이저, 다이렉트인덱싱 등의 서비스로 대표된다.

본 장에서는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한국 부자의 인지도, 생성형AI를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와 다이렉트인덱싱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의향,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의 직간접 이용 의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부자의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 활용 니즈를 파악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01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행태

부자의 42.0%가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글로벌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 2024)은 생성형AI 활용을 통해 고객별 최적의 어드바이저 매칭, 실시간 대고객 응대가 가능한 스마트 어시스턴트,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가상 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혁신이 가능하고 특히 자산가 고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시가 고객이 질문하면 학습된 데이터를 검색해 답변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생성형AI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개인화된 솔루션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자산관리 분야에서 생성형AI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생성형AI를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한국 부자의 42.0%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42.5%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15.5%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총자산규모별로 보면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인지도(48.6%)가 가장 높았고(‘총자산 50억원미만’의 부자 41.5%, ‘50억원~100억원 미만’의 부자 39.8%), 응답자연령대별로는 ‘50대’(46.8%), ‘40대이하’(40.6%), ‘60대이상’(38.7%)의 순이었다.

그림 89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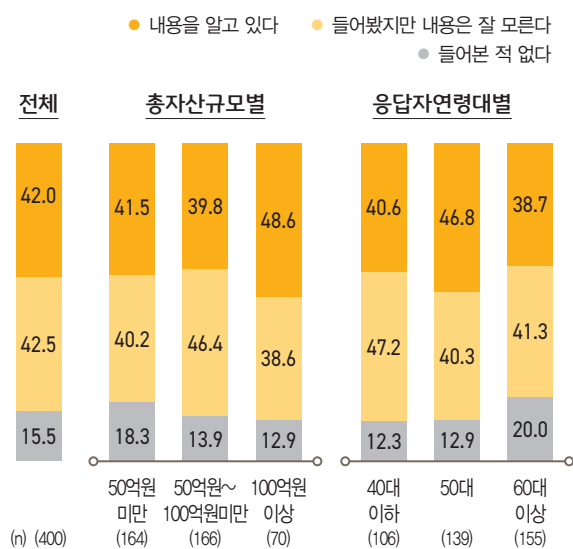


그림 90 한국 부자에게 듣는 디지털 자산관리 인식

60대 초반 남성
금융자산 10억원

자산관리는 디지털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단순히 AI 로봇, 챗봇 수준이라면 아직은 아날로그 쪽이 (낫죠). 그런데 추천 (투자) 리스트 보여주고 이런 건 시랑 사람이 같이 해주면 좋죠, 사람이 추천하는 건 목적이 인센티브일 수 있어서요.

60대 후반 남성
금융자산 10억원

저는 조만간 자산관리 비대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봐요. 비대면은 수수료 차이가 한 0.2% 나요. 또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요새는 정보화가 잘돼 있어 남의 돈 빼가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40대 후반 남성
금융자산 150억원

개인정보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안상의 문제가 여전히 (걱정이고), 폰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지, 직원이 꼭 있어야죠, 따로 없으면 지금 자산관리가 안돼요.

주) 한국 부자 대상 2022년 개인심층인터뷰(ID) 결과 활용 (2024년 ID에 해당 내용 미포함)

가장 선호하는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보고서·자문을 제공하는 ‘가상 어드바이저’ 기능이였다

한국 부자는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이용할 의향이 얼마나 있을까? 부자의 34.5%가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앞서 조사된 서비스 인지도(42.0%)보다 낮은 수치였다. 총자산규모별로는 앞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인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이용 의향이 가장 높았다(42.9%). 반면 응답자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 의향이 높다고 응답해 앞서 조사된 서비스 인지도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40대이하’ 39.6%, ‘50대’ 35.3%, ‘60대이상’ 30.3%).

다음으로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 중 한 개 이상의 부가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부자를 대상으로 ‘이용해보고 싶은 기능’을 질문해 보았다. 한국 부자가 가장 ‘이용해보고 싶다’고 답한 서비스는 ‘투자종목 성장성과 수익성, 배당수준 등 개인 맞춤형 보고서 제공’하는 ‘가상 어드바이저’ 기능으로(42.3%), 개인화된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금융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투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에 답해주는 AI 챗봇’과 같은 ‘스마트 어시스턴트’ 기능(27.8%),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나에게 맞는 직원(PB)을 추천’해주는 ‘최적 어드바이저 매칭’ 기능(25.8%), ‘직원(PB) 미팅 예약,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해주는 ‘편의기능’(20.8%)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91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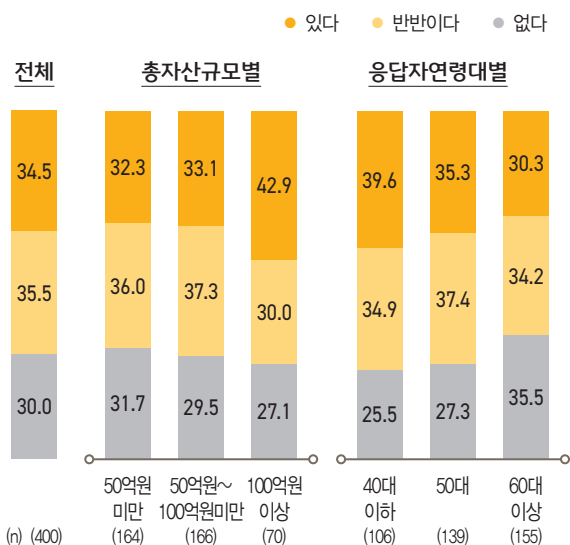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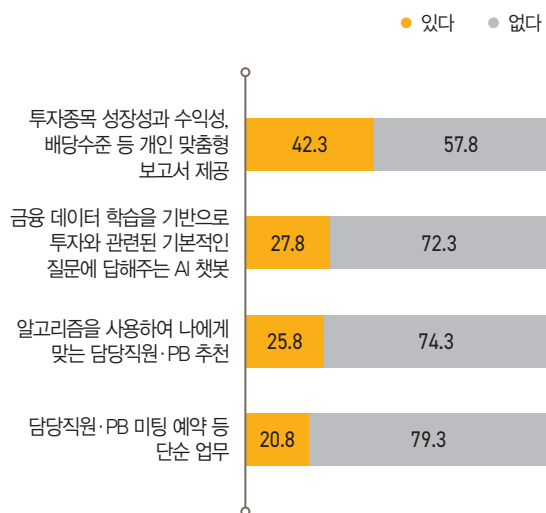


그림 92 AI 자산관리서비스 기능 이용 의향 (복수응답, 단위: %)



주) 생성형AI 기반 자산관리서비스 중 한 개 이상의 부가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만, 각 항목당 n=27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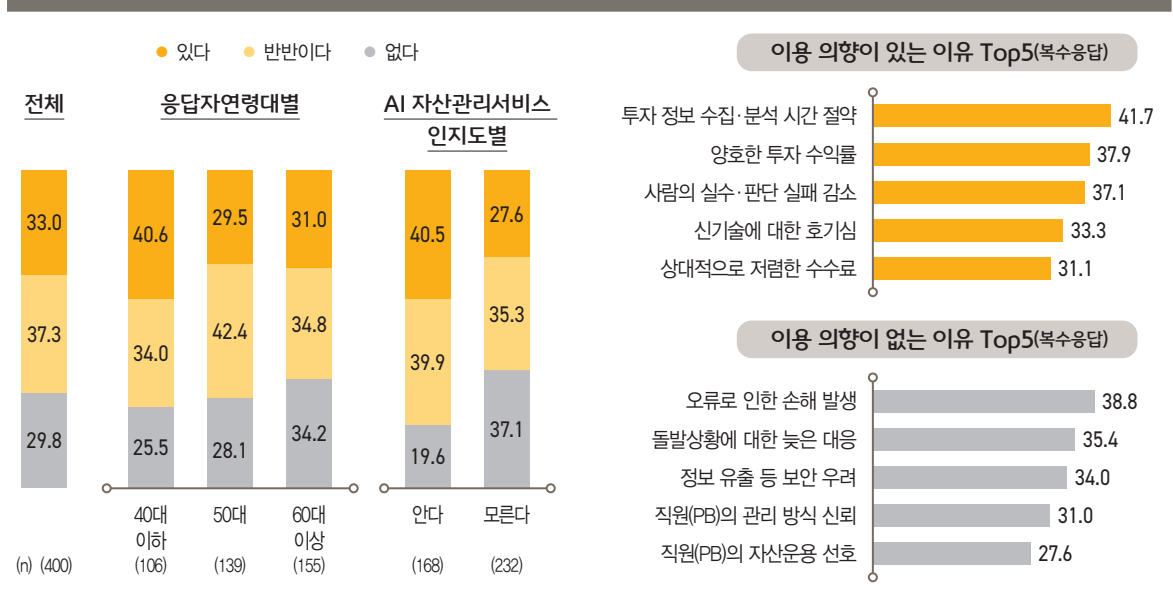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행태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해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부자는 33.0%였다

‘웰스테크’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현재의 재무상태와 목적에 맞춰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가 있다. 여기에 생성형AI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 능력이 더해지며 AI 챗봇이 고객과 나눈 대화, 타 금융사·관공서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 정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을 기반으로 초개인화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생성형AI 활용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이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부자는 33.0%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 의향이 높았고, 앞서 다룬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부자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이용 의향 역시 높았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부자는 ‘투자 정보 수집·분석 시간 절약’(41.7%), ‘양호한 투자 수익률’(37.9%), ‘사람의 실수·판단 실패 감소’(37.1%)를 대표적인 이용 이유로 꼽았다. 반면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38.8%), ‘돌발상황에 대한 늦은 대응’(35.4%), ‘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34.0%) 등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기능 및 성능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인 부자도 많았다.

그림 93 생성형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의향 및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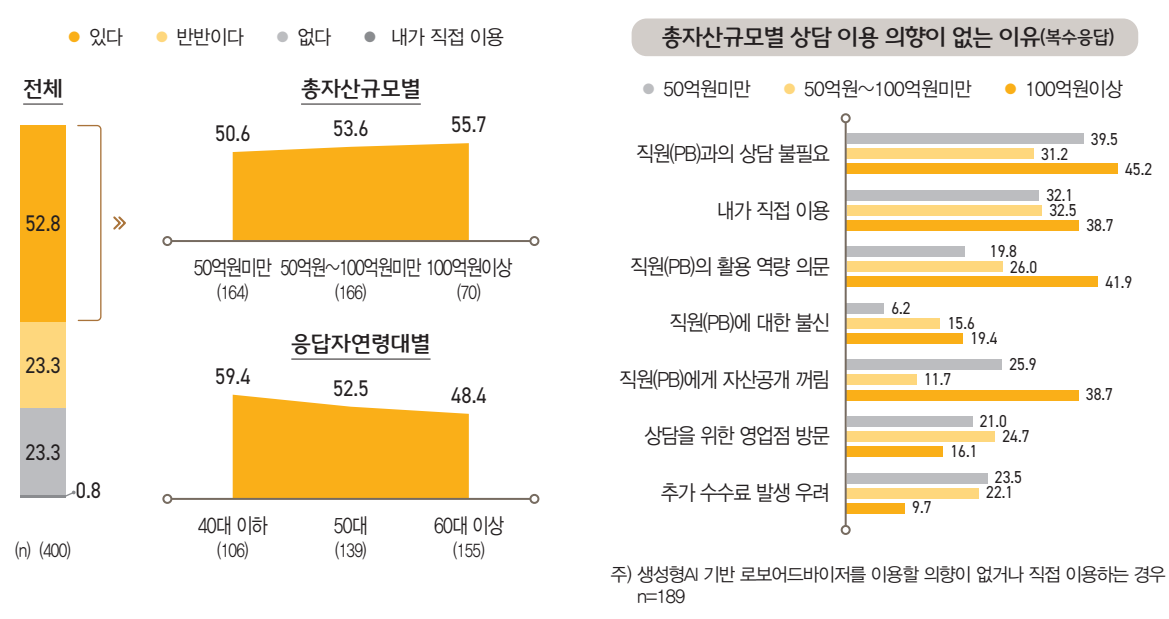
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n=132, 이용 의향이 없는 경우 n=119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직원 상담 서비스의 경우 이용 의향이 52.8%로 증가했다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가 설계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담당 직원(PB)과 상담을 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과반이 넘는 52.8%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앞서 조사된 ‘직접 이용’ 대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자산관리 니즈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부자가 생성형AI가 수립한 고품질 데이터와 인간 직원의 개입을 결합해 자산관리에 대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의견은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더욱 두드러졌다(‘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 55.7%, ‘50억원미만’의 50.6%). 또한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40대이하’ 59.4%, ‘50대’ 52.5%, ‘60대이상’ 48.4%) 앞서 ‘직접 이용’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생성형AI를 활용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수립한 포트폴리오를 직원과 상담하면서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부자는 ‘직원(PB)과의 상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직원(PB)이 AI 기반 포트폴리오를 잘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직원(PB)에게 내 자산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 외 ‘내가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와 같이 직원(PB)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각각의 이유에서 ‘총자산 100억원이상’의 부자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직원을 통한 상담에 신중한 것으로 나타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94 생성형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직원 상담서비스 이용 의향 및 비이용 이유 (단위: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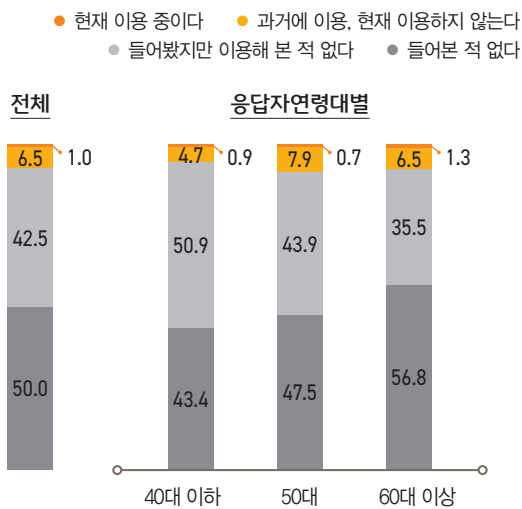
생성형 AI 다이렉트인덱싱 이용 행태

‘나만의 ETF’ 다이렉트인덱싱에 대해 부자의 절반이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 경험은 7.5%로 저조했다

‘다이렉트인덱싱(Direct Indexing)’은 개인투자자가 마치 펀드매니저처럼 스스로 원하는 종목을 골라 ‘나만의 포트폴리오(지수)’를 직접 만드는 기능으로,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기성품’ ETF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져왔다. 스스로 종목을 선별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활용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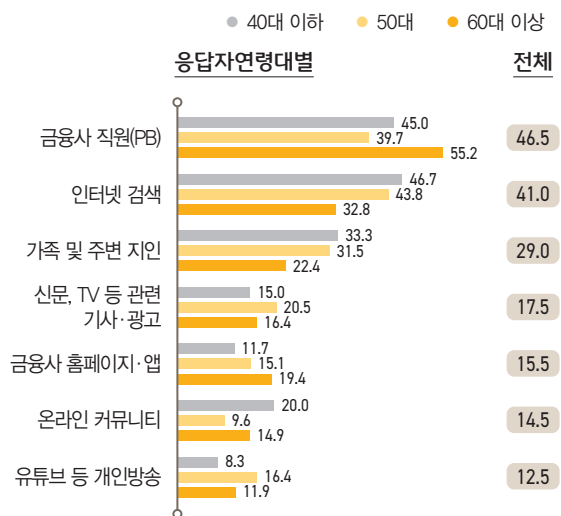
‘생성형 AI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는 이미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부 증권사에서 선보이기 시작했다. 때문에, 다이렉트인덱싱에 대해 한국 부자의 절반(50.0%)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실제 이용 경험률은 이보다 저조한 7.5%에 그쳤다. 이 중 6.5%는 ‘과거에 이용했지만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해 현재 이용 중인 부자는 1.0%에 그쳤다. 다이렉트인덱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부자의 경우 ‘직원(PB)’(46.5%)과 ‘인터넷 검색’(41.0%)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부자는 금융사 직원과 홈페이지, ‘40대 이하’ 부자는 인터넷, 지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비스를 인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95 다이렉트인덱싱 인지도 (단위: %)



주) 전체 n=400, 응답자연령대 40대이하 n=106, 50대 n=139, 60대이상 n=155

그림 96 다이렉트인덱싱 인지 경로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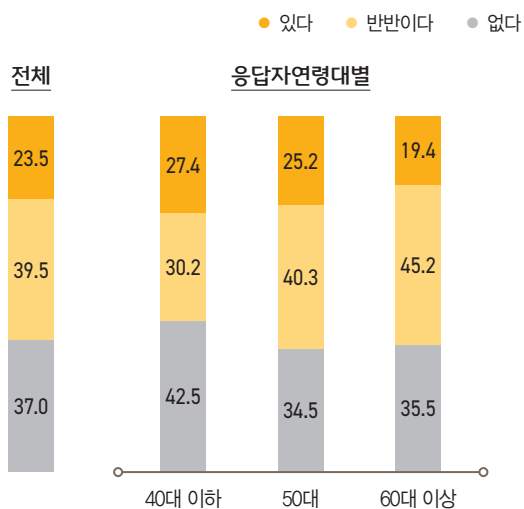
주)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를 알고 있고 사용한 응답자만 전체 n=200, 응답자연령대 40대이하 n=60, 50대 n=73, 60대이상 n=67

향후 다이렉트인덱싱 이용 의향에 대해 23.5%는 긍정적인 답변을, 39.5%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이렉트인덱싱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지만, 한국 부자에게 ‘향후 이용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여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늠해 보았다. 한국 부자의 23.5%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현재 이용 경험률(7.5%)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39.5%는 ‘반반이다’라고 응답하며 향후 서비스 보급 추이를 지켜본 후 이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연령대별로는, 앞선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40대이하에서 이용 의향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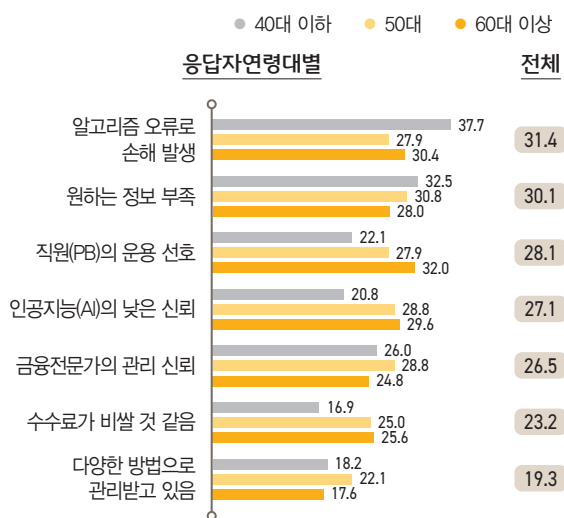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이용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부자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비선호 이유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의견은 ‘알고리즘 오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31.4%)였고, 특히 40대이하 부자의 응답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원하는 정보가 부족할 것 같아서’(30.1%), ‘직원(PB)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선호해서’(28.1%), ‘인공지능(AI)을 신뢰할 수 없어서’(27.1%), ‘알고리즘보다 금융 전문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더욱 신뢰가 가서’(26.5%)의 순으로 조사됐다. 50대와 60대이상 부자의 경우 40대이하 부자 대비 AI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아직까지 인간 직원(PB)을 선호했다.

그림 97 향후 다이렉트인덱싱 이용 의향 (단위: %)



주) 전체 n=400, 응답자연령대 40대이하 n=106, 50대 n=139, 60대이상 n=155

그림 98 향후 다이렉트인덱싱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주) 향후 다이렉트인덱싱 이용 의향 없음 n=306, 응답자연령대 40대이하 n=77, 50대 n=104, 60대이상 n=125

자산관리 분야에서도 생성형AI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부자는 ‘직접 이용’보다 ‘인간의 개입’이 결합된 디지털 서비스를 선호했다



총자산이 큰 부자일수록 개인화된 솔루션과 자문을 제공하는 ‘생성형AI 자산관리’를 기대했다

- ✓ 기존 AI가 고객이 질문하면 학습된 데이터를 검색해 답변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생성형AI는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개인화된 솔루션과 자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 부자의 42.0%는 ‘생성형AI 기반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총자산이 큰 부자일수록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음(‘100억원이상’의 부자 42.9%, ‘50~100억원미만’의 부자 33.1%, ‘50억원미만’의 부자 32.3%)
- ✓ 부자가 가장 선호하는 ‘생성형AI 기반 자산관리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보고서·자문을 제공하는 ‘가상 어드바이저’ 기능(이용 의향 42.3%)

한국 부자는 인간의 개입이 결합된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다

- ✓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고객별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영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에 생성형AI 기반 데이터 수집·처리 능력이 더해지며 초개인화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
- ✓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해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부자는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33.0%),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38.8%)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비선호 이유 1순위)
- ✓ 반면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직원 상담 서비스의 경우 이용 의향이 52.8%로 증가, 자산관리 니즈와 관심사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부자들이 생성형AI 기반 고품질 데이터와 인간 개입의 결합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

‘나만의 ETF’ 다이렉트인덱싱은 국내 도입 초기로 이용률 저조, 40대 이하에서는 기대감이 있었다

- ✓ 스스로 원하는 종목을 골라 ‘나만의 포트폴리오(지수)’를 직접 만드는 ‘다이렉트인덱싱’에 대해, 부자의 절반(50.0%)은 인지하고 있으나 짧은 국내 서비스 제공 기간 탓에 아직까지 이용 경험은 7.5%로 저조
- ✓ 향후 다이렉트인덱싱 이용 의향에 대해 부자의 23.5%는 긍정적인 답변을, 39.5%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40대이하’ 부자(27.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50대’ 25.2%, ‘60대이상’ 19.4%)



자산관리 분야에서 생성형AI의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부자가 가장 기대하는 ‘생성형AI 자산관리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보고서·자문을 제공하는 ‘가상 어드바이저’ 기능이였다(42.3%). 초개인화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해 주는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직접 이용’ 의향은 33.0%인 반면, 이를 활용한 직원 상담 서비스 이용 의향은 52.8%로 증가해, 자산관리 니즈와 관심사가 다양하고 복잡한 부자가 생성형AI 기반 고품질 데이터와 ‘인간의 개입’이 결합된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이렉트인덱싱은 국내 도입 초기로 이용률이 저조하나(7.5%),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40대이하’ 부자(이용 의향 27.4%)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참고

01 | 용어 정의

02 | 참고 자료

참고1 용어 정의

【부자의 정의 및 유형】

- 한국 부자 : 금융자산 10억원이상 보유하고 거주용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 10억원이상을 보유한 개인
- 부자의 분류 : 금융자산 보유액을 기준으로 보유금액별 구분
 - 자산가 : 금융자산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을 보유한 개인
 - 고자산가 : 금융자산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을 보유한 개인
 - 초고자산가 : 금융자산 300억원이상을 보유한 개인
- ※ 고자산가이상 : 고자산가 + 초고자산가

【자산 분류】

- 총자산 :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 기타자산
- 금융자산 : 전체 총자산 중 한국 부자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및 예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파생금융상품, 거주자·비거주자 발행주식 및 출자지분(부자가 설립한 법인의 주식 가치) 등 포함
- 부동산자산 : 전체 총자산 중 한국 부자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외 부동산의 합으로, 개인명의(개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의 부동산자산과 법인명의(개인이 소유한 법인)의 부동산자산 포함
- 기타자산 : 예술품, 금, 보석, 회원권, 가상자산 등 자산의 현재 시가

【금융자산 유형】

- 유동성 금융자산 : 현금, 수시입출식예금, MMF·MMT
- 만기환급형보험 : 피보험자가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 기납입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해주는 보험
- ETF(상장지수펀드) :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 ELS(추가연계증권) : 특정 주식 또는 다수 주식의 가격이나 추가지수 수치의 변동에 따라 지급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
- DLS(파생결합증권) :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등)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
- 일임형상품 :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로 투자자가 맡긴 예비자산을 투자일임계약 체결 후 투자자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운용하는 자산관리서비스
- 리츠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주식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자산 유형】

- 거주용 부동산 : 주택, 아파트, 빌라·연립, 오피스텔 등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 거주용 외 부동산 : 거주용 외 주택과 빌딩·상가, 토지·임야 등 부동산
- 거주용 주택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연립,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등 포함
- 거주용 외 주택 :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투자용도의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연립,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등 포함



【부채 유형】

- 금융부채 :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마이뉴스통장 포함), 금융상품 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주식담보대출 포함) 등
- 총부채 :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의 합

【대체투자】

- 대체투자 :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나 주식, 채권, 현금자산, 파생상품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투자
- 대체자산 : 대체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금·보석’, 그림, 도자기 등의 ‘예술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 원유, 구리 등의 ‘원자재’, 저작권, 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투자’,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

【투자지식 수준 분류】

- 매우 낮은 수준 :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 낮은 수준 : 기본적인 투자의 개념만 알고 있는 정도
- 높은 수준 : 투자와 관련된 경제 지표와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도
- 매우 높은 수준 : 전문적으로 분석해 스스로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

【투자성향 분류】

- 안정형 : 원금 손실 없이 확정된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
- 안정추구형 :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일정 수준 투자 수익이 확보된 투자
- 위험중립형 : 기대수익에 상응하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중금리 이상의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투자
- 공격투자형 :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하며, 시중금리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 ※ 안정지향적 : 안정형 + 안정추구형 / 공격지향적 : 적극투자형 + 공격투자형

【디지털 자산관리】

-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 :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솔루션을 활용한 자산관리서비스로 ‘웰스테크(Wealth)+테크놀로지(Technology)’라고도 명명
- 디지털 자산관리 유형
 - ※ 생성형AI : 사용자의 프롬프트 또는 요청에 따라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공지능
 - 생성형AI 기반 자산관리서비스 : 생성형AI 활용을 통해 고객별 최적의 어드바이저 매칭, 실시간 대고객 응대가 가능한 스마트 어시스턴트,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가상 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개인화된 솔루션과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
 - 생성형AI 로보어드바이저 : 생성형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영해주는 기능으로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
 - 생성형AI 다이렉트인덱싱 : 생성형AI 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기초 지수를 손쉽게 설계해주는 기능
 - ※ 다이렉트인덱싱 :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원하는 종목을 골라 ‘나만의 포트폴리오(지수)’를 직접 만드는 기능

참고2 참고 자료

【 도서 】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4.3), 《2024 KB 부동산 보고서》

【 아티클 】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2024.10), “2024년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 자본시장연구원(2024.7), “외환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 BCG(2024.6), “Global Wealth Report 2024: The GenAI Era Unfolds”
- Capgemini(2024.2), “WM Wealth Management Top Trend”
- Capgemini(2024.6), “World Wealth Report 2024: Intelligent strategies for winning with the ultra-wealthy”
- McKinsey & Company(2024.1), “US wealth management: Amid market turbulence, an industry converges”
- New World Wealth(2024), “The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Dashboard 2024”
- UBS(2024.9.1), “Global Wealth Report 2024: Crafted wealth in intelligence”

【 언론자료 】

- 《경향신문》(2024.11.3), “‘금값’ 고공행진 타고 몰려드는 개미들”
- 《동아일보》(2021.7.26), “[아트테크가 뭐길래] 안전자산? 대체투자? 미술품을 주목하는 이유”
- 《딜사이트》(2024.5.23), “2024 WM포럼-글로벌 자산관리 시장 트렌드 AI가 주도”
- 《매경이코노미》(2023.5.4), “코인과 전통 자산, 어떻게 다를까”
- 《머니투데이》(2024.7.9), “해외주식 직접투자 30년... 투자 규모 70만배 증가, 서학개미 원픽은?”
- 《머니투데이》(2024.11.6), “해외 투자 이민의 최신 트렌드와 주요 변화①②”
- 《비즈니스포스트》(2024.9.4), “ETF 부진에 ‘직접 뛰는’ 다이렉트인덱싱 꿈틀, AI 품은 ‘액티브 개미’도 진화”
- 《세계일보》(2024.2.20), “투자 조언·시장 분석 ‘척척’... 증권가도 생성형AI 도입 바람”
- 《이코노미스트》(2024.10.17), “‘주식 더 하다가 다 잃겠다’... 증시 불안에 개미들 ‘여기’로 몰린다”
- 《전자신문》(2024.10.23), “코스닥 하느니 차라리 장외주식... 비상장 우량주에 쏠리는 개미들”
- 《조선비즈》(2024.6.28), “‘골드바·금통장·ETF’ 금테크로 금빛 수익 얻으려면”
- 《조선비즈》(2024.8.5), “‘아트테크’ 자산가 전유물 아니다... 취득세 감면에 경비 처리까지”
- 《포춘코리아》(2024.3.1), “90조 달러 ‘대대적 부의 이전’, 밀레니얼 세대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로 만들 것”
- 《한경비즈니스》(2023.5.22), “‘나만의 ETF’ 다이렉트인덱싱 뭐길래”
- 《日経ビジネス》(2024.10.30), “裕層マネ-360兆円狙う資産管理ビジネス高島屋も”

【 디지털 자료 】

- 법무법인 별, 벤처기업 투자 시 세제 혜택, 홈페이지
- AsianInvestor(2024.10.24), Family offices raise crypto bets as Bitcoin ETFs bring legitimacy, 홈페이지
- VT Markets(2024.6.12), Top investing trends for 2024, 홈페이지

발행인 양종희
편집인 정신동
발행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발행일 2024년 12월 22일
연구자 부장 황원경(wk.hwang@kbf.com)
선임연구위원 김남경(namyoungkim@kbf.com), 선임연구위원 김진성(jins.kim@kbf.com)
조사기관 (주)컨슈머인사이트
편집인쇄 (주)나눔커뮤니케이션

본 저작물은 KB금융그룹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승인 없이 본 책자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